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4-10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2021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2021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1. 30

수행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용역수행기관 결과물을 기초로 한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 목 차

01.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	1
1. 사업개요 .....	3
2. 세부사업 추진내용 .....	5
02.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설문조사 결과 .....	15
- 참조. 아동 교육권 현황 설문지 .....	91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103
- 서울1권역 .....	105
- 서울2권역 .....	117
- 경기2권역 .....	122
- 경기3권역 .....	131
- 경기4권역 .....	162
- 전북권역 .....	170
- 전남권역 .....	178
- 강원1권역 .....	187
- 강원2권역 .....	192
- 강원3권역 .....	199
- 충북권역 .....	210
- 충남권역 .....	216
- 대전권역 .....	228
- 부산권역 .....	242
- 경남권역 .....	255
- 제주권역 .....	259

04. 제언 .....	273
05. 부록 .....	279
-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권역주제) .....	281
- 권역별 기타자료: 인터뷰지 .....	323

---

# 01

---

---

##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





## 사업의 개요

### 1) 사업목적

-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함을 바탕으로, 인권 의식을 함양한 민주적 세 계시민을 양성한다.
- 아동권리협약(CRC) 및 UN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권해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리주체인 아동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사회적·국가적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아동권리가 세 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사업기간

- 2021.05.07.~2021.11.30. (7개월)

### 3) 참여대상 및 활동지역

- 참여대상 : 만10세 이상 18세 미만 전국의 모든 아동
- 활동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4) 모니터링 주제

- 공통주제 :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권역주제 : 권역별 선정

### 5)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Lens of children)’

- 아동들에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LENS’라는 별칭 사용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Lens)으로부터 출발
- 능동적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 6) 수행 내역

일정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세부 내용
5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계획 및 자료 제작</li> <li>● 자문팀 구성 및 회의진행</li> <li>● <b>LENS 모집 및 선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및 모집 : 6.10(목)~7.20(화)</li> <li>- 선정결과 : 7.23(금)</li> </ul> </li> <li>● <b>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및 모집 : 6.14(월)~7.1(목)</li> <li>- 선정결과 : 7.6(화)</li> </ul> </li> </ul>	<p>[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각 지역 시도교 육청, 아동친화도시 협력</li> <li>-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포스터, 카드뉴스)</li> <li>- 보도자료 배포</li> </ul> <p>[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li> <li>-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7.9(금) 13:00~15:30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5층 회의실</li> <li>- 2차 : 7.16(금) 13:00~16:30 / 비대면 진행(ZOOM)</li> </ul> </li> </ul>	<p>[사업소개 및 활동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코디네이터 역할 안내</li> <li>- 아동관점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li> </ul> <p>[아동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li> <li>- 아동인권교육의 지도방법</li> </ul> <p>[모니터링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코디네이터 사례발표</li> </ul>
8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권역별 모니터링 발대식(16개 권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8월 중 진행</li> <li>- 권역별 진행</li> </ul> </li> <li>● <b>권역별 모니터링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10월 활동</li> </ul> </li> <li>● <b>공통주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리스트 개발 : 9월 초</li> <li>- 조사 : 9월 말~10월 중순까지</li> </ul> </li> </ul>	<p>[발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교육, 권역별 공통주제&amp;세부 주제 논의</li> <li>- 모니터링 활동계획 및 논의</li> </ul> <p>[모니터링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공통주제&amp;세부주제 모니터링 활동</li> <li>-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조사</li> </ul> <p>[체크리스트 개발 및 조사]</p>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보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2(월) 11:30~16:30 / 로얄호텔서울</li> </ul> </li> <li>● 사업평가 및 결산</li> </ul>	<p>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내용 공유</p>

## 세부사업 추진내용

### 1)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1. 06. 10.(목) ~ 07. 20.(화) 24시까지.
- 심 사 : 2021. 07. 21.(수) ~ 07. 22.(목)
- 결과발표 : 2021. 07. 23.(금)
- 선정결과 : 총 108명(일반아동, 지역아동센터아동,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 등 포함)

권역	서울 1	서울 2	경기 2	경기 3	경기 4	전북	전남	강원 1	강원 2	강원 3	충북	충남	대전	부산	경남	제주	합계
모집	4	5	8	5	4	8	6	11	7	11	7	8	5	7	3	9	108 (명)

### 2) 코디네이터 운영

#### 2-1)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1. 06. 14.(월) ~ 07. 01.(목) 24시까지.
- 결과발표 : 2021. 07. 06.(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선정결과 : 총 16명  
 ※ 총 76명의 지원자 중 회원단체 지역 실무자, 아동인권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교사, Lens 유경험자 포함

## 2-2)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일시 및 장소
  - 1차 : 2021. 07. 09.(금) 13:00~15:3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5층 회의실
  - 2차 : 2021. 07. 16.(금) 13:00~16:30, 비대면 진행(ZOOM)
- 인원 : 총 23명(코디네이터, 강사, 실무자)
- 내용 : 기관 및 사업 소개, 아동인권교육 및 사례발표, 공통주제교육
- 프로그램
  - 1차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12:40~13:00	참여자 확인
13:00~13:30	개회 및 인사말
	기관 소개
	사업 소개 및 활동방법 안내
13:30~13:50	모니터링 사례발표 I / 전반적인 진행 중심
13:50~14:10	모니터링 사례발표 II / LENS 참여 아동청소년 관점 중심
14:20~15:20	주제교육 - 아동중심 관점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
15:20~15:3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 2차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12:40~13:00	참여자 확인
13:00~15:00	아동인권교육
15:10~16:00	공통주제교육 - 코로나19 시대, 아동의 교육권 -
16:00~16:3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3) 권역별 발대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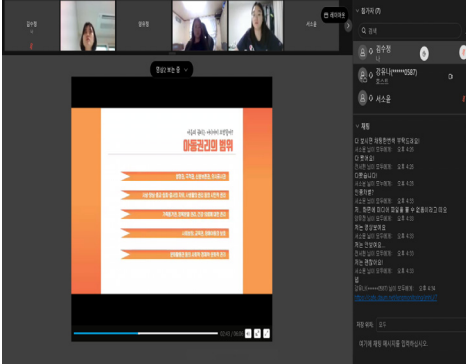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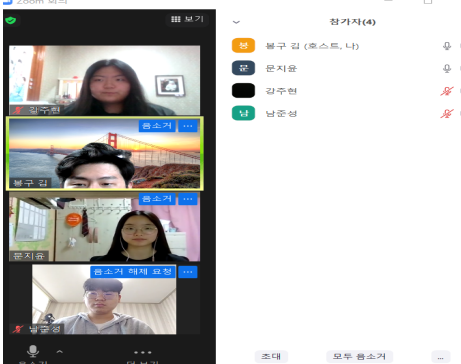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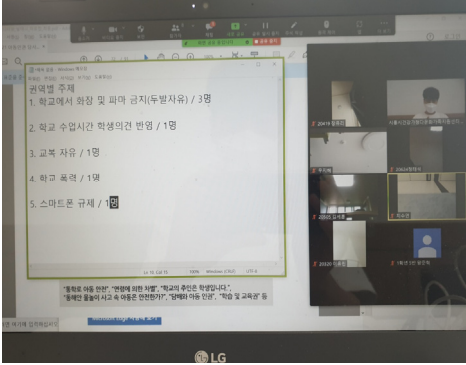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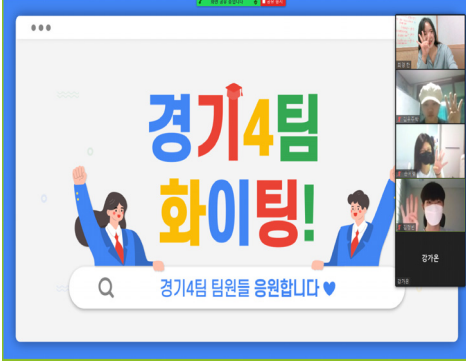

- 기간 : 2021. 07. 20.(화) ~ 2021. 09. 29(수)
- 내용 :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아동인권교육, 공통주제 논의, 권역별 주제 논의, 모니터링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10분	참석자 확인 및 코로나19 예방조치
30분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60분	아동인권교육
40분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소개 및 활동 안내
40분	지역주제(소주제) 모니터링 논의
30분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10분	폐회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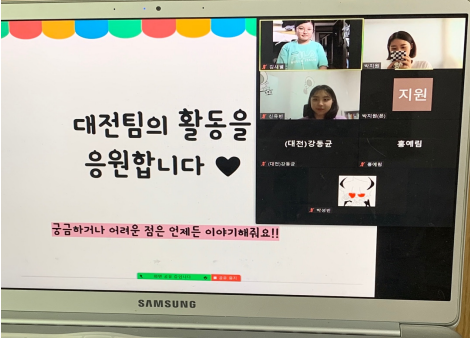



- 권역별 발대식 진행

권역	날짜	장소	참여인원	
서울	서울1	8/8(일)	비대면 진행(Webex)	총 7명(아동 4명, 코디 1명, 실무자 2명)
	서울2	8/4(수)	비대면 진행(zoom)	총 5명(아동 4명, 코디 1명)
경기	경기2	8/4(수)	비대면 진행(zoom)	총 8명(아동 7명, 코디 1명)
	경기3	7/31(토)	비대면 진행(zoom)	총 6명(아동 5명, 코디 1명)
	경기4	8/7(토)	비대면 진행(zoom)	총 5명(아동 4명, 코디 1명)
전북	7/21(수)	이리남성여자중학교	총 9명(아동 8명, 코디네이터 1명)	
전남	9/29(수)	초록어린이지역아동센터	총 9명(아동 8명, 코디네이터 1명)	
강원	강원1	8/21(토)	원주시청소년수련관(교육실)	총 13명(아동 11명, 코디 1명, 실무자 1명)
	강원2	8/21(토)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이음관)	총 8명(아동 7명, 코디네이터 1명)
	강원3	8/21(토)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이음관)	총 10명(아동 8명, 코디 1명, 실무자 1명)
충북	7/26(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총 8명(아동 7명, 코디네이터 1명)	
충남	8/25(수)	충남부여 은산지역아동센터	총 10명(아동 8명, 코디네이터 1명, 실무자 1명)	
대전	8/22(일)	비대면 진행(zoom)	총 5명(아동 4명, 코디 1명)	
부산	8/7(토)	비대면 진행(zoom)	총 8명(아동 7명, 코디네이터 1명)	
경남	9/3(금)	비대면 진행(zoom)	총 3명(아동 2명, 코디네이터 1명)	
제주	7/20(화)	신성여자중학교	총 9명(아동 8명, 코디네이터 1명)	

• 활동사진

<p>서울 1</p>	<p>서울 2</p>
	
<p>경기 2</p>	<p>경기3</p>
	
<p>경기4</p>	<p>전북</p>
	

<p>전남</p>	<p>강원1</p>
	
<p>강원2</p>	<p>강원3</p>
	
<p>충북</p>	<p>충남</p>
	

대전	부산
	
경남	제주
	



#### 4)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 기간 : 2021. 08. 04.(일) ~ 2021. 10. 31.(일)
- 권역별 주제

권역		주제
서울	서울1	노키즈존
	서울2	코로나 시대 아동의 놀 권리는?(신체적, 사회적 환경 중심)
경기	경기2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
	경기3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 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
	경기4	자유학년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필요성
전북		아동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와 흡연예방 및 해결방안
전남		아동의 성적 대상화
강원	강원1	아동의 놀 권리(원주시를 중심으로)
	강원2	아동청소년의 음주 문제
	강원3	학교규칙의 현황과 개선필요성
충북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충남		아동의 놀 권리(아동청소년의 취미활동 및 여가시간 관련 문제)
대전		결식아동의 급식비 인상 문제
부산		아동학대
경남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지정속도 미 준수 차량의 문제점
제주		상벌점제도는 아동을 위한 것인가?

## 5)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 일시 : 2021. 11. 22(월) 11:30~16:30
- 장소 : 로얄호텔서울 2층 Royal Ballroom 홀
- 참석자 : 총 43명
  - 모니터링단(LENS) 25명, 코디네이터 9명, 연구자 1명, 토론자 3명, 실무자 4명, 기타(인솔교사) 1명
-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식	13:30~14:00	인사말 및 축사, 기념촬영
격려사 및 우수활동 아동 대표 시상	14:00~14:10	오준(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LENS 활동 소개 및 영상	14:10~14:20	이지선(한국아동단체협의회)
공통주제 발표	14:20~14:50	이지선(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14:50~15:20	정순자(서울 서부여리초등학교 교장) 황태범(양주백석고등학교 교사) 양준석(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1학년)
권역별 사례발표	15:20~16:30	윤다영, 전서현(LENS   서울1) 김다영(LENS   서울2) 장유리, 정태석(LENS   경기2) 박수현, 추가영(LENS   경기3) 김우주박, 김정빈(LENS   경기4) 주아진, 장서현(LENS   전북) 엄유빈(LENS   전남) 허원, 원도경(LENS   강원1) 최우주, 김나윤(LENS   강원2) 김해선(LENS   강원3) 김준석(LENS   충북) 김새별(LENS   대전) 강준재, 엄동현(LENS   부산) 박은빈(코디네이터   경남) 고하은, 박예리, 천수리(LENS   제주)

• 현장사진





---

## 02

---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결과

###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공통 주제인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학교 온라인 수업과 학교 외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동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문항은 각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 아동(LENS)이 작성한 ‘설문지에 담고 싶은 질문’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되었고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전국의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각 권역별 모니터링 당사자인 아동(LENS)과 아동단체에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온라인 설문의 링크를 배부하여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618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나 이 중 19세 이상의 응답자 5부 및 불성실 응답 3부를 제거하여 총 1,610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 〈조사개요〉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전국의 아동·청소년	총 1,610명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2021년 9월~10월 중순

## 2)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 지역별 응답 현황

- 지역별 응답 현황은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서울특별시가 561명(34.8%), 제주특별자치도가 250명(15.5%), 경상도가 204명(12.7%), 경기도가 196명(12.2%), 전라도가 104명(6.5%), 부산광역시가 93명(5.8%), 강원도가 69명(4.3%), 충청도가 60명(3.7%), 인천광역시가 34명(2.1%), 대구광역시가 16명(1.0%), 광주광역시가 12명(0.7%), 대전광역시가 9명(0.6%), 세종특별자치시가 2명(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응답 현황

항목	응답수(n)	백분율(%)
강원도	69	4.3
경기도	196	12.2
경상도	204	12.7
광주광역시	12	0.7
대구광역시	16	1.0
대전광역시	9	0.6
부산광역시	93	5.8
서울특별시	561	34.8
세종특별자치시	2	0.1
인천광역시	34	2.1
전라도	104	6.5
제주특별자치도	250	15.5
충청도	60	3.7
합계	1,610	100.0



## (2)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1,117명(69.4%), 남성이 489명(30.4%), 기타가 4명(0.2%)이다.
- 참여자가 태어난 연도는 2003년생은 113명(7.0%), 2004년생은 188명(11.7%), 2005년생은 175명(10.9%), 2006년생은 161명(01.0%), 2007년생은 334명(20.7%), 2008년생은 178명(11.1%), 2009년생은 284명(17.6%), 2010년생은 118명(7.3%), 2011년생은 47명(2.9%), 2012년생은 5명(0.3%), 2013년생은 4명(0.2%), 2014년생은 3명(0.2%)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은 중학교가 673명(41.8%)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가 475명(29.5%), 초등학교가 457명(28.4%), 학교에 다니지 않음이 3명(0.2%), 대안학교가 2명(0.1%)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837명(52.0%), 중소도시가 636명(39.5%), 농산어촌이 137명(8.5%) 순으로 나타났다.
- 가족 형태는 두 명의 부모님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390명(86.3%)으로 가장 높으며, 한 명의 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111명(6.9%), 조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47명(2.9%), 두 명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2명(2.0%), 친척과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14명(0.9%), 한 명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14명(0.9%), 자녀들만 살고 있음이 1명(0.1%), 기타가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가 885명(55.0%), 외벌이가 486명(30.2%), 해당 안 됨(두 명의 부모님이 아닌 경우와 응답 없음)이 239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1,117	69.4
	남성	489	30.4
	기타	4	0.2
연령대	2003	113	7.0
	2004	188	11.7
	2005	175	10.9
	2006	161	10.0
	2007	334	20.7
	2008	178	11.1
	2009	284	17.6
	2010	118	7.3
	2011	47	2.9
	2012	5	0.3
	2013	4	0.2
	2014	3	0.2
	학교급	초등학교	457
중학교		673	41.8
고등학교		475	29.5
대안학교		2	0.1
학교에 다니지 않음		3	0.2
거주지역	대도시	837	52.0
	중소도시	636	39.5
	농산어촌	137	8.5
가족 형태	두 명의 부모와 자녀	1,390	86.3
	한 명의 부모와 자녀	111	6.9
	조부모와 손자녀	47	2.9
	두 명의 부모와 조부모와 자녀	32	2.0
	한 명의 부모와 조부모와 자녀	14	0.9
	친척과 살고 있음	14	0.9
	자녀들만 살고 있음	1	0.1
	기타	1	0.1
부모의 맞벌이 여부	네	885	55.0
	아니오	486	30.2
	해당 안 됨	239	14.8
합계		1,610	

## 2. 조사 결과 분석

### 1) 코로나19 시기의 학교 온라인 수업 현황

#### (1) 온라인 수업 방식의 이용 빈도

코로나19 (2020년 1학기) 이후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했던 순서대로 3개를 적어달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 같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3명을 제외한 1,607명의 응답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 1순위로 가장 많이 이용한 수업방식이라고 대답한 수업방식은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이 826명(51.4%),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329명(20.4%), ‘EBS 방송 수업’이 242명(15.1%),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이 109명(6.7%),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이 101명(6.2%) 순으로 나타났다.
- 2순위로 응답한 수업방식은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방식이 469명(2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순위로 응답한 수업방식은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이 471명(29.3%)과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혼자서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이 469명(2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코로나19 이후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

	1순위	2순위	3순위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	826명(51.4%)	282명(17.5%)	213명(13.2%)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329명(20.4%)	469명(29.1%)	223명(13.8%)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101명(6.2%)	369명(22.9%)	469명(29.2%)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109명(6.7%)	285명(17.7%)	471명(29.3%)
EBS 방송 수업	242명(15.1%)	202명(12.5%)	231명(14.3%)
합계	1,607명(100%)	1,607명(100)	1,607(100%)

<표 4>는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한 수업방식 순위에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 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합계 획득점

수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 ‘EBS 방송 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코로나19 이후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의 순위 점수

	1순위(x3점)	2순위(x2점)	3순위(x1점)	합 계 (획득점수)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826 (2478)	282 (564)	213 (213)	1321 (3255)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329 (987)	469 (938)	223 (223)	1021 (2148)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101 (303)	369 (738)	469 (469)	939 (1510)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	109 (327)	285 (570)	471 (471)	865 (1368)
EBS 방송 수업	242 (726)	202 (404)	231 (231)	675 (1361)

### ①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 방식 이용 빈도

〈표 5〉는 학교급에 따른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온라인 수업방식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 318명(69.6%),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47명(10.3%), ‘EBS 방송 수업’이 38명(8.3%)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같은 순으로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 329명(48.9%),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186명(29.6%), ‘EBS 방송 수업’이 68명(10.1%)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는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 177명(37.3%), ‘EBS 방송 수업’이 136명(28.6%),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96명(20.2%)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의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며, ‘선생

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EBS 방송 수업' 활용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학교급별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방식

항목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수업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EBS 방송 수업
초등학교	318명(69.6%)	47명(10.3%)	18명(3.9%)	36명(7.9%)	38명(8.3%)
중학교	329명(48.9%)	186명(27.6%)	42명(6.2%)	48명(7.1%)	68명(10.1%)
고등학교	177명(37.3%)	96명(20.2%)	41명(8.6%)	25명(5.3%)	136명(28.6%)

## ② 거주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방식 이용 빈도

〈표 6〉은 거주지역에 따른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해 빈도분석 결과이다.

-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온라인 수업방식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 567명(67.7%), 'EBS 방송 수업'이 101명(12.1%),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94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 201명(33.0%),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210명(33.0%)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고 세 번째 높은 빈도로 'EBS 방송 수업'이 104명(16.4%)으로 나타났다.
- 농산어촌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한 응답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 49명(35.8%), 'EBS 방송 수업'이 37명(27.0%),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을 시청'이 25명(18.2%)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의 비율이 모든 거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 거주지역별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방식

항목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수업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EBS 방송 수업
대도시	567명(67.7%)	94명(11.2%)	30명(3.6%)	43명(5.1%)	101명(12.1%)
중소도시	210명(33.0%)	210명(33.0%)	60명(9.4%)	51명(8.0%)	104명(16.4%)
농산어촌	49명(35.8%)	25명(18.2%)	11명(8.0%)	15명(10.9%)	37명(27.0%)

(2)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표 7〉은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는 일원배치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01명(41.7%),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8명(40.5%)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77명(53.8%),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15명(35.0%)이다.
- ‘EBS 방송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8명(44.0%),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6명(33.0%)이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에 대한 만족도에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0명(49.5%),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명(33.7%)이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8명(44.0%),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6명(33.0%)이다.
- 각 수업 방식의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하는 방식의 만족도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EBS 방송

수업',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 순으로 나타났다.

- 비교하기 위해 ANOVA분석을 한 결과,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하는 방식의 만족도가 'EBS 방송 수업'하는 방식의 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만족하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5)	평균 (표준 편차)	F/Dunnett T3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n=826) <sup>a</sup>	14명 (5.8%)	29명 (12.0%)	98명 (40.5%)	69명 (28.5%)	32명 (13.2%)	3.51 (1.011)	3.122* c{b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n=329) <sup>b</sup>	5명 (1.5%)	32명 (9.7%)	115명 (35.0%)	130명 (39.5%)	47명 (14.3%)	3.55 (.906)	
EBS 방송 수업 (n=242) <sup>c</sup>	8명 (7.3%)	17명 (15.6%)	36명 (33.0%)	29명 (26.6%)	19명 (17.4%)	3.31 (1.035)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109) <sup>d</sup>	8명 (7.9%)	9명 (8.9%)	34명 (33.7%)	34명 (33.7%)	16명 (15.8%)	3.31 (1.152)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n=101) <sup>e</sup>	8명 (7.3%)	17명 (15.6%)	36명 (33.0%)	29명 (26.6%)	19명 (17.4%)	3.41 (1.106)	

※ 최소값:1, 최대값:5

\*\*\*p<0.001; \*\*p<0.01; \*p<0.05

### ①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

〈표 8〉은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급에 따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EBS 방송 수업 시청’,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표 8〉 학교급별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의 만족도

수업방식	초등학교 <sup>a</sup>		중학교 <sup>b</sup>		고등학교 <sup>c</sup>		F /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3.71	1.013	3.34	1.056	3.48	.853	11.408*** a>b,c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3.21	.931	3.61	.864	3.60	.946	3.942* a<c,b
EBS 방송 수업	3.32	1.165	3.46	1.043	3.36	3.24	.962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3.44	1.319	3.21	1.010	3.32	1.180	.428 -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3.17	1.150	3.50	1.042	3.41	1.161	.569 -

note. 최소값:1, 최대값: 5

\*\*\*p<0.001; \*\*p<0.01; \*p<0.05

‘대안학교’와 ‘학교에 다니지 않음’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

## ② 거주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

〈표 9〉는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거주 지역에 따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각각의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거주지역별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의 만족도

수업방식	대도시 <sup>a</sup>		중소도시 <sup>b</sup>		농산어촌 <sup>c</sup>		F /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3.55	1.018	3.41	1.020	3.51	.869	1.561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3.39	.964	3.64	.876	3.40	.866	2.875 -
EBS 방송 수업	3.21	1.042	3.38	1.017	3.41	1.066	.916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3.33	1.304	3.20	1.077	3.67	.900	.971 -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3.50	.974	3.38	1.166	3.27	1.106	.198 -

note. 최소값:1, 최대값: 5

\*\*\*p<0.001; \*\*p<0.01; \*p<0.05

### (3)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표 10〉은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28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가 257명(31.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77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11명 (33.7%)이다.
- ‘EBS 방송 수업 동영상’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21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77명 (53.8%)이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에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8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9명(35.8%)이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7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1명(30.7%)이다.
- 모든 방식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이며, 실시간 화상 수업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두 번째로 높은 장점이고, 다른 방식은 모두 ‘반복 시청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표 10〉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항목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잘 된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n=826)	428명 (51.8%)	257명 (31.1%)	65명 (7.9%)	37명 (4.5%)	39명 (4.7%)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329)	111명 (33.7%)	10명 (3.0%)	27명 (8.2%)	177명 (53.8%)	4명 (1.2%)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242)	121명 (50.0%)	8명 (3.3%)	25명 (10.3%)	84명 (34.7%)	4명 (1.6%)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109)	58명 (53.2%)	2명 (1.8%)	6명 (5.5%)	39명 (35.8%)	4명 (3.6%)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n=101)	57명 (56.4%)	5명 (5.0%)	4명 (4.0%)	31명 (30.7%)	4명 (3.9%)

### ①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방식의 장점

〈표 11〉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67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4명(23.3%)이다. 기타의견으로 ‘장점이 없다’, ‘집중이 잘 된다’,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각각 4명(1.3%)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3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7명(36.2%)이다.
- ‘EBS 방송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16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0명(26.3%)이고,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가 9명(23.7%)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에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3명(36.1%)으로 나타났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9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명(27.9%)으로 나타났다.

〈표 11〉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항목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잘 된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타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 (n=318)	167명 (52.5%)	74명 (23.3%)	45명 (14.2%)	14명 (4.4%)	18명 (5.6%)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47)	23명 (48.9%)	3명 (6.4%)	4명 (8.5%)	17명 (36.2%)	0명 (0.0%)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38)	16명 (42.1%)	3명 (7.9%)	9명 (23.7%)	10명 (26.3%)	0명 (0.0%)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36)	18명 (50.0%)	1명 (2.8%)	3명 (8.3%)	13명 (36.1%)	1명 (2.8%)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수업 (n=18)	9명 (50.0%)	1명 (5.6%)	2명 (11.1%)	5명 (27.8%)	1명 (5.6%)

## ② 중학생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표 12〉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장점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6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가 116명(35.3%)이다. 기타의견으로 ‘장점이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5명(1.5%)이 있었으며 ‘집중이 잘 된다’와 ‘학교에 간 것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한 응답자가 각각 4명(1.5%)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12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57명(30.6%)으로 나타났다.
- ‘EBS 방송 수업 동영상’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2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24명(35.3%)이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의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3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1명(43.8%)으로 나타났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의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4명(33.3%)으로 나타났다.

〈표 12〉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항목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잘 된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n=329)	163명 (49.5%)	116명 (35.3%)	15명 (4.6%)	18명 (5.5%)	17명 (5.2%)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186)	57명 (30.6%)	3명 (1.6%)	13명 (7.0%)	112명 (60.2%)	1명 (0.5%)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68)	32명 (47.1%)	3명 (4.4%)	7명 (10.3%)	24명 (35.3%)	2명 (2.9%)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48)	23명 (47.9%)	0명 (0.0%)	1명 (2.1%)	21명 (43.8%)	3명 (6.3%)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n=42)	24명 (57.1%)	2명 (4.8%)	0명 (0.0%)	14명 (33.3%)	2명 (4.8%)

### ③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표 13〉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7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가 66명(37.3%)이다. 기타의견으로 ‘장점이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2명(1.1%)이 있었으며 ‘등교할 때의 생활패턴 유지가 가능하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라고 적은 응답자가 각각 1명(0.6%)이다.
- ‘EBS 방송 수업’의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74명(5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50명(36.8%)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31명(32.3%)으로 나타났다.
-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에 대한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4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12명(29.3%)이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수업방식의 장점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17명(6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명(20%)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방식의 장점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방식 이외의 네 가지 방식은 모두 비슷한 장점이 있다고 나타났다.

〈표 13〉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

항목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잘 된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타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n=177)	97명 (54.8%)	66명 (37.3%)	5명 (2.8%)	5명 (2.8%)	4명 (2.3%)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136)	73명 (53.7%)	2명 (1.5%)	9명 (6.6%)	50명 (36.8%)	2명 (1.5%)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96)	31명 (32.3%)	4명 (4.2%)	10명 (10.4%)	48명 (50.0%)	3명 (3.1%)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n=41)	24명 (58.5%)	2명 (4.9%)	2명 (4.9%)	12명 (29.3%)	1명 (2.4%)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25)	17명 (68.0%)	1명 (4.0%)	2명 (8.0%)	5명 (20.0%)	0명 (0.0%)

(4)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표 14〉는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의 단점으로 ‘인터넷 접속이 잘 끊기는 등 어려움이 발생해서’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4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327명(39.6%)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단점 없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15명(1.8%)이고, 반면 ‘보기의 내용이 모두 단점이다’라고 적은 응답자도 9명(1.1%)이다. 그 외의 의견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없다’와 ‘눈이 피로하다’가 각각 5명(0.6%)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62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87명(26.4%)이다.
- ‘EBS 방송 수업 동영상’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00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6명(31.4%)이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50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3명(21.1%)이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35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8명(27.7%)이다.
-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으로 '수업 집중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선생님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 수업'방식 이외의 네 가지 방식은 동일하게 '질문하기 어렵다'가 단점이라고 응답했다.

〈표 14〉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항목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렵다	기타의견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n=826)	327명 (39.6%)	69명 (8.4%)	24명 (2.9%)	344명 (41.6%)	19명 (2.3%)	43명 (5.2%)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329)	162명 (49.2%)	87명 (26.4%)	19명 (5.8%)	44명 (13.4%)	3명 (0.9%)	14명 (4.3%)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242)	100명 (41.3%)	76명 (31.4%)	29명 (12.0%)	29명 (12.0%)	3명 (1.2%)	5명 (2.1%)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109)	50명 (45.9%)	23명 (21.1%)	12명 (11.0%)	14명 (12.8%)	0명 (0.0%)	10명 (9.2%)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수업 (n=101)	35명 (34.7%)	28명 (27.7%)	5명 (5.0%)	22명 (21.8%)	3명 (3.0%)	8명 (7.9%)

### ①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표 15〉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방식의 단점으로 '인터넷 접속이 잘 끊겨서 어려움이 발생해서'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65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01명(31.8%)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단점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7명(2.2%)이고, 반면 '보기의 내용이 모두 단점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3명(0.9%)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21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와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각각 12명(25.5%), 11명(23.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EBS 방송 수업 동영상’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3명(34.2%),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이 11명(23.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7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이 7명(19.4%)과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6명(16.7%)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수업’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이 4명(22.2%)이다.
- 초등학생 응답을 전체 응답과 비교했을 때 모든 수업방식에서 ‘인터넷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15〉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항목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렵다	기타의견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 (n=318)	101명 (31.8%)	19명 (6.0%)	10명 (3.1%)	165명 (51.9%)	8명 (2.5%)	15명 (4.7%)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47)	21명 (44.7%)	12명 (25.5%)	1명 (2.1%)	11명 (23.4%)	1명 (2.1%)	1명 (2.1%)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38)	13명 (34.2%)	9명 (23.7%)	2명 (5.3%)	12명 (31.6%)	2명 (5.3%)	0명 (0.0%)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36)	17명 (47.2%)	6명 (16.7%)	1명 (2.8%)	7명 (19.4%)	0명 (0.0%)	5명 (13.9%)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n=18)	10명 (55.6%)	2명 (11.1%)	0명 (0.0%)	4명 (22.2%)	0명 (0.0%)	2명 (11.2%)

## ② 중학생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표 16〉은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와 ‘인터넷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이 각각 138명(41.9%)과 129명(39.2%)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단점 없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4명(1.2%)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없다’와 ‘눈이 아프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각각 3명(0.9%)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92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50명(26.9%)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단점 없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6명(3.2%)이다.
- ‘EBS 방송 수업 동영상’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32명(47.1%)이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18명(26.5%)으로 나타났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을 시청’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26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9명(8.8%)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수업’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16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11명(26.2%)이다.
- 모든 수업방식에서 ‘수업 집중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이며, ‘실시간 화상 수업’ 외의 네 가지 방식은 모두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가 동일하게 두 번째 단점으로 나타났다.

〈표 16〉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항목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렵다	기타의견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n=329)	138명 (41.9%)	29명 (8.8%)	9명 (2.7%)	129명 (39.2%)	9명 (2.7%)	15명 (4.6%)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186)	92명 (49.5%)	50명 (26.9%)	11명 (5.9%)	22명 (11.8%)	2명 (1.1%)	9명 (4.8%)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68)	32명 (47.1%)	18명 (26.5%)	7명 (10.3%)	11명 (16.2%)	0명 (0.0%)	0명 (0.0%)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48)	26명 (54.2%)	9명 (18.8%)	6명 (12.5%)	4명 (8.3%)	0명 (0.0%)	3명 (6.3%)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n=42)	16명 (38.1%)	11명 (26.2%)	2명 (4.8%)	8명 (19.0%)	2명 (4.8%)	3명 (7.1%)

### ③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표 17〉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1순위로 응답한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선생님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88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이 각각 48명(27.1%)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단점 없다’라고 적은 응답자와 ‘보기 모두 해당된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각각 4명(2.3%)이다.
-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대한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49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25명(26.0%)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단점 없다’라고 적은 응답자가 3명(3.1%)이다.
- ‘EBS 방송 수업 동영상’의 단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55명(40.4%),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49명(36.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을 시청’의 단점으로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가 8명(32.0%),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7명(28.2%)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5명(20.0%)이다.
-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의 단점으로 ‘질문하기가 어렵다’가 15명(3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어려움’이 10명(24.4%), ‘수업 집중이 어렵다’가 9명(22.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수업 집중의 어려움’은 모든 수업 방식의 단점으로 나타났고, ‘실시간 화상 수업’을 제외한 네 가지 수업방식에서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7〉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

항목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렵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렵다	기타의견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 (n=177)	88명 (49.7%)	21명 (11.9%)	5명 (2.8%)	48명 (27.1%)	2명 (1.1%)	13명 (7.3%)
EBS 방송 수업 동영상 (n=136)	55명 (40.4%)	49명 (36.0%)	20명 (14.7%)	6명 (4.4%)	1명 (0.7%)	5명 (3.7%)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96)	49명 (51.0%)	25명 (26.0%)	7명 (7.3%)	11명 (11.5%)	0명 (0.0%)	4명 (4.2%)
과제를 해서 온라인 제출 (n=41)	9명 (22.0%)	15명 (36.6%)	3명 (7.3%)	10명 (24.4%)	1명 (2.4%)	3명 (7.3%)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n=25)	7명 (28.0%)	8명 (32.0%)	5명 (20.0%)	3명 (12.0%)	0명 (0.0%)	2명 (8.0%)

## 2) 온라인 수업의 내용

### (1) 온라인 수업의 양, 과제, 집중도

〈표 18〉은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과제의 양, 집중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온라인 수업일 때 배우는 내용이 더 많은지 묻는 항목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10명(44.2%)으로 가장 많고,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00명(24.9%)이다.
- 대면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의 과제 양이 더 많은지 묻는 항목에 ‘그런 편이다’가 578명(36.0%)이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64명(28.9%)이다
-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지 묻는 항목에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665명(41.4%)이고, ‘매우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543명(33.8%)이다.
-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의 내용은 대면수업에 비해 내용이 더 많지는 않으며, 과제 양은 많은 편이고, 수업 집중의 어려움에 대해서 75%의 참여자가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대면 수업 대비 온라인 수업의 양, 과제, 집중도의 차이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수업 내용이 더 많다	343명(21.3%)	710명(44.2%)	400명(24.9%)	154명(9.6%)
과제 양이 많다	200명(12.4%)	464명(28.9%)	578명(36.0%)	365명(22.7%)
집중하기 어렵다	149명(9.3%)	250명(15.6%)	665명(41.4%)	543명(33.8%)

### ① 학교급별 대면 수업 대비 온라인 수업내용의 양, 과제의 양, 집중도의 차이

〈표 19〉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과제의 양, 집중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온라인 수업일 때 배우는 내용이 더 많은지 묻는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초등학생(62.1%), 중학생(69.1%) 고등학생(63.8%)로 나타났다.
- 대면 수업에 비해 과제 양이 더 많은지 묻는 항목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53.0%), 중학생(61.3%) 고등학생

(60.3%)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에 더 집중하기 어려운지 묻는 항목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68.5%), 중학생(78.0%) 고등학생(77.5%)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교급별 대면 수업 대비 온라인 수업의 양, 과제, 집중도의 차이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수업 내용이 더 많다	초등학교	70명(15.3%)	214명(46.8%)	127명(27.8%)	46명(10.1%)
	중학교	166명(24.7%)	299명(44.4%)	149명(22.1%)	59명(8.8%)
	고등학교	107명(22.5%)	196명(41.3%)	124명(26.1%)	48명(10.1%)
과제 양이 더 많다	초등학교	64명(14.0%)	151명(33.0%)	153명(33.5%)	89명(19.5%)
	중학교	82명(12.2%)	178명(26.4%)	248명(36.8%)	165명(24.5%)
	고등학교	54명(11.4%)	135명(28.4%)	176명(37.1%)	110명(23.2%)
집중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56명(12.3%)	88명(19.3%)	186명(40.7%)	127명(27.8%)
	중학교	56명(8.3%)	92명(13.7%)	270명(40.1%)	255명(37.9%)
	고등학교	37명(7.8%)	70명(14.7%)	208명(43.8%)	160명(33.7%)

## ② 거주지역별 대면 수업 대비 온라인 수업의 양, 과제, 집중도의 차이

〈표 20〉은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과제의 양, 집중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대면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 더 많은지 묻는 항목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대도시(43.8%), 중소도시(44.9%) 농산어촌(43.1%)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18.6%)에 비해 중소도시(23.1%)와 농산어촌(29.9%)에서 높게 나타났다.
- 대면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의 과제 양이 더 많은지 묻는 항목에는 거주지역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다.

- 대면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지 묻는 항목에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대도시(40.6%), 중소도시(42.8%) 농산어촌(39.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에 응답비율도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전체적으로 대면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 내용의 양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과제 양과 수업 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20〉 거주지역별 대면 수업 대비 온라인 수업의 양, 과제, 집중도의 차이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수업 내용이 더 많다	대도시	155명(18.6%)	366명(43.8%)	226명(27.1%)	88명(10.5%)
	중소도시	147명(23.1%)	285명(44.9%)	144명(22.7%)	59명(9.3%)
	농산어촌	41명(29.9%)	59명(43.1%)	30명(21.9%)	7명(5.1%)
과제 양이 더 많다	대도시	112명(13.4%)	273명(32.7%)	285명(34.1%)	165명(19.8%)
	중소도시	68명(10.7%)	146명(23.0%)	246명(38.7%)	175명(27.6%)
	농산어촌	20명(14.6%)	45명(32.8%)	47명(34.3%)	25명(18.2%)
집중하기 어렵다	대도시	84명(10.1%)	136명(16.3%)	339명(40.6%)	276명(33.1%)
	중소도시	54명(8.5%)	95명(15.0%)	272명(42.8%)	214명(33.7%)
	농산어촌	11명(8.0%)	19명(13.9%)	54명(39.4%)	53명(38.7%)

### 3) 온라인 수업을 위한 환경

#### (1)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 ① 학교급에 따른 보유 현황

〈표 21〉은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만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503명(74.7%), 고등학생이 348명(73.3%)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312명(68.3%)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기기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141명(3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120명(25.3%), 중학생 166명(24.7%)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고등학생이 7명(1.5%), 중학생이 4명(0.6%), 초등학생이 4명(0.9%)이다.

〈표 21〉 학교급 별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항목	있으며 나만 사용함	있지만 가족들과 같이 사용함	없음
초등학교 (n=457)	312명(68.3%)	141명(30.9%)	4명(0.9%)
중학교 (n=673)	503명(74.7%)	166명(24.7%)	4명(0.6%)
고등학교 (n=475)	348명(73.3%)	120명(25.3%)	7명(1.5%)

## ② 거주지역에 따른 보유 현황

〈표 22〉는 거주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만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02명(74.5%)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슷한 비율로 대도시 거주자가 609명(72.9%), 중소도시 거주자가 453명(71.3%)이다.
- ‘디지털 기기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소도시 거주자가 177명(27.9%), 대도시 거주자가 219명(26.2%)이며, 농산어촌 거주자도 32명(23.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농산어촌 거주 학생이 3명(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대도시 거주자가 7명(0.8%), 중소도시 거주자가 5명(0.8%)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2〉 거주지역별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항목	있으며 나만 사용함	있지만 가족들과 같이 사용함	없음
대도시 (n=835)	609명(72.9%)	219명(26.2%)	7명(0.8%)
중소도시 (n=635)	453명(71.3%)	177명(27.9%)	5명(0.8%)
농산어촌 (n=137)	102명(74.5%)	32명(23.4%)	3명(2.2%)

(2) 온라인 수업 집중에 영향을 주는 환경

①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 집중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환경 차이

〈표 23〉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동의 환경이 학교 급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응답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기기가 낡아서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참여자는 17%~19% 정도로 학교급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은 26%~36%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없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은 16.7%, 중학생은 19.9%, 고등학생은 19.3%이다. 학교급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조용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낡은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는 약 20% 정도이며,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는 약 30%이고, ‘조용한 공간이 없어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는 약 18%로 나타났다.

〈표 23〉 학교급별 온라인 수업을 위한 아동의 환경 차이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런 편이다 (3)	매우 그렇다 (4)	평균	표준 편차	F/Scheffe
넓은 기기의 사용	초등학교 <sup>a</sup>	252명 (55.1%)	116명 (25.4%)	73명 (16.0%)	16명 (3.5%)	1.68	.866	.251 -
	중학교 <sup>b</sup>	355명 (52.7%)	195명 (29.0%)	93명 (13.8%)	30명 (4.5%)	1.70	.869	
	고등학교 <sup>c</sup>	230명 (48.4%)	163명 (34.3%)	68명 (14.3%)	14명 (2.9%)	1.72	.817	
인터넷 속도가 느림	초등학교 <sup>a</sup>	169명 (37.0%)	124명 (27.1%)	132명 (28.9%)	32명 (7.0%)	2.06	.968	2.644 -
	중학교 <sup>b</sup>	259명 (38.5%)	213명 (31.6%)	159명 (23.6%)	42명 (6.2%)	1.98	.934	
	고등학교 <sup>c</sup>	183명 (38.5%)	169명 (35.6%)	101명 (21.3%)	22명 (4.6%)	1.92	.882	
조용한 공간이 없음	초등학교 <sup>a</sup>	199명 (43.5%)	182명 (39.8%)	51명 (11.2%)	25명 (5.5%)	1.79	.849	5.506** a<c
	중학교 <sup>b</sup>	242명 (36.0%)	297명 (44.1%)	93명 (13.8%)	41명 (6.1%)	1.90	.856	
	고등학교 <sup>c</sup>	132명 (27.8%)	251명 (52.8%)	69명 (14.5%)	23명 (4.8%)	1.96	.836	

note. 최소값:1, 최대값: 5

\*\*\*p<0.001; \*\*p<0.01; \*p<0.05

## ②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의 차이

〈표 24〉는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환경이 학교급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응답 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우리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활용할 줄 아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참여자는 초등학생은 6.3%, 중학생은 15.3%, 고등학생은 20.2%이다.

- 학교급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 기술로 인한 어려움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학교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 (줌, 클래스룸, E학습터, 클래스팅 등)이 잘 되어있는지 묻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참여자는 초등학생은 8.1%, 중학생은 9.2%, 고등학생은 16.4%이다.
- 학교급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학교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교급별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의 환경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런 편이다 (3)	매우 그렇다 (4)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심	초등학교 <sup>a</sup>	7명 (1.5%)	22명 (4.8%)	176명 (38.5%)	252명 (55.1%)	3.47	.662	80.659*** c(b<a
	중학교 <sup>b</sup>	23명 (3.4%)	80명 (11.9%)	401명 (59.6%)	169명 (25.1%)	3.06	.709	
	고등학교 <sup>c</sup>	20명 (4.2%)	76명 (16.0%)	301명 (63.4%)	명78 (16.4%)	2.92	.698	
학교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잘 준비됨	초등학교 <sup>a</sup>	9명 (2.0%)	28명 (6.1%)	188명 (41.1%)	232명 (50.8%)	3.41	.695	39.185*** c(b<a
	중학교 <sup>b</sup>	19명 (2.8%)	43명 (6.4%)	393명 (58.4%)	218명 (32.4%)	3.20	.678	
	고등학교 <sup>c</sup>	19명 (4.0%)	59명 (12.4%)	297명 (62.5%)	100명 (21.1%)	3.01	.704	

note. 최소값:1, 최대값: 5

\*\*\*p<0.001; \*\*p<0.01; \*p<0.05

### ③ 거주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집중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환경 차이

〈표 25〉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동의 환경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응답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기기가 낡아서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가 20.1%, 중소도시 거주자가 15.7%, 농산어촌 거주자가 20.4%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은 대도시 거주자가 36.4%, 중소도시 거주자가 24.3%, 농산어촌 거주자가 21.9%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을 비교하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인터넷 속도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없는지 묻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은 대도시 거주자가 18.6%, 중소도시 거주자가 18.9%, 농산어촌 거주자가 20.4%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5〉 거주지역별 온라인 수업을 위한 아동의 환경 차이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런 편이다 (3)	매우 그렇다 (4)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낡은 기기의 사용	대도시 <sup>a</sup>	429명 (51.3%)	238명 (28.4%)	132명 (15.8%)	36명 (4.3%)	1.73	.878	1.268 -
	중소도시 <sup>b</sup>	337명 (53.0%)	199명 (31.4%)	79명 (12.5%)	20명 (3.2%)	1.66	.815	
	농산어촌 <sup>c</sup>	72명 (52.6%)	37명 (27.0%)	24명 (17.5%)	4명 (2.9%)	1.71	.859	
인터넷 속도가 느림	대도시 <sup>a</sup>	281명 (33.6%)	249명 (29.7%)	237명 (28.3%)	68명 (8.1%)	2.11	.967	16.234*** b,c<a
	중소도시 <sup>b</sup>	275명 (43.2%)	206명 (32.5%)	132명 (20.8%)	22명 (3.5%)	1.85	.870	
	농산어촌 <sup>c</sup>	56명 (40.9%)	51명 (37.2%)	24명 (17.5%)	6명 (4.4%)	1.85	.862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런 편이다 (3)	매우 그렇다 (4)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조용한 공간이 없음	대도시 <sup>a</sup>	315명 (37.6%)	365명 (43.6%)	116명 (13.9%)	39명 (4.7%)	1.85	.826	1.355 -
	중소도시 <sup>b</sup>	212명 (33.3%)	303명 (47.8%)	77명 (12.1%)	43명 (6.8%)	1.92	.849	
	농산어촌 <sup>c</sup>	47명 (34.3%)	62명 (45.3%)	21명 (15.3%)	7명 (5.1%)	1.91	.836	

note. 최소값:1, 최대값: 5

\*\*\*p<0.001; \*\*p<0.01; \*p<0.05

#### ④ 거주지역별 온라인 수업 집중에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의 차이

〈표 26〉은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환경이 학교 급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응답 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우리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활용한 줄 아시는지 묻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참여자는 대도시 거주자가 13.4%, 중소도시 거주자가 14.2%, 농산어촌 거주자가 19.0%로 나타났다.
- 지역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 기술로 인한 어려움은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학교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 (줌, 클래스룸, E학습터, 클래스팅 등)이 잘 되어있는지 묻는 문항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참여자는 대도시 거주자가 8.6%, 중소도시 거주자가 14.3%, 농산어촌 거주자가 10.2%로 나타났다.
- 지역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학교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역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거주지역별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환경 차이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런 편이다 (3)	매우 그렇다 (4)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심	대도시 <sup>a</sup>	25명 (3.0%)	87명 (10.4%)	407명 (48.7%)	316명 (37.9%)	3.21	.747	10.614*** c,b(a)
	중소도시 <sup>b</sup>	18명 (2.8%)	72명 (11.4%)	393명 (61.8%)	152명 (24.0%)	3.07	.680	
	농산어촌 <sup>c</sup>	7명 (5.1%)	19명 (13.9%)	80명 (58.4%)	31명 (22.6%)	2.99	.757	
학교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잘 준비됨	대도시 <sup>a</sup>	20명 (2.4%)	52명 (6.2%)	428명 (51.3%)	334명 (40.0%)	3.29	.689	13.599*** b,c(a)
	중소도시 <sup>b</sup>	23명 (3.6%)	68명 (10.7%)	365명 (57.6%)	179명 (28.1%)	3.10	.724	
	농산어촌 <sup>c</sup>	4명 (2.9%)	10명 (7.3%)	85명 (62.0%)	38명 (27.7%)	3.15	.670	

note. 최소값:1, 최대값: 5

\*\*\*p<0.001; \*\*p<0.01; \*p<0.05

### (3)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표 27〉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관심 있게 챙기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54.3%이며, ‘관심이 없는 편이다’가 24.1%, ‘매우 관심 있게 챙긴다’가 17.8%, ‘전혀 관심이 없다’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보호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 정도

항목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 없는 편이다	관심있게 챙기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게 챙긴다
	61명(3.8%)	387명(24.1%)	873명(54.3%)	286명(17.8%)

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보호자의 관심 정도

〈표 28〉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보호자가 ‘관심 있게 챙기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3%와 57.0%로 높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매우 관심있게 챙긴다’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이며, ‘관심이 없는 편이다’가 17.8%로 여학생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세 학교급 모두 보호자가 ‘관심 있게 챙기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는 그 다음으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매우 관심 있게 챙긴다’ 순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초등학생은 ‘매우 관심있게 챙긴다’의 비율이 상급학교에 비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세 거주지역 모두 보호자가 ‘관심 있게 챙기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거주 학생은 그 다음으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관심 있게 챙긴다’보다 높은 것과 달리,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보호자가 ‘매우 관심 있게 챙긴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따른 보호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 정도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 없는 편이다	관심있게 챙기는 편이다	매우 관심있게 챙긴다
성별	여성	44명(3.9%)	299명(26.8%)	594명(53.3%)	178명(16.0%)
	남성	17명(3.5%)	87명(17.8%)	278명(57.0%)	106명(21.7%)
학교급	초등학교	10명(2.2%)	56명(12.3%)	275명(60.2%)	116명(25.4%)
	중학교	25명(3.7%)	181명(26.9%)	366명(54.4%)	101명(15.0%)
	고등학교	26명(5.5%)	150명(31.6%)	232명(48.8%)	67명(14.1%)
거주 지역	대도시	26명(3.1%)	158명(18.9%)	471명(56.4%)	180명(21.6%)
	중소도시	26명(4.1%)	183명(28.8%)	339명(53.4%)	87명(13.7%)
	농산어촌	9명(6.6%)	46명(33.6%)	63명(46.0%)	19명(13.9%)

#### (4) 온라인 수업 중 어려움 해결 방법

##### ① 학교급에 따른 온라인 수업 중 어려움 해결 방법

〈표 29〉는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 질문한다’(28.7%),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한다’(26.3%),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의 경우, ‘친구에게 물어본다’(29.7%)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25.0%), ‘선생님께 질문한다’(16.0%)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에게 물어본다’(28.6%)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선생님께 질문한다’(22.7%)와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22.5%)’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9〉 학교급별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항목	1	2	3	4	5	6	7	8
초등학교	131명 (28.7%)	27명 (5.9%)	120명 (26.3%)	15명 (3.3%)	93명 (20.4%)	16명 (3.5%)	50명 (10.9%)	5명 (1.1%)
중학교	108명 (16.0%)	68명 (10.1%)	29명 (4.3%)	25명 (3.7%)	168명 (25.0%)	63명 (9.4%)	200명 (29.7%)	12명 (1.8%)
고등학교	108명 (22.7%)	53명 (11.2%)	8명 (1.7%)	14명 (2.9%)	107명 (22.5%)	48명 (10.1%)	136명 (28.6%)	1명 (0.2%)

1) 담당교과/담임선생님께 질문, 2) 교육관련 기관(학원/공부방)도움, 3) 보호자로부터 도움, 4) 형제자매로부터 도움, 5)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책이나 인터넷검색), 6)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7) 친구에게 물어봄, 8) 그런 적 없음

##### ② 거주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중 어려움 해결 방법

〈표 30〉은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 대도시의 경우, ‘담임선생님께 질문한다’(24.8%),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20.8%)이다.
- 중소도시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24.7%), ‘선생님께 질문한다’(18.1%)이다.
- 농산어촌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27.0%), ‘선생님께 질문한다’(18.2%)로 나타났다.

〈표 30〉 거주지역별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해결 방법

항목	1	2	3	4	5	6	7	8
대도시	207명 (24.8%)	83명 (9.9%)	112명 (13.4%)	31명 (3.7%)	174명 (20.8%)	61명 (7.3%)	156명 (18.7%)	11명 (1.3%)
중소도시	115명 (18.1%)	54명 (8.5%)	38명 (6.0%)	20명 (3.1%)	157명 (24.7%)	49명 (7.7%)	199명 (31.3%)	3명 (0.5%)
농산어촌	25명 (18.2%)	11명 (8.0%)	7명 (5.1%)	4명 (2.9%)	37명 (27.0%)	18명 (13.1%)	31명 (22.6%)	4명 (2.9%)

1) 담당교과/담임선생님께 질문, 2) 교육관련 기관(학원/공부방)도움, 3) 보호자로부터 도움, 4) 형제자매로부터 도움, 5)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책이나 인터넷검색), 6)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7) 친구에게 물어봄, 8) 그런 적 없음

#### 4) 코로나 시기 장애 학생 및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

##### (1)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1〉은 ‘나의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나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 전체 응답자의 응답 중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45.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20.5%), ‘관심 없다’(16.7%)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의 응답을 제외하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60.3%이다.

〈표 31〉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
전체	22명 (1.4%)	59명 (3.7%)	330명 (20.5%)	201명 (12.5%)	269명 (16.7%)	726명 (45.2%)

① 성별에 따른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2〉는 성별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남녀 응답자 모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 ‘관심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성별에 따른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
여성	13명 (1.2%)	38명 (3.4%)	227명 (20.4%)	130명 (11.7%)	172명 (15.4%)	535명 (48.0%)
남성	9명 (1.8%)	21명 (4.3%)	103명 (21.1%)	69명 (14.1%)	96명 (19.7%)	190명 (38.9%)

② 학교급에 따른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3〉은 학교급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 모든 학교급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학교급 별 차이가 있다.
-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23.4%)와 ‘그런 편이다’(21.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중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 급에 비해 ‘장애 학생이 없다’(55.6%)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그런 편이다’(16.8%), ‘관심없다’(15.0%)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급에 비해 ‘관심없다’(25.9%)에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 학교급별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
초등학교	8명 (1.8%)	18명 (3.9%)	99명 (21.7%)	107명 (23.4%)	45명 (9.8%)	180명 (39.4%)
중학교	8명 (1.2%)	20명 (3.0%)	113명 (16.8%)	57명 (8.5%)	101명 (15.0%)	374명 (55.6%)
고등학교	6명 (1.3%)	21명 (4.4%)	117명 (24.6%)	37명 (7.8%)	123명 (25.9%)	171명 (36.0%)

### ③ 거주지역에 따른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4〉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 모든 거주지역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20.7%)와 ‘매우 차별 없이 교육 받는다’(15.2%), ‘관심 없다’(14.1%)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관심 없다’(20.0%)와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7.6%) 순으로 나타났다.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다른 거주지역에 비해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32.8%)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 없다’(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거주지역별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없다
대도시	13명 (1.6%)	34명 (4.1%)	173명 (20.7%)	127명 (15.2%)	118명 (14.1%)	370명 (44.3%)
중소도시	7명 (1.1%)	23명 (3.6%)	112명 (17.6%)	61명 (9.6%)	127명 (20.0%)	305명 (48.0%)
농산어촌	2명 (1.5%)	2명 (1.5%)	45명 (32.8%)	13명 (9.5%)	24명 (17.5%)	51명 (37.2%)

(2)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5〉는 ‘나의 학교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은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나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전체 응답자의 응답 중 ‘다문화 배경이 있는 학생이 없다’(48.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6.2%)와 ‘매우 차별 없이 교육받는다’(16.2%)의 응답비율이 같고, ‘관심 없다’(14.9%)의 응답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표 35〉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다문화 배경 학생이 없다
전체	30명 (1.9%)	40명 (2.5%)	261명 (16.2%)	261명 (16.2%)	239명 (14.9%)	776명 (48.3%)

① 성별에 따른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6〉은 성별에 따른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남녀 응답자 모두 ‘다문화 배경이 있는 학생이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여성 응답자의 경우, 그 다음으로 ‘매우 차별 없이 교육 받는다’(17.4%)와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6.1%)의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남성 응답자의 경우,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17.4%)와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6.6%)에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6〉 성별에 따른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다문화 배경 학생이 없다
여성	17명 (1.5%)	28명 (2.5%)	179명 (16.1%)	194명 (17.4%)	153명 (13.7%)	544명 (48.8%)
남성	13명 (2.7%)	12명 (2.5%)	81명 (16.6%)	66명 (13.5%)	85명 (17.4%)	231명 (47.3%)

## ② 학교급에 따른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7〉은 학교급에 따른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모든 학교 급의 응답자에서 ‘다문화 배경이 있는 학생이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나, 그 다음 응답 비율 순위는 학교급별 차이가 있다.
- 초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매우 차별 없이 교육받는다’(25.4%)의 응답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중학생 응답자의 경우,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5.5%), ‘관심 없다’(15.2%)와 ‘매우 차별 없이 교육받는다’(13.5%)에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20.8%)와 ‘관심 없다’(20.6%)에 응답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7〉 학교급별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다문화 배경 학생이 없다
초등학교	13명 (2.8%)	9명 (2.0%)	58명 (12.7%)	116명 (25.4%)	38명 (8.3%)	223명 (48.8%)
중학교	10명 (1.5%)	13명 (1.9%)	104명 (15.5%)	91명 (13.5%)	102명 (15.2%)	353명 (52.5%)
고등학교	7명 (1.5%)	18명 (3.8%)	99명 (20.8%)	54명 (11.4%)	98명 (20.6%)	199명 (41.9%)

### ③ 거주지역에 따른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현황

〈표 38〉은 거주지역에 따른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모든 거주지역의 응답자에서 ‘다문화 배경이 있는 학생이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나, 농산어촌 거주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 대도시 거주 응답자의 경우, ‘매우 차별 없이 교육받는다’(17.2%), ‘차별 없이 교육받는다’(15.3%)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도시 응답자의 경우, ‘관심 없다’(17.6%)와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산어촌 거주자의 경우, ‘매우 차별없이 교육받는 편이다’(26.3%)가 타 거주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 없이 교육받는 편이다’(19.7%), ‘관심 없다’(1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거주지역별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관심 없다	다문화 배경 학생이 없다
대도시	12명 (1.4%)	23명 (2.8%)	128명 (15.3%)	144명 (17.2%)	108명 (12.9%)	420명 (50.3%)
중소도시	13명 (2.0%)	15명 (2.4%)	106명 (16.7%)	81명 (12.8%)	112명 (17.6%)	308명 (48.5%)
농산어촌	5명 (3.6%)	2명 (1.5%)	27명 (19.7%)	36명 (26.3%)	19명 (13.9%)	48명 (35.0%)

## 5) 코로나 시기에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방식

### (1) 아동이 원하는 코로나 시기의 수업 방식

〈표 39〉는 ‘코로나 시기의 학교 수업 방식 중 내가 가장 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마스크를 끼고 학교 교실에서 만나서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14.2%), ‘학교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13.6%), ‘EBS 방송 수업’(6.3%),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5.7%), ‘학교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혼자서 해서 제출하는 수업’(4.0%),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코로나 시기의 아동이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

항목	대면 수업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EBS 동영상 수업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
전체	840명 (52.3%)	228명 (14.2%)	219명 (13.6%)	102명 (6.3%)	92명 (5.7%)	65명 (4.0%)	61명 (3.8%)

### ① 학교급별 아동이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

〈표 40〉은 학교급에 따른 수업방식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모든 학교급에서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교(64.6%), 중학교(52.6%), 고등학교(40.2%)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호 비율은 낮아진다.
- 초등학생은 대면 수업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17.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수업방식의 선호 비율은 5% 이하이다.
- 중학생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16.6%), ‘학교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11.6%) 순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 응답자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을 시

청’(18.7%), ‘학교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13.3%), ‘EBS 방송 수업’(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학교급에 비해 ‘EBS 방송 수업’의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0〉 학교급별 아동이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

항목	대면 수업	선생님께서 촬영한 동영상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EBS 동영상 수업	선생님께서 지정한 영상물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
초등학교	295명 (64.6%)	27명 (5.9%)	78명 (17.1%)	13명 (2.8%)	22명 (4.8%)	8명 (1.8%)	14명 (3.1%)
중학교	354명 (52.6%)	112명 (16.6%)	78명 (11.6%)	33명 (4.9%)	32명 (4.8%)	37명 (5.5%)	27명 (4.0%)
고등학교	191명 (40.2%)	89명 (18.7%)	63명 (13.3%)	56명 (11.8%)	38명 (8.0%)	19명 (4.0%)	19명 (4.0%)

## ② 거주지역별 아동이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

〈표 41〉은 학교급에 따른 수업방식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모든 거주 지역에서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어촌(61.3%), 대도시(53.8%), 중소도시(48.3%)의 순으로 선호 비율은 낮아진다.
- 대도시 거주자는 대면 수업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17.7%),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10.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20.2%)이 타 거주지역 응답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높은 비율로 선호도를 보였고 ‘학교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8.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농산어촌 거주자는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13.9%),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10.2%)으로 나타났다.

〈표 41〉 거주지역별 아동이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

항목	대면 수업	선생님께서 촬영한 동영상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EBS 동영상 수업	선생님께서 지정한 영상물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
대도시	449명 (53.8%)	86명 (10.3%)	148명 (17.7%)	59명 (7.1%)	40명 (4.8%)	29명 (3.5%)	24명 (2.9%)
중소도시	307명 (48.3%)	128명 (20.2%)	52명 (8.2%)	35명 (5.5%)	46명 (7.2%)	33명 (5.2%)	34명 (5.4%)
농산어촌	84명 (61.3%)	14명 (10.2%)	19명 (13.9%)	8명 (5.8%)	6명 (4.4%)	3명 (2.2%)	3명 (2.2%)

## (2)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의 이유

〈표 42〉는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대면 수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이유로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4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27.3%),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18.1%) 순으로 나타났다.
-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53.5%)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33.8%)로 나타났다.
- ‘실시간 화상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61.2%)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이 ‘선생님과 상호작용 할 수 있어서’(20.5%)로 나타났다.
- ‘EBS 동영상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43.1%)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38.2%)로 나타났다.

-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51.1%)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으로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39.1%)이다.
- '혼자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이유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41.5%)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으로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24.6%)와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24.6%)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이유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67.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2〉 코로나 시기의 수업 방식 중 가장 선호한 방식의 이유

항목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기타의견
대면 수업 (n=840)	45명 (5.4%)	152명 (18.1%)	405명 (48.2%)	2명 (0.2%)	229명 (27.3%)	7명 (0.8%)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수업 (n=228)	77명 (33.8%)	6명 (2.6%)	18명 (7.9%)	122명 (53.5%)	1명 (0.4%)	4명 (1.8%)
실시간 화상 수업 (n=219)	134명 (61.2%)	45명 (20.5%)	26명 (11.9%)	5명 (2.3%)	4명 (1.8%)	5명 (2.3%)
EBS 동영상 수업 (n=102)	39명 (38.2%)	4명 (3.9%)	13명 (12.7%)	44명 (43.1%)	0명 (0%)	2명 (2.0%)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시청 (n=92)	47명 (51.1%)	1명 (1.1%)	6명 (6.5%)	36명 (39.1%)	0명 (0%)	2명 (2.2%)
혼자 과제를 해서 제출 (n=65)	27명 (41.5%)	2명 (3.1%)	16명 (24.6%)	16명 (24.6%)	2명 (3.1%)	2명 (3.1%)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 (n=61)	41명 (67.2%)	0명 (0%)	7명 (11.5%)	1명 (1.6%)	3명 (4.9%)	9명 (14.8%)

## 6) 코로나 시기 학교 외 교육의 현황

### (1) 사교육 현황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빈도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 사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75명(2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340명(21.1%),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255명(15.8%), ‘4시간 이상’이 195명(12.1%), ‘1시간 미만’이 74명(4.6%) 순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271명(16.8%)이다.

<표 43>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

항목	안 함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271명 (16.8%)	74명 (4.6%)	340명 (21.1%)	475명 (29.5%)	255명 (15.8%)	195명 (12.1%)

###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의 빈도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의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여성(31.4%)이 남성(25.4%)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의 경우,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27명(27.8%)이고 중학교의 경우,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33명(3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안 함’이 140명(29.5%)이 가장 높은 비율 응답으로 나타났다.
- 대도시의 경우,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58명(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거주자의 경우, 각각 178명(28.0%), 39명(28.5%)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의 차이

항목		안 함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성별	여성	182명 (16.3%)	50명 (4.5%)	228명 (20.4%)	351명 (31.4%)	181명 (16.2%)	125명 (11.2%)
	남성	89명 (18.2%)	24명 (4.9%)	110명 (22.5%)	124명 (25.4%)	73명 (14.9%)	69명 (14.1%)
학교급	초등학교	41명 (9.0%)	28명 (6.1%)	105명 (23.0%)	127명 (27.8%)	78명 (17.1%)	78명 (17.1%)
	중학교	90명 (13.4%)	30명 (4.5%)	121명 (18.0%)	233명 (34.6%)	114명 (16.9%)	85명 (12.6%)
	고등학교	140명 (29.5%)	15명 (3.2%)	113명 (23.8%)	113명 (23.8%)	63명 (13.3%)	31명 (6.5%)
거주 지역	대도시	96명 (11.5%)	41명 (4.9%)	172명 (20.5%)	258명 (30.8%)	146명 (17.4%)	124명 (14.8%)
	중소도시	138명 (21.7%)	21명 (3.3%)	134명 (21.1%)	178명 (28.0%)	100명 (15.7%)	65명 (10.2%)
	농산어촌	37명 (27.0%)	12명 (8.8%)	34명 (24.8%)	39명 (28.5%)	9명 (6.6%)	6명 (4.4%)

(2) 사교육의 도움 정도

〈표 45〉는 사교육이 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가 506명(31.4%),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773명(48.0%),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가 42명(2.6%), ‘매우 도움이 안 된다’가 12명(0.7%),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가 277명(17.2%)으로 나타났다.

〈표 45〉 사교육의 학습 도움 정도

항목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안 된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전체	506명(31.4%)	773명(48.0%)	42명(2.6%)	12명(0.7%)	277명(17.2%)

①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도움 정도

〈표 46〉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교육이 학습에 도움 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남성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142명(29.0%),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244명(49.9%), 여성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364명(32.6%),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526명(47.1%)으로 응답했다.
- 초등학교의 경우,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242명(53.0%)으로 중학교(46.1%)와 고등학교(45.9%)에 비해 조금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 대도시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278명(33.2%)이고 중소도시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199명(31.3%)으로 응답하였는데, 농산어촌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29명(21.2%)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의 학습 도움 정도

	항목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안 된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성별	여성	364명(32.6%)	526명(47.1%)	30명(2.7%)	9명(0.8%)	188(16.8%)
	남성	142명(29.0%)	244명(49.9%)	11명(2.2%)	3명(0.6%)	89(18.2%)
학교급	초등학교	159명(34.8%)	242명(53.0%)	9명(2.0%)	3명(0.7%)	44(9.6%)
	중학교	247명(36.7%)	310명(46.1%)	14명(2.1%)	7명(1.0%)	95(14.1%)
	고등학교	99명(20.8%)	218명(45.9%)	19명(4.0%)	2명(0.4%)	137(28.8%)
거주 지역	대도시	278명(33.2%)	429명(51.3%)	23명(2.7%)	5명(0.6%)	102(12.2%)
	중소도시	199명(31.3%)	280명(44.0%)	15명(2.4%)	6명(0.9%)	136(21.4%)
	농산어촌	29명(21.2%)	64명(46.7%)	4명(2.9%)	1명(0.7%)	39(28.5%)

(3) 학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간의 변화

〈표 47〉은 학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간의 변화를 묻는 문항의 응답 결과이다.

- ‘늘었다’가 201명(12.5%), ‘이전과 비슷하다’가 1,043명(64.8%), ‘줄었다’가 69명(4.3%),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가 297명(18.4%)로 나타났다.

〈표 47〉 학교 온라인 교육의 영향에 따른 사교육 시간

항목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음
전체	201명(12.5%)	1043명(64.8%)	69명(4.3%)	297명(18.4%)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간 변화

〈표 48〉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간 변화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이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73명(16.0%)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은 86명(12.8%), 고등학생은 42명(8.8%)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차이를 보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거주자가 122명(14.6%)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거주자가 70명(11.0%), 농산어촌 거주자가 9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간의 변화 차이

	항목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음
성별	여성	133명(11.9%)	733명(65.6%)	45명(4.0%)	206명(18.4%)
	남성	67명(13.7%)	307명(62.8%)	24명(4.9%)	91명(18.6%)
학교급	초등학교	73명(16.0%)	314명(68.7%)	22명(4.8%)	48명(10.5%)
	중학교	86명(12.8%)	463명(68.8%)	24명(3.6%)	100명(14.9%)
	고등학교	42명(8.8%)	263명(55.4%)	22명(4.6%)	148명(31.2%)
거주 지역	대도시	122명(14.6%)	562명(67.1%)	46명(5.5%)	107명(12.8%)
	중소도시	70명(11.0%)	401명(63.1%)	16명(2.5%)	149명(23.4%)
	농산어촌	9명(6.6%)	80명(58.4%)	7명(5.1%)	41명(29.9%)

(4)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변화

〈표 49〉는 코로나 이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변화 정도를 묻는 문항의 빈도 분석 결과이다.

- ‘늘었다’가 437명(27.1%), ‘이전과 비슷하다’가 930명(57.8%), ‘줄었다’가 243명(15.1%)으로 나타났다.

〈표 49〉 코로나 이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변화 정도

항목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전체	437명(27.1%)	930명(57.8%)	243명(15.1%)

〈표 50〉은 코로나 이후 하루 평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437명 중에 몇 시간 정도 늘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한 참여자(n=430)의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 ‘1시간’이 114명(26.5%), ‘1시간 초과~4시간 미만’이 262명(60.9%), ‘4시간 이상’이 54명(12.6%)으로 나타났다.

〈표 50〉 코로나 이후 하루 평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증가 정도

항목	1시간	1시간 초과~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n=430	114명(26.5%)	262명(60.9%)	54명(12.6%)

###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변화

〈표 5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이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변화 정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147명(32.2%)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197명(29.3%), 고등학생이 91명(19.2%)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거주자가 245명(2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소도시가 169명(26.6%), 농산어촌 거주자가 23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이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변화

	항목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성별	여성	307명(27.5%)	643명(57.6%)	167명(15.0%)
	남성	129명(26.4%)	285명(58.3%)	75명(15.3%)
학교급	초등학교	147명(32.2%)	261명(57.1%)	49명(10.7%)
	중학교	197명(29.3%)	377명(56.0%)	99명(14.7%)
	고등학교	91명(19.2%)	290명(61.1%)	94명(19.8%)
거주지역	대도시	245명(29.3%)	480명(57.3%)	112명(13.4%)
	중소도시	169명(26.6%)	363명(57.1%)	104명(16.4%)
	농산어촌	23명(16.8%)	87명(63.5%)	27명(19.7%)

(5) 학습 외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

〈표 52〉는 코로나 이후 학습 외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의 변화 정도에 대한 응답의 빈도 분석 결과이다.

- ‘늘었다’가 691명(42.9%), ‘이전과 비슷하다’가 830명(51.6%), ‘줄었다’가 89명(5.5%)이다.

〈표 52〉 코로나 이후 학습 외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의 변화

항목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전체	691명(42.9%)	830명(51.6%)	89명(5.5%)

〈표 53〉은 코로나 이후 학습 외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참여자에게 시간 증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1시간 이하’가 178명(26.4%), ‘1시간 초과~4시간 미만’이 381명(56.4%), ‘4시간 이상’이 116명(17.2%)으로 나타났다.

〈표 53〉 코로나 이후 학습 외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 정도

항목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178명(26.4%)	381명(56.4%)	116명(17.2%)



###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변화

〈표 5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이후 학습 외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의 변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성별의 차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늘었다’가 44.2%로, 남성의 경우 (40.1%)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비율이고, ‘줄었다’에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4.6%이나 남성은 7.8%로 나타났다.
-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43.1%, 고등학생이 33.9% 순이다.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소도시 거주자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 거주자가 41.5%, 농산어촌이 39.4% 순이다.

〈표 5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변화

	항목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성별	여성	494명(44.2%)	572명(51.2%)	51명(4.6%)
	남성	196명(40.1%)	255명(52.1%)	38명(7.8%)
학교급	초등학교	197명(43.1%)	229명(50.1%)	31명(6.8%)
	중학교	330명(49.0%)	315명(46.8%)	28명(4.2%)
	고등학교	161명(33.9%)	284명(59.8%)	30명(6.3%)
거주지역	대도시	347명(41.5%)	445명(53.2%)	45명(5.4%)
	중소도시	290명(45.6%)	317명(49.8%)	29명(4.6%)
	농산어촌	54명(39.4%)	68명(49.6%)	15명(10.9%)

## 7) 아동이 원하는 교육

### (1) 교과 교육

〈표 55〉는 아동이 원하는 교과 수업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기초교과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0명(3.1%),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93명(12.0%),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182명(73.4%),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85명(11.5%)이다. 평균은 2.93, 표준편차는 .596으로 나타났다.

- 탐구교과에 대해서 '없애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7명(2.9%),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81명(11.2%),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194명(74.2%),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88명(11.7%)이다. 평균은 2.95, 표준편차는 .586으로 나타났다.
- 예체능교과에 대해서 '없애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4명(2.7%),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40명(8.7%),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823명(51.1%),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03명(37.5%)이다. 평균은 3.23, 표준편차는 .719로 나타났다.
- 생활교양교과에 대해서 '없애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24명(7.7%),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20명(19.9%),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61명(59.7%),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205명(12.7%)이다. 평균은 2.77, 표준편차는 .764로 나타났다.
- 평균 값을 비교해보면, 기초 교과 중 '예체능교과'를 더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아동이 원하는 교과 수업

항목	없애야 한다 (1)	줄여야 한다 (2)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3)	늘려야 한다 (4)	평균	표준편차
기초교과	50명 (3.1%)	193명 (12.0%)	1182명 (73.4%)	185명 (11.5%)	2.93	.596
탐구교과	47명 (2.9%)	181명 (11.2%)	1194명 (74.2%)	188명 (11.7%)	2.95	.586
예체능교과	44명 (2.7%)	140명 (8.7%)	823명 (51.1%)	603명 (37.5%)	3.23	.719
생활교양교과	124명 (7.7%)	320명 (19.9%)	961명 (59.7%)	205명 (12.7%)	2.77	.764

###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표 56〉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 교과 교육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성별, 학교 급,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22명(2.0%)	140명(12.5%)	836명(74.8%)	119명(10.7%)
	남성	27명(5.5%)	53명(10.8%)	343명(70.1%)	66명(13.5%)
학교 급	초등학교	18명(3.9%)	51명(11.2%)	331명(72.4%)	57명(12.5%)
	중학교	16명(2.4%)	81명(12.0%)	501명(74.4%)	75명(11.1%)
	고등학교	16명(3.4%)	60명(12.6%)	347명(73.1%)	52명(10.9%)
거주 지역	대도시	30명(3.6%)	98명(11.7%)	593명(70.8%)	116명(13.9%)
	중소도시	17명(2.7%)	73명(11.5%)	491명(77.2%)	55명(8.6%)
	농산어촌	3명(2.2%)	22명(16.1%)	98명(71.5%)	14명(10.2%)

### ②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탐구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표 57〉은 특성에 따른 사회 과학 탐구 교과 교육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줄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여성, 중학생이며, 거주지역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도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표 5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과학 탐구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26명(2.3%)	142명(12.7%)	844명(75.6%)	105명(9.4%)
	남성	20명(4.1%)	39명(8.0%)	347명(71.0%)	83명(17.0%)
학교 급	초등학교	17명(3.7%)	45명(9.8%)	325명(71.1%)	70명(15.3%)
	중학교	18명(2.7%)	95명(14.1%)	493명(73.3%)	67명(10.0%)
	고등학교	12명(2.5%)	41명(8.6%)	373명(78.5%)	49명 (10.3%)
거주 지역	대도시	25명(3.0%)	96명(11.5%)	593명(70.8%)	123명(14.7%)
	중소도시	18명(2.8%)	69명(10.8%)	493명(77.5%)	56명(8.8%)
	농산어촌	4명(2.9%)	16명(11.7%)	108명(78.8%)	9명(6.6%)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체능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표 58〉은 특성에 따른 예체능 교과 교육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초등학교의 경우 ‘늘려야 한다’(4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모든 항목에서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체능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25명(2.2%)	105명(9.4%)	583명(52.2%)	404명(36.2%)
	남성	18명(3.7%)	35명(7.2%)	238명(48.7%)	198명(40.5%)
학교 급	초등학교	9명(2.0%)	25명(5.5%)	197명(43.1%)	226명(49.5%)
	중학교	18명(2.7%)	72명(10.7%)	372명(55.3%)	211명(31.4%)
	고등학교	16명(3.4%)	43명(9.1%)	251명(52.8%)	165명(34.7%)
거주 지역	대도시	23명(2.7%)	72명(8.6%)	379명(45.3%)	363명(43.4%)
	중소도시	18명(2.8%)	60명(9.4%)	360명(56.6%)	198명(31.1%)
	농산어촌	3명(2.2%)	8명(5.8%)	84명(61.3%)	42명(30.7%)

#### ④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 교양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표 59〉는 특성에 따른 생활 교양 교과 교육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나타났다.

〈표 5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체능 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84명(7.5%)	226명(20.2%)	676명(60.5%)	131명(11.7%)
	남성	39명(8.0%)	94명(19.2%)	283명(57.9%)	73명(14.9%)
학교 급	초등학교	18명(3.9%)	55명(12.0%)	295명(64.6%)	89명(19.5%)
	중학교	56명(8.3%)	175명(26.0%)	385명(57.2%)	57명(8.5%)
	고등학교	48명(10.1%)	89명(18.7%)	281명(59.2%)	57명(12.0%)
거주 지역	대도시	67명(8.0%)	154명(18.4%)	491명(58.7%)	125명(14.9%)
	중소도시	49명(7.7%)	139명(21.9%)	380명(59.7%)	68명(10.7%)
	농산어촌	8명(5.8%)	27명(19.7%)	90명(65.7%)	12명(8.8%)

#### (2) 교과 외 수업

〈표 60〉은 아동이 원하는 교과 외 수업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4명(3.4%),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6명(6.0%),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00명(43.5%),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60명(47.2%)이다. 평균은 3.35, 표준편차는 .740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과 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늘려야 한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인권교육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3명(3.3%),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81명(11.2%),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15명(56.8%),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61명(28.6%)이다. 평균은 3.11, 표준편차는 .720으로 나타났다.

- 심리정서교육에 대해서 '없애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4명(3.4%),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24명(7.7%),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873명(54.2%),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59명(34.7%)이다. 평균은 3.20, 표준편차는 .719로 나타났다.
- 봉사활동에 대해서 '없애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명(5.8%),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97명(12.2%),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8명(58.9%),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71명(23.0%)이다. 평균은 2.99, 표준편차는 .766으로 나타났다.

〈표 60〉 아동이 원하는 교과 외 수업

항목	없애야 한다 (1)	줄여야 한다 (2)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3)	늘려야 한다 (4)	평균	표준편차
진로체험활동	54명 (3.4%)	96명 (6.0%)	700명 (43.5%)	760명 (47.2%)	3.35	.740
인권교육	53명 (3.3%)	181명 (11.2%)	915명 (56.8%)	461명 (28.6%)	3.11	.720
심리정서교육	54명 (3.4%)	124명 (7.7%)	873명 (54.2%)	559명 (34.7%)	3.20	.719
봉사활동	94명 (5.8%)	197명 (12.2%)	948명 (58.9%)	371명 (23.0%)	2.99	.766

###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체험 활동 교육에 대한 의견

〈표 6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체험 활동 교육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여성(50.0%), 초등학생(51.2%), 고등학생(46.5%), 대도시(48.3%), 중소도시(46.4%)로 나타났다.

〈표 6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체험 활동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26명(2.3%)	60명(5.4%)	472명(42.3%)	559명(50.0%)
	남성	26명(5.3%)	36명(7.4%)	227명(46.4%)	200명(40.9%)
학교 급	초등학교	10명(2.2%)	20명(4.4%)	193명(42.2%)	234명(51.2%)
	중학교	22명(3.3%)	54명(8.0%)	296명(44.0%)	301명(44.7%)
	고등학교	22명(4.6%)	22명(4.6%)	210명(44.2%)	221명(46.5%)
거주 지역	대도시	28명(3.3%)	45명(5.4%)	360명(43.0%)	404명(48.3%)
	중소도시	20명(3.1%)	46명(7.2%)	275명(43.2%)	295명(46.4%)
	농산어촌	6명(4.4%)	5명(3.6%)	65명(47.4%)	61명(44.5%)

②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 교육에 대한 의견

〈표 6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 교육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모든 항목에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28명(2.5%)	120명(10.7%)	630명(56.4%)	339명(30.3%)
	남성	24명(4.9%)	61명(12.5%)	284명(58.1%)	120명(24.5%)
학교 급	초등학교	10명(2.2%)	30명(6.6%)	274명(60.0%)	143명(31.3%)
	중학교	23명(3.4%)	88명(13.1%)	383명(56.9%)	179명(26.6%)
	고등학교	20명(4.2%)	63명(13.3%)	256명(53.9%)	136명(28.6%)
거주 지역	대도시	30명(3.6%)	97명(11.6%)	479명(57.2%)	231명(27.6%)
	중소도시	20명(3.1%)	67명(10.5%)	356명(56.0%)	193명(30.3%)
	농산어촌	3명(2.2%)	17명(12.4%)	80명(58.4%)	37명(27.0%)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의견

〈표 6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모든 항목에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31명(2.8%)	76명(6.8%)	578명(51.7%)	432명(38.7%)
	남성	22명(4.5%)	48명(9.8%)	293명(59.9%)	126명(25.8%)
학교 급	초등학교	10명(2.2%)	20명(4.4%)	261명(57.1%)	166명(36.3%)
	중학교	20명(3.0%)	61명(9.1%)	361명(53.6%)	231명(34.3%)
	고등학교	24명(5.1%)	43명(9.1%)	250명(52.6%)	158명(33.3%)
거주 지역	대도시	30명(3.6%)	57명(6.8%)	458명(54.7%)	292명(34.9%)
	중소도시	20명(3.1%)	55명(8.6%)	338명(53.1%)	223명(35.1%)
	농산어촌	4명(2.9%)	12명(8.8%)	77명(56.2%)	44명(32.1%)

④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표 6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봉사 활동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모든 항목에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늘려야 한다’, ‘없어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61명(5.5%)	132명(11.8%)	666명(59.6%)	258명(23.1%)
	남성	32명(6.5%)	65명(13.3%)	280명(57.3%)	112명(22.9%)
학교 급	초등학교	17명(3.7%)	44명(9.6%)	245명(53.6%)	151명(33.0%)
	중학교	46명(6.8%)	100명(14.9%)	412명(61.2%)	115명(17.1%)
	고등학교	31명(6.5%)	52명(10.9%)	290명(61.1%)	102명(21.5%)
거주 지역	대도시	51명(6.1%)	102명(12.2%)	464명(55.4%)	220명(26.3%)
	중소도시	36명(5.7%)	81명(12.7%)	397명(62.4%)	122명(19.2%)
	농산어촌	7명(5.1%)	14명(10.2%)	87명(63.5%)	29명(21.2%)

### (3) 교육방법

〈표 65〉는 아동이 원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참여위주 수업방식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1명(5.7%),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63명(10.1%),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842명(52.3%),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14명(31.9%)이다. 평균은 3.10, 표준편차는 .797로 나타났다.
-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방식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0명(4.3%),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89명(11.7%),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23명(57.3%),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28명(26.6%)이다. 평균은 3.06, 표준편차는 .744로 나타났다.
- 교과목 자율 선택방식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56명(3.5%),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0명(4.3%),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90명(42.9%),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794명(49.3%)이다. 평균은 3.38, 표준편차는 .729로 나타났다.
- 아동은 참여위주 수업방식과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과목 자율 선택방식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5〉 아동이 원하는 교육방법

항목	없어야 한다 (1)	줄여야 한다 (2)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3)	늘려야 한다 (4)	평균	표준편차
참여위주 수업방식	91명 (5.7%)	163명 (10.1%)	842명 (52.3%)	514명 (31.9%)	3.10	.797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방식	70명 (4.3%)	189명 (11.7%)	923명 (57.3%)	428명 (26.6%)	3.06	.744
교과목 자율 선택	56명 (3.5%)	70명 (4.3%)	690명 (42.9%)	794명 (49.3%)	3.38	.729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 위주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표 66〉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토론 및 발표 등 참여 수업 방식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모든 항목에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 위주 수업 방식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59명(5.3%)	118명(10.6%)	591명(52.9%)	349명(31.2%)
	남성	31명(6.3%)	45명(9.2%)	249명(50.9%)	164명(33.5%)
학교 급	초등학교	18명(3.9%)	34명(7.4%)	239명(52.3%)	166명(36.3%)
	중학교	37명(5.5%)	73명(10.8%)	354명(52.6%)	209명(31.1%)
	고등학교	36명(7.6%)	55명(11.6%)	248명(52.2%)	136명(28.6%)
거주 지역	대도시	48명(5.7%)	81명(9.7%)	423명(50.5%)	285명(34.1%)
	중소도시	38명(6.0%)	71명(11.2%)	336명(52.8%)	191명(30.0%)
	농산어촌	5명(3.6%)	11명(8.0%)	83명(60.6%)	38명(27.7%)

### ②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기기 이용 방식에 대한 의견

〈표 67〉은 특성에 따른 디지털기기 이용 방식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모든 항목에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방식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40명(3.6%)	125명(11.2%)	667명(59.7%)	285명(25.5%)
	남성	29명(5.9%)	63명(12.9%)	254명(51.9%)	143명(29.2%)
학교 급	초등학교	22명(4.8%)	70명(15.3%)	256명(56.0%)	109명(23.9%)
	중학교	28명(4.2%)	79명(11.7%)	392명(58.2%)	174명(25.9%)
	고등학교	20명(4.2%)	39명(8.2%)	273명(57.5%)	143명(30.1%)
거주 지역	대도시	40명(4.8%)	115명(13.7%)	452명(54.0%)	230명(27.5%)
	중소도시	26명(4.1%)	64명(10.1%)	381명(59.9%)	165명(25.9%)
	농산어촌	4명(2.9%)	10명(7.3%)	90명(65.7%)	33명(24.1%)

###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하는 과목을 자율 선택하는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표 68〉은 특성에 따른 원하는 과목을 자율 선택하는 교육 방식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 초등학교, 농산어촌 거주자로 나타났다.
-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여성, 중학교, 고등학교,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표 68〉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과목 자율 선택 방식에 대한 의견

	항목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늘려야 한다
성별	여성	28명(2.5%)	37명(3.3%)	471명(42.2%)	581명(52.0%)
	남성	27명(5.5%)	33명(6.7%)	219명(44.8%)	210명(42.9%)
학교 급	초등학교	19명(4.2%)	22명(4.8%)	213명(46.6%)	203명(44.4%)
	중학교	12명(3.1%)	28명(4.2%)	266명(39.5%)	358명(53.2%)
	고등학교	16명(3.4%)	20명(4.2%)	210명(44.2%)	229명(48.2%)
거주 지역	대도시	30명(3.6%)	47명(5.6%)	340명(40.6%)	420명(50.2%)
	중소도시	22명(3.5%)	19명(3.0%)	279명(43.9%)	316명(49.7%)
	농산어촌	4명(2.9%)	4명(2.9%)	71명(51.8%)	58명(42.3%)

(4)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정책

〈표 69〉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의 순위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이다.

- ‘입시제도’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85명(30.1%), ‘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34명(27.0%), ‘교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 활동 등)의 확대’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74명(17.0%),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72명(16.9%), ‘사교육 금지’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00명(6.2%), ‘기타’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5명(2.8%)이다.

〈표 69〉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

항목	입시제도	교과교육과정	교과 외 교육	수업방식	사교육 금지	기타의견
전체	485명 (30.1%)	434명 (27.0%)	274명 (17.0%)	272명 (16.9%)	100명 (6.2%)	45명 (2.8%)

① 성별에 따른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표 70〉은 성별에 따른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의 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여성의 경우, ‘입시제도’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352명(3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305명(27.3%), ‘교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활동 등)의 확대’ 196명(17.5%),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 182명(16.3%), ‘사교육 금지’ 57명(5.1%), ‘기타’ 25명(2.2%) 순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경우, ‘입시제도’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30명(2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의 교육과정’ 129명(26.4%),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 90명(18.4%), ‘교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활동 등)의 확대’ 77명(15.7%), ‘사교육 금지’ 43명(8.8%), ‘기타’ 2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0〉 성별에 따른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

항목	입시제도	교과교육	교과 외 교육	수업방식	사교육 금지	기타의견
여성	352명 (31.5%)	305명 (27.3%)	196명 (17.5%)	182명 (16.3%)	57명 (5.1%)	25명 (2.2%)
남성	130명 (26.6%)	129명 (26.4%)	77명 (15.7%)	90명 (18.4%)	43명 (8.8%)	20명 (4.1%)

## ② 학교급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표 71〉은 학교급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의 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활동 등)의 확대’가 130명(2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111명(24.3%),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 95명(20.8%), ‘입시제도’ 66명(14.4%), ‘사교육 금지’ 33명(7.2%), ‘기타’ 22명(4.8%)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229명(34.0%), ‘학교의 교육과정’ 191명(28.4%),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 110명(16.3%), ‘교

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활동 등)의 확대' 90명(13.4%), '사교육 금지' 37명(5.5%), '기타' 16명(2.4%) 순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189명(39.8%), '학교의 교육과정' 131명(27.6%),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 65명(13.7%), '교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활동 등)의 확대' 54명(11.4%), '사교육 금지' 29명(6.1%), '기타' 7명(1.5%) 순으로 나타났다.
- 즉, 초등학교는 '교과 외 교육의 확대'가, 중고등학교는 '입시제도'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71〉 학교급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

항목	입시제도	교과교육	교과 외 교육	수업방식	사교육 금지	기타의견
초등학교	66명 (14.4%)	111명 (24.3%)	130명 (28.4%)	95명 (20.8%)	33명 (7.2%)	22명 (4.8%)
중학교	229명 (34.0%)	191명 (28.4%)	90명 (13.4%)	110명 (16.3%)	37명 (5.5%)	16명 (2.4%)
고등학교	189명 (39.8%)	131명 (27.6%)	54명 (11.4%)	65명 (13.7%)	29명 (6.1%)	7명 (1.5%)

### ③ 거주지역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표 72〉는 거주지역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의 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입시제도'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높게 나타났다.
- '교과 외 교육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집단은 대도시, 농산어촌으로 나타났다.
- '수업방식 변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집단은 중소도시로 나타났다.

〈표 72〉 거주지역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 정책

항목	입시제도	교과교육	교과 외 교육	수업방식	사교육금지	기타의견
대도시	240명 (28.7%)	211명 (25.2%)	156명 (18.6%)	148명 (17.7%)	55명 (6.6%)	27명 (3.2%)
중소도시	206명 (32.4%)	185명 (29.1%)	93명 (14.6%)	102명 (16.0%)	36명 (5.7%)	14명 (2.2%)
농산어촌	39명 (28.5%)	38명 (27.7%)	25명 (18.2%)	22명 (16.1%)	9명 (6.6%)	4명 (2.9%)

## 8)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 (1)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아동의 의견 반영

〈표 73〉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아동의 의견 반영과 관련한 응답 결과이다.

- ‘성인의 의견이 아동보다 더 나으므로 아동의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4명(2.1%), ‘아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53명(59.2%), ‘아동이 직접 교육과정이나 입시정책의 수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612명(38.0%),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11명(0.7%)이다.

〈표 73〉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아동의 의견 반영에 대한 생각

항목	아동의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르겠음
전체	34명(2.1%)	953명(59.2%)	612명(38.0%)	11명(0.7%)

-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아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아동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동의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 ‘모르겠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 반영에 대한 생각

항목		아동의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르겠음
성별	여성	12명(1.1%)	634명(56.8%)	467명(41.8%)	4명(0.4%)
	남성	22명(4.5%)	319명(65.2%)	141명(28.8%)	7명(1.4%)
학교급	초등학교	7명(1.5%)	303명(66.3%)	145명(31.7%)	2명(0.4%)
	중학교	14명(2.1%)	371명(55.1%)	283명(42.1%)	5명(0.7%)
	고등학교	13명(2.7%)	275명(57.9%)	183명(38.5%)	4명(0.8%)
거주지역	대도시	21명(2.5%)	500명(59.7%)	312명(37.3%)	4명(0.5%)
	중소도시	11명(1.7%)	360명(56.6%)	262명(41.2%)	3명(0.5%)
	농산어촌	2명(1.5%)	93명(67.9%)	38명(27.7%)	4명(2.9%)

(2)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

〈표 75〉는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항의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 ‘학생인 아동’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008명(62.6%), ‘교육부 장관’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302명(18.8%), ‘학교 담임 선생님 및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69명(10.5%), ‘교장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51명(3.2%), ‘학생의 보호자’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3명(2.7%), ‘보기의 모든 사람’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7명(1.7%),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7명(0.4%), ‘부모와 학생, 학생과 교사’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5〉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

항목	학생인 아동	교육부 장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생의 보호자	보기의 모든 사람	기타
전체	1,008명 (62.6%)	302명 (18.8%)	169명 (10.5%)	51명 (3.2%)	43명 (2.7%)	27명 (1.7%)	10명 (0.6%)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의 주인에 대한 의견

〈표 76〉은 성별에 따른 교육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의 주인을 ‘학생인 아동’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 ‘학교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장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소도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 ‘학생의 보호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여성, 중학교, 대도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표 7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

항목		학생인 아동	교육부 장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생의 보호자	보기의 모든 사람	기타
성별	여성	714명 (63.9%)	207명 (18.5%)	118명 (10.6%)	27명 (2.4%)	30명 (2.7%)	15명 (1.3%)	6명 (0.5%)
	남성	291명 (59.5%)	95명 (19.4%)	51명 (10.4%)	24명 (4.9%)	12명 (2.5%)	12명 (2.5%)	4명 (0.8%)
학교	초등학교	251명 (54.9%)	96명 (21.0%)	60명 (13.1%)	25명 (5.5%)	13명 (2.8%)	9명 (2.0%)	3명 (0.7%)
	중학교	447명 (66.4%)	109명 (16.2%)	72명 (10.7%)	12명 (1.8%)	18명 (2.7%)	12명 (1.8%)	3명 (0.4%)
	고등학교	306명 (64.4%)	97명 (20.4%)	37명 (7.8%)	13명 (2.7%)	12명 (2.5%)	6명 (1.3%)	4명 (0.8%)
거주 지역	대도시	539명 (64.4%)	133명 (15.9%)	95명 (11.4%)	24명 (2.9%)	25명 (3.0%)	17명 (2.0%)	4명 (0.5%)
	중소도시	394명 (61.9%)	134명 (21.1%)	64명 (10.1%)	21명 (3.3%)	12명 (1.9%)	6명 (0.9%)	5명 (0.8%)
	농산어촌	75명 (54.7%)	35명 (25.5%)	10명 (7.3%)	6명 (4.4%)	6명 (4.4%)	4명 (2.9%)	1명 (0.7%)

### 3. 결론

#### 1) 교육권 보장의 의의

교육은 인간의 인격과 지식함양뿐만 아니라 사회인재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 평등권을 명확하게 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가지 기본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중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UN Human Rights, 2021). 따라서 교육권은 인간에게 선택이 아닌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이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코로나 시기의 아동 교육권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에 무수한 변화를 주었고, 이로 인해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과 더불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020년 4월 9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고(교육부, 2020), 교사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김혜숙, 신안나, 김한성, 2020).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약 79%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학습격차의 원인으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학생-교사 간 피드백(소통) 한계, 사교육 등으로 보고되었다(계보경 외, 2020). 이와 같은 학습의 불규칙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 까지 학습의 공백을 발생시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은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BC NEWS 코리아, 2020). 본 실태조사는 교육의 주체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 3) 설문 결과 및 함의

#### (1) 온라인 교육의 현황

- 2020년 1학기 이후로 1순위로 가장 많이 이용한 수업방식이라고 대답한 수업방식은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이며,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을 시청’, ‘EBS에서 제작한 동영상 수업을 시청’,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을 시청’,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거주지역별로 가장 많이 이용한 수업방식의 비율은 차이가 있었으며, ‘실시간 화상 수업’의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 그 비율이 낮아지며,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EBS 방송’ 활용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 각 수업 방식의 만족도는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을 시청’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과 실시간 화상 수업’,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업’, ‘EBS 방송 수업 시청’, ‘선생님이 지정한 영상물 시청’ 순으로 나타났다.
-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높았고, 중고등 학생은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장점으로 모든 방식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실시간 화상 수업은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두 번째로 높은 장점이고, 다른 방식

은 모두 ‘반복 시청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의 장점으로 ‘반복 시청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수업 집중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선생님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 수업’방식 이외의 네 가지 방식은 ‘질문하기 어렵다’가 두 번째로 많은 단점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면수업에 비해서 온라인 수업은 내용이 많지 않고, 과제 양은 많은 편이고, 수업에 집중하기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약 72%의 응답자가 자신만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온라인 수업에 방해가 되는 아동의 환경으로, ‘낡은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는 약 20%정도이며,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는 약 30%이고, ‘조용한 공간이 없어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는 약18%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거주지역에 따라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조용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자가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인터넷 속도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환경으로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 기술’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약18%이고, 학교급별,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환경으로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이고, 학교급별,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정도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거주자보다는 대도시의 거주자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등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물어본다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는 ‘담임선생님께 질문한다’가 가장 많았으나, 중소도시 거주자는 ‘친구에게 물어본다’, 농산어촌 거주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가 가장 많았다.
-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6.7%이다. ‘관심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거주자가 높았다.
-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약 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5%이다. ‘관심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대도시와 농산어촌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가 높았다.

## (2) 코로나 시기에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방식

- 52.3%의 학생이 ‘마스크를 끼고 학교 교실에서 만나서 대면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EBS 방송 수업 시청’, ‘혼자 과제를 해서 제출하는 수업’,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순으로 나타났다.
- ‘대면수업’을 가장 원하는 수업 방식으로 고른 이유로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 모든 학교급에서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대면수업 선호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EBS 방송 수업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모든 거주지역에서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농산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선호 비율은 낮아진다.

### (3) 코로나 시기의 학교 외 교육 현황

- 응답자의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16.8%이다.
- 사교육의 도움 정도에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9.4%로 나타났다.
- 학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간의 변화는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2.5%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남성,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 거주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코로나 이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이며,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의 크기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 코로나19 이후 학습 외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의 변화에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2.9%이며, 남성<여성,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 (4) 아동이 원하는 교육

- 교과 수업 중 ‘예체능교과’를 더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남성,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확대에 대한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교과 외 수업 중,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진로체험활동’, ‘심리정서 교육’, ‘인권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진로체험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여성,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 거주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인권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여성,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농산어촌<대도시<중소도시 거주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학교급과 거주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남정보단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 교육방법은 모두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참여 위주의 수업방식’< ‘교과목 자율 선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교과목 자율 선택 방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여성,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참여 위주의 수업 방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남성,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방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남성,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입시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과교육과정, 교과 외 교육, 수업 방식, 사교육 금지 순으로 나타났다.

#### (5)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 ‘아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이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8.0%이다.
- ‘아동이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여성, 초등학생<고등학생<중학생, 농산어촌<대도시<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교육의 주체는 ‘학생인 아동’이라고 응답한 비율(62.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의 주인이 아동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남성<여성,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 제언

아동의 발달단계를 제시한 피아제는 교육의 주체는 아동이며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해당 나이에 맞게 조심스레 일깨워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았다(장 피아제, 2005). 즉, 교사가 아이를 교육할 때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이 학생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전환이다. 본 조사를 통한 코로나19 시기의 학교 온라인 교육의 현황과 학교 외 교육의 실태 및 아동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의 주인인 아동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서, 아동의 교육권 실현을 우선순위에 두어 교육과정이나 방식,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라도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이나 교육 관련 결정에 참여할 권리,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권리, 원하는 교육을 더 받을 권리 등이 ‘교육에 대한 권리’란 이름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 (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GM 20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2020).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2020.03.31.)
- 김혜숙, 신안나, 김한성 (2020). OECD PISA 2018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 (연구자료 RM 2020-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장 피아제 (2005). 교육론(이병애). 동문선
- BBC NEWS 코리아 (2020). 코로나19: 달라지는 아이들... ‘잃어버린 세대’ 될까?. (2020.06.07.)
- UN Human Rights (202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참조] 아동 교육권 현황 설문지

### 2021년 아동 교육권 현황 설문 “교육의 주인은 아동인가?”

####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설문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0세 이상~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설문에는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 등에 관한 질문과 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설문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 원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번 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831-1933

※ 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의 특별 저작물입니다. 서면으로 공식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내용의 일부나 전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가공하거나 무단전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설문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동의함”에 표시해주시시오.

- 나는 이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 나는 설문에 참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6번 문항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안학교 ⑤ 학교에 다니지 않음

1-1)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사항에 표시하세요.

- ① 일반 고등학교 ② 자율형 공립/사립고등학교  
③ 예술 고등학교 ④ 체육 고등학교  
⑤ 과학 고등학교 ⑥ 외국어/국제 고등학교  
⑦ 마이스터 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⑧ 체험(대안) 고등학교  
⑨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⑩ 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⑪ 시각/청각/지체 장애, 정신지체 등 특수학교  
⑫ 방송통신 고등학교

2.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3. 몇 연도에 태어났나요? \_\_\_\_\_

4.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요?

- ① 강원도 ② 경기도 ③ 경상도 ④ 광주광역시  
⑤ 대구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부산광역시 ⑧ 서울특별시  
⑨ 세종특별자치시 ⑩ 울산광역시 ⑪ 인천광역시 ⑫ 전라도  
⑬ 제주특별자치도 ⑭ 충청도





11. 나의 보호자는 온라인 수업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없는 편이다
- ③ 관심있게 챙기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있게 챙긴다

12.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내가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서 수업 참여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내가 있는 곳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가 있다.				
우리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활용한 줄 아신다.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 (줌, 클래스룸, E 학습터, 클래스팅 등)이 잘 되어있는 것 같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우는 <u>수업 내용</u> 이 더 많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온라인 수업은 <u>과제의 양</u> 이 많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보다 온라인 수업은 집중하기 어렵다.				

13.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① 담당교과/담임선생님께 질문                      ② 교육관련 기관(학원/공부방)도움
- ③ 보호자로부터 도움                                      ④ 형제자매로부터 도움
- ⑤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함                              ⑥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 ⑦ 친구에게 물어봄    ⑧ 기타\_\_\_\_\_

14. 나의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나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⑤ 관심 없다    ⑥ 장애가 있는 학생 없음



- ③ 2시간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이상~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⑥ 안 함

18. 학교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사교육 (학원이나 과외) 시간이 늘었나요?

- ① 늘었다   ② 이전과 비슷하다   ③ 줄었다   ④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19. 사교육(학원이나 과외)은 자신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20. 코로나19(2020년 1학기) 이후, 공부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SNS 등)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었나요?

- ① 늘었다                      ② 이전과 비슷하다                      ③ 줄었다

20-1) 늘었다면 하루 평균 몇시간 정도 더 늘었나요? \_\_\_\_\_시간

21. 코로나19(2020년 1학기) 이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나요?

- ① 늘었다   ② 이전과 비슷하다   ③ 줄었다

21-1) 늘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더 늘었나요? \_\_\_\_\_시간

22.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생활 형편은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 ④ 넉넉하다                              ⑤ 매우 넉넉하다

23. 지난 학기(2021년 1학기) 나의 성적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매우 못하는 수준   ② 못하는 수준                              ③ 중간
- ④ 잘하는 수준                      ⑤ 매우 잘하는 수준

**현재 공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나는 공부를 하면 부듯해진다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5. 자신의 최근 경험에 비추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전혀 아니다	② 보통	③ 자주
학교/학원에서 시험이 너무 많았다.			
노력해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공부하는데 주의집중이 되지 않았다.			



26. 나와 학교 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시시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는 선생님과 사이가 아주 가깝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준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27. 다음 교육에 관하여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 없어야 한다	② 줄여야 한다	③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④ 늘려야 한다
교과수업	기초(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등)				
	생활교양(기술가정, 철학 등)				
교과 외	진로체험활동				
	인권교육(학교폭력, 성교육, 장애인해교육 등)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활동				
	봉사활동				
교육방법	토론 및 발표 등 참여 위주 방식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방식				
	원하는 교과를 선택해 듣는 방식 등등				

28.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가 바뀔 때 아동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성인의 의견이 아동보다 더 나으므로 아동의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
- ② 아동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있어야 한다.
- ③ 아동이 직접 교육과정이나 입시정책의 수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④ 기타 \_\_\_\_\_

29. 아동이 직접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조정, 수업 시수 변경 등)
- ② 사교육 금지
- ③ 수업방식 변경(토론 발표식, 이동 수업 등)
- ④ 입시제도
- ⑤ 교과 외 교육(진로체험, 인권교육, 봉사활동 등)의 확대
- ⑥ 기타 \_\_\_\_\_

30. 교육의 주체(주인)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 ① 교육부 장관
- ② 교장 선생님
- ③ 학교 담임 선생님 및 교과 담당 선생님
- ④ 학생인 아동
- ⑤ 학생의 보호자
- ⑥ 기타 \_\_\_\_\_

31. 마지막으로 교육에 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 참여에 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래에 정보제공 동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귀하는 동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아동단체협의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하는자: 아동단체협의회
- 수집항목: 휴대폰 번호
- 이용목적: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발송
- 보유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까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오

**2) 상품권 기프트콘을 받으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예: 010-0000-0000)**

\_\_\_\_\_



---

# 03

---

##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



## 서울1 LENS

LENS	윤다영, 서소윤, 전서현, 양유정
코디네이터	강유나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노키즈존은 아동인권침해인가?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 코디네이터와 모니터링 단원 간에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세계인권선언 및 UN아동권리협약의 배경과 일반 원칙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인권 교육을 진행하였음.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 스스로 느끼는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아동을 향한 전통적인 시각과 새로운 시각을 비교해 보는 시간 또한 가졌음. 더불어 환경운동가 ‘그레타툰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알아보며 이번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의 의의를 찾아보기도 하였음.
- 고등학생인 모니터링 단원들에게 ‘코로나 시대에서의 교육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 질문한 후,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라는 주제로 다른 아동들에게 묻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모았음. 또한 UN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제2조 ‘비차별’을 중심으로 한 주제인 ‘노키즈존’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 권역별 주제로 선정하였음.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음.

- ✓ 8월: 노키즈존의 현황과 실태, 이슈에 대한 찬반의견을 기사, 논문, 영상을 중심으로 각자 조사한 후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1차 설문조사 양식 완성
- ✓ 9월: 노키즈존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카드뉴스를 통한 캠페인 진행
- ✓ 10월: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제고 여부 확인을 위하여 2차 설문조사 진행

### 주제 도출 경과

아동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UN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인 '비차별'을 중점으로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음. 이에 '노키즈존/장애 아동 인권문제/저소득층 아동 인권문제(생계지원 관련)/초글링·초딩·급식총·잼민이와 같은 아동 비하 유행어' 등이 주제 후보에 올랐으며, 서로의 의견을 나눈 뒤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노키즈존'을 서울1 권역의 모니터링 주제로 결정하였음.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2021. 8. 26. 1차 모니터링 회의

- 각자 조사한 자료 내용을 공유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유튜브(동영상, 댓글)

- 1) 노키즈존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많음.
- 2)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예의없이 행동하는 부모가 싫다는 여론이 대부분임.
- 3) 노키즈존에서 키즈 대신 장애인, 노인을 넣으면 차별이 명확하다는 것이 느껴짐.
- 4) 노키즈존보다 'NO BAD PARENTS ZONE'을 만들고 BAD PARENTS의 기준을 정해서 그 행동이 무개념 행동이라는 인식을 퍼뜨리자는 주장이 있음.
- 5) 아니면 어덜트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2. 논문 및 인권위원회 결정문

- 201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음.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에서였음.

####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부모의 방관이 노키즈존 확산이 된 주요 원인

- 최근에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간다든지, 컵으로 아이의 소변을 받는 등 일부 부모의 행동이 논란을 야기함.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이유**

- 2011년 부산 시내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의 부주의와 식당 주인의 직원 안전 교육 미흡을 이유로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아동차별인가?**

-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예를 들어, 흡연이 문제가 될 경우 흡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아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유해한 사물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노키즈존이 불가피한 경우 ‘아이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나눈 후,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노키즈존’에 대해 들어보거나 노키즈존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나요?
3.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4. 노키즈존이 아이들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노키즈존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6. (응답자가 부모라면) 노키즈존으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7. 노키즈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주관식)
8. 노키즈존이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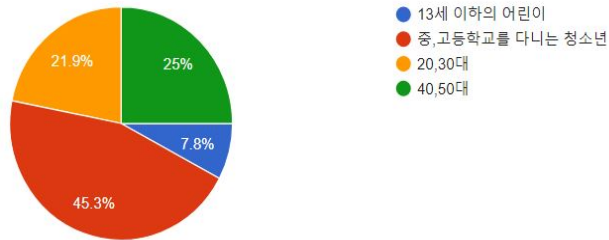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2021. 9. 18. 2차 모니터링 회의

-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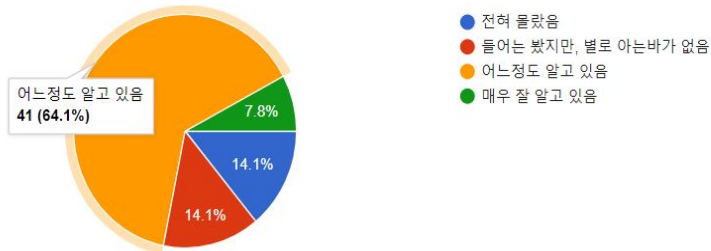
현재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응답 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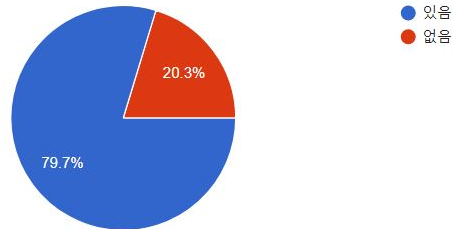
1. 노키즈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답 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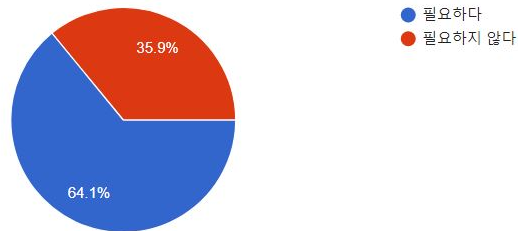
2.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답 64개



3.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64개



3번 답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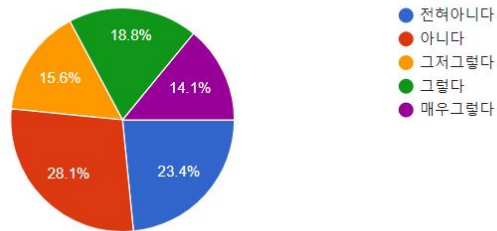
응답 59개

- 가끔은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있고 싶을때도 있어서
- 아이들을 제한하는 것은 부모도 포함 되는 것이 문제  
어린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수용해야함
- 아이도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으니까
- 뛰어다녀서
-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 안전문제
- 때에 따라서 위험한 경우도 있고,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소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아이와 아이의 부모도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어른들의 대화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

4. 노키즈존은 아동&보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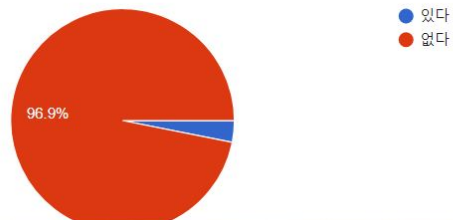


응답 64개



5. 아이가 있으시다면 '노키즈존'으로 인한 피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만 답해주세요)

응답 32개



-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키즈존은 아동 및 부모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 카드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계정 (children\_right21) [https://instagram.com/children\\_right21?utm\\_medium=copy\\_link](https://instagram.com/children_right21?utm_medium=copy_link) 을 통해 확인 가능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2021. 10. 9. 3차 모니터링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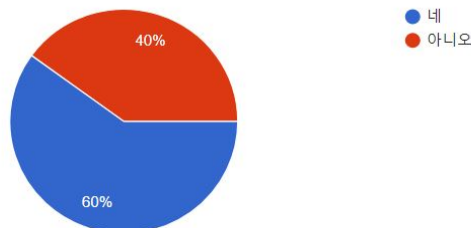
- 9월에 진행했던 캠페인(카드뉴스 제작 후 공유)을 통해 달라진 인식을 기대하며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설문조사 방식은 1차와 동일하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SNS(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였음. 설문조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카드 뉴스를 보고 <노키즈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1-1. 생각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1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 노키즈존이 아동인권침해라고 생각하나요?
- 카드 뉴스에 나와있는 노키즈존을 대체할 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설문조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완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상품으로 '배스킨라빈스'를 주고자 예고하였음. 그런데 어떤 팔로워분께서, 이벤트 상품으로 예정하였던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과 관련하여 피드백(배스킨라빈스 브랜드에서 아동성상품화 논란이 있었던 점에 따라 이벤트 리워드가 활동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점)을 주었음. 이후 아동과 이에 대해 논의한 후 상품을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변경하였음.
- 해당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61. 카드 뉴스를 보고 <노키즈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응답 85개



1-1. 생각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1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응답 39개

노키즈존이 뭔지 몰랐는데 알게되었다.  
(이것이 생각이 바뀐거라면 바뀐거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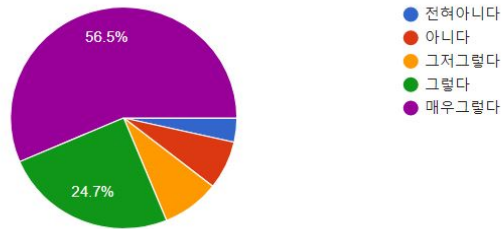
노키즈존의 문제점을 잘 몰랐는데 약자로 이름을 바꿔 생각해보니 차별임을 명백히 인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나

노키즈존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아동인권침해의 부분도 있겠지만 아동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 같다

2. 노키즈존이 아동인권침해라고 생각하나요?

응답 85개



3. 카드 뉴스에 나와있는 노키즈존을 대체할 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응답 53개

좋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어덜트존을 만드는게 더 좋을것같다

정말 맞는 말인듯 애들이 원해서 간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원해서 간곳인데 그러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공통주제
  - ✓ 아동이 학교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 아동이 교육의 주체가 되려면 교육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ex. 학교 운영위원회)
  - ✓ 주입식 교육도 기본적인 지식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의 비중이 너무 높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의무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음. 스탠퍼드 대학교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Entrepreneur In Residence’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함.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육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기업들의 유능한 리더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던지 투자부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스스로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디자인 해본다고 함. 이런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른들은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권역별 주제: 노키즈존
  - ✓ 노키즈존에 대해 단순히 반대하지 말고 왜 부당한지에 대해 설명하자. (ex. 노키즈존 대신 노시니어존을 만들면 차별임을 명백히 느낄 수 있음)
  - ✓ 설문조사 결과 공공장소에서 이린 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79.7%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문에 겪는 본질적인 문제는 뛰거나 소리지르는 것이 당연한 어린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을 방치하는 보호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함. 그래서 ‘No bad Parents Zone’가 같은 대안들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는 보호자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음. 또 이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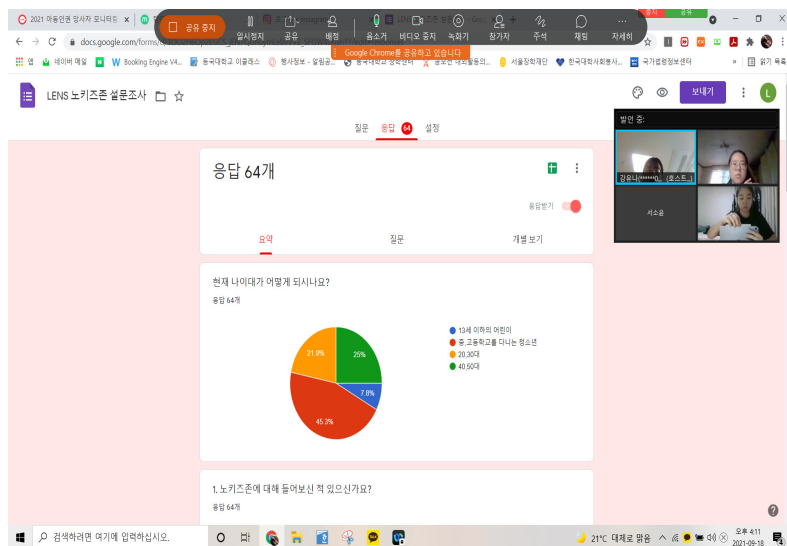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윤다영: 내가 만들어낸 주제로 토의하고 고민하니 느낌이 색달랐다. 이번에 진행한 활동으로 알게 모르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아동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
- 전서현: “노키즈존”이라는 주제로 뉴스기사, 논문, 유튜브, 뉴스에 달린 댓글 등 각자가 생각하고 조사한 것들을 말하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키즈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아동인권이 침해받는 사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미루지 않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내내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봉사활동이었다.
- 서소윤: 평소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코디네이터 강유나: 부족한 코디네이터를 잘 따라와 준 모니터링단 단원들에게 고맙다. 코로나로 인해 회의를 비대면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모니터 너머로 각자의 열정과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모든 단원과 함께 활동의 막을 내리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열심히 활동해 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모니터링단원들 외에도 설문조사 등의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많은 아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앞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에 우리의 활동이 작은 날갯짓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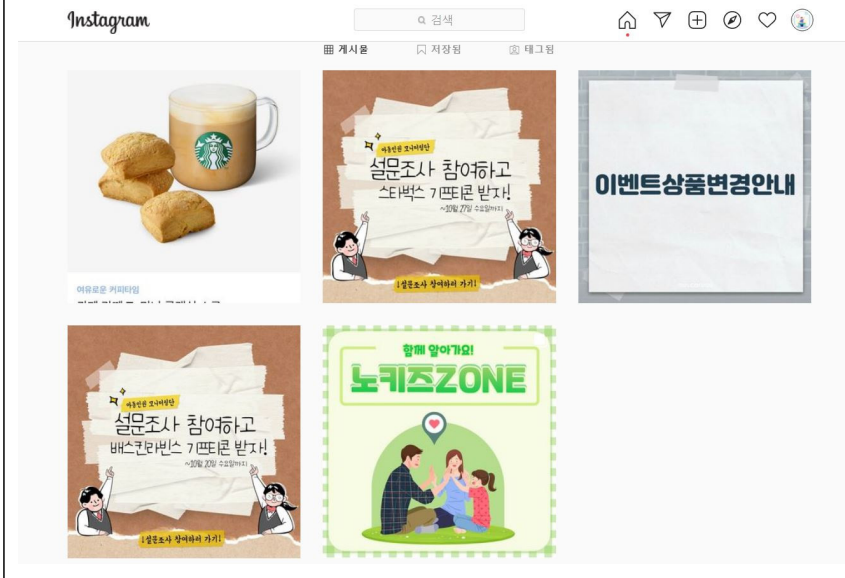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정기모임 사진]



[캠페인 활동 사진]



## 서울2 LENS

LENS	문지윤, 김다영, 강주현, 남준성, 서준호
코디네이터	김봉구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신체적, 사회적)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 ✓ 아동모니터링 활동 소개
  - ✓ 기존 아동모니터링 활동 소개
  - ✓ 코디네이터 및 각 참여자 자기소개
- 아동인권교육
  - ✓ 자료집 기반 교육 활동
  - ✓ 아동과 인권의 정의에 대한 논의
- 공통주제 관련 논의
  - ✓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이해 발표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각 참여자의 솔루션 제시

- 지역주제 모니터링 관련 논의
  - ✓ 각 참여자별 희망 주제 발표
  - ✓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조사(신체적, 사회적 환경 중심)으로 선정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 ✓ 논문조사, 통계 및 기사 조사, 시설별 실증 조사, 관련 전문가 인터뷰 기획
  - ✓ 각 지역별, 항목별 역할 분배
  - ✓ 8월 개인보고 일정 확인 8/11 김다영, 남준성 8/18 문지윤, 강주현
  - ✓ 8월 28일 전체 회의 일정 확인
  - ✓ 9월, 10월, 11월 전체 모니터링 활동 흐름 제시
- 기타
  - ✓ 서울 2권역 아동 거주 지역 고려, 다양한 지역의 실증 연구 가능
  - ✓ 서울 2권역 아동 연령 고려, 수준 높은 자료 조사 및 실증 인터뷰 기획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 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 **설문조사 열기, 배포, 교사 인터뷰 설계, 교육청 인터뷰 설계, 일정 문의**
  - ✓ 준성: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설계(아동), 통영교육청문의
  - ✓ 주현: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설계(교사), 제주교육청문의
  - ✓ 다영: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설계(교육청), 강원원주교육지원청 문의
  - ✓ 지윤: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배포(수합 이후), 광주교육청, 의회 문의
  - ✓ 주현8/20, 다영8/17, 준성8/15문항 설계 -> 지윤8/20 수합, 8/25제작 완료 -> 8/28 회의 이후 배포
- 선정 주제: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신체적, 사회적)
  - > **1. 논문조사 2. 통계·기사 조사 3. 주변의 시설 조사(인터뷰)**
  - ✓ 준성: 각 지역별 정책 조사, 시설조사
  - ✓ 주현: 논문조사(키워드), 문화의 집 인터뷰
  - ✓ 다영: 국제 아동인권센터 놀 권리 통계 자료 조사, 문화의 집 인터뷰
  - ✓ 지윤: 기사, 청소년 수련관, 디자인센터 인터뷰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 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 **설문조사 열기, 배포, 교사 인터뷰 정리, 교육청 인터뷰 정리**
  - ✓ 준성: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배포(아동), 통영교육청 인터뷰
  - ✓ 주현: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배포(교사), 제주교육청 인터뷰
  - ✓ 다영: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배포(교육청), 강원원주교육지원청 인터뷰
  - ✓ 지윤: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배포(수합 이후), 광주교육청, 의회 인터뷰
- 전체 설문조사 배포
- 선정 주제: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신체적, 사회적)
  - > **1. 논문조사 2. 통계·기사 조사 3. 주변의 시설 조사(인터뷰)**
  - ✓ 준성: 각 지역별 정책 조사, 시설조사 정리
  - ✓ 주현: 논문조사(키워드), 문화의 집 인터뷰 정리
  - ✓ 다영: 국제 아동인권센터 놀 권리 통계 자료 조사, 문화의 집 인터뷰 정리
  - ✓ 지윤: 기사, 청소년 수련관, 디자인센터 인터뷰 정리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 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 **설문조사 열기, 배포, 교사 인터뷰 설계, 교육청 인터뷰 설계, 일정 문의**
  - ✓ 준성: 설문조사 겸 인터뷰 결과 종합(아동), 통영교육청문의 결과 종합
  - ✓ 주현: 설문조사 겸 인터뷰 결과 종합(교사), 제주교육청문의 결과 종합
  - ✓ 다영: 설문조사 겸 인터뷰 결과 종합(교육청), 강원원주교육지원청 문의 결과 종합
  - ✓ 지윤: 설문조사 겸 인터뷰 문항 결과 시각화 및 종합, 광주교육청, 의회 결과 종합
- 선정 주제: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신체적, 사회적)
  - > **1. 논문조사 2. 통계·기사 조사 3. 주변의 시설 조사(인터뷰)**
  - ✓ 준성: 각 지역별 정책 조사, 시설조사 종합 및 전달
  - ✓ 주현: 논문조사(키워드), 문화의 집 인터뷰 종합 및 전달
  - ✓ 다영: 국제 아동인권센터 놀 권리 통계 자료 조사, 문화의 집 인터뷰 종합 및 전달
  - ✓ 지윤: 기사, 청소년 수련관, 디자인센터 인터뷰 종합 및 전달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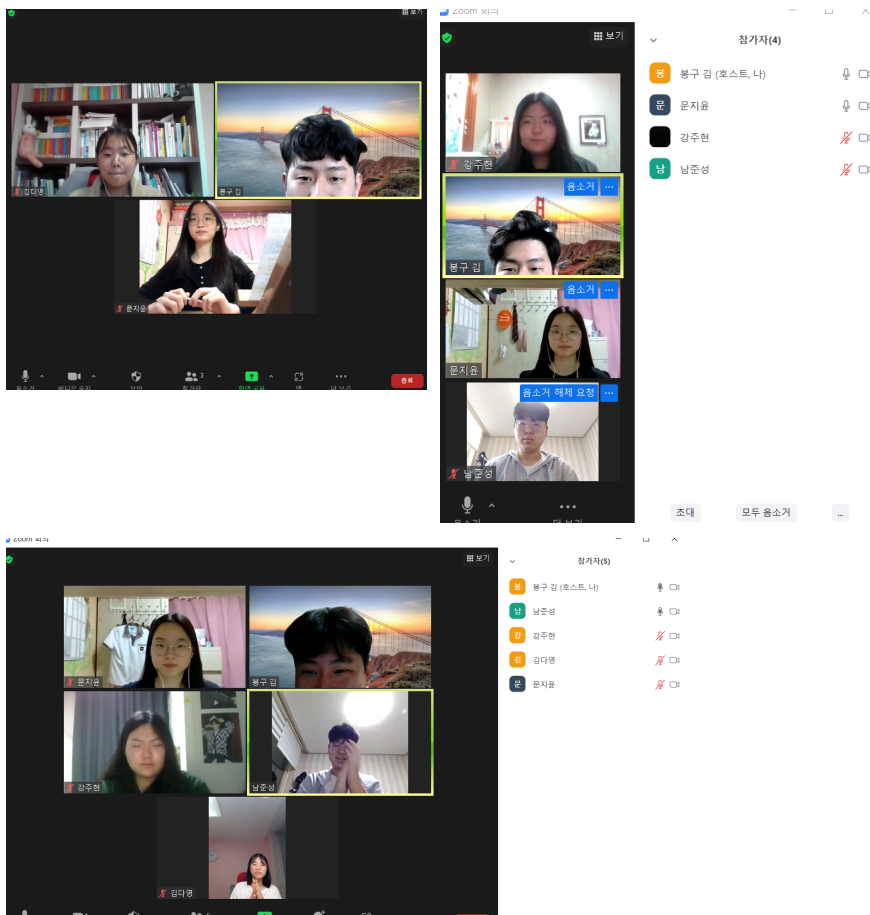
- 권역별 주제: 코로나 시대 아동의 놀 권리는?(신체적, 사회적 환경 중심)
  - ✓ 비대면/온라인 사회에서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 문화시설 체험학습을 한 학기 5회 이상 수행하도록 권장해주세요.

### Step6. 활동소감(LENS,코디네이터)

- 강주현: 주제도 마음에 들었지만 새롭게 연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서 기분이 좋다. 논문을 살펴보고, 직접 담당자 분들 인터뷰를 따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
- 김다영: 아동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누가 물어보면 자신감있게 설명할 것이다!
- 남준성: 놀 권리와 교육의 주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동 권리 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
- 문지윤: 우리 근처의 아동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던 점이 가장 뜻 깊다. 또 쉬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 인터뷰, 자료 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코디네이터 김봉구: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써주신 사무국 선생님들, 잘 따라와준 아이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낯선 연구방법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준 주현, 지윤, 다영, 준성에게도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정기모임 사진]



### [설문조사 결과링크]

교사

[https://docs.google.com/forms/d/1MmdVUG7OZAV5\\_SLeB5Uid416jOhVE5eOPmKQ-ciEriM/viewanalytics](https://docs.google.com/forms/d/1MmdVUG7OZAV5_SLeB5Uid416jOhVE5eOPmKQ-ciEriM/viewanalytics)

아동

<https://docs.google.com/forms/d/1uQQGkT317hiMzPwwZ22cOMro7yBEtn949q-UOwwQw6g/viewanalytics>

## 경기2 LENS

LENS	김세훈, 배예준, 왕준혁, 우지혜, 이유린, 장유리, 정태석, 지수연
코디 네이터	박민수

###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성장기에 외모에 많은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두발, 복장, 화장 등 자율화를 외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찬성하는 곳이 있고 반대하는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아동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정해진 주제에 대해 활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논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할지 팀을 구성해 할 것인지는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9월 활동에서 아동의 시선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그림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내용을 정리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뷰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족 인터뷰의 경우에는 대면 방식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1차 활동에서 전화인터뷰와 그림을 통해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에 대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아동들의 시선을 조사하였음.
- 전화인터뷰 경우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질문 4~5개를 만들어 솔직한 생각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림을 그리는 아동들은 주위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그림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너무 많은 그림보다는 2컷에서 4컷 사이로 그려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인터뷰 내용
  1. 우리 학교 교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 두발자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규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 어른들이 정한 규칙에 대한 생각
- 인터뷰 결과
  - : 교복은 성장기에 사이즈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
  - : 춥거나 더운 날씨에 교복 위에 자유롭게 사복을 입거나 체육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 : 과한 화장이나 염색이 아니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 같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어른들의 생각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10월 활동에서 어른의 시선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그림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인터뷰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 혹은 가족 인터뷰 경우 대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10월 활동에서는 인터뷰, 설문조사, 그림을 통해 어른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 전화인터뷰

Q. 교복, 화장, 두발 자유화에 찬성하나요?

A. 찬성합니다. 단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의하여 학생다움이라는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시나요?

A. 사람은 외모, 성격, 성향이 다 제각각인데, 하나의 잣대로 통일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학생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길이나 가게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파마와 염색을 하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A. 찬성의 이유에서 이미 언급하였는데, 학생다움이라는 기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친 색조 화장이나, 염색, 펌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화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A. 기초화장, 선블럭, 그리고 본인의 피부 트러블을 커버할 수 있는 화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색조 화장을 꼭 해야 한다면, 옅은 립, 눈썹 정도는 허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Q. 학교의 교복, 화장, 두발 자유화를 금지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해 자아를 알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면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것과 질서 사이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학생들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설문조사

1. 두발, 교복, 화장 등 자유로운 학생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자신의 자녀가 두발, 교복, 화장 등 자유를 원한다면?  
그리고 응답(찬성/반대)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3. 학교에서 규제하는 방침에 대해 아동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마지막 활동으로 권역별 주제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1회기(아동의 시선), 2회기(성인의 시선) 활동결과를 종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 패널 또는 홍보물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김세훈: 항상 인권 이야기가 나오면 나랑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되었고, 권역별 주제에 대해 우리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배예준: 학교에서 이론적인 내용만 배웠는데 이번 렌즈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동인권이라는 큰 내용이 나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율화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 왕준혁: 렌즈활동에서 학생들의 생각과 성인들의 생각을 설문지,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더 많은 의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른들과 직접 토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지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담당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일에는 학원을 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유린: 렌즈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아동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유리: 처음으로 인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인터뷰도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아직도 인권에 대해 궁금하고 모르는게 많이 있지만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는 체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정태석: 친구들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인권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고 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 지수연: 학교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렌즈 활동 너무 재미있었고 유익했습니다.
- 코디네이터: 박민수:
 

작년에는 LENS 활동에 코디네이터가 아닌 담당자로 참여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 활동에는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게 되어 새로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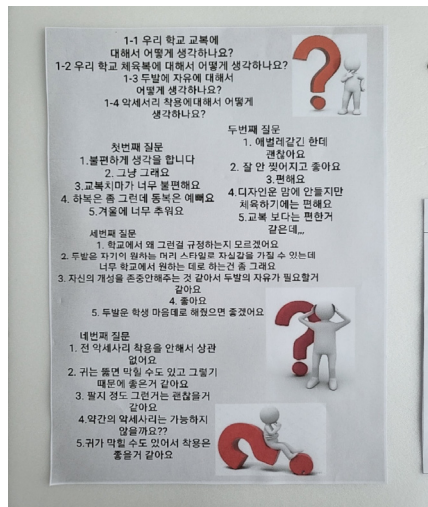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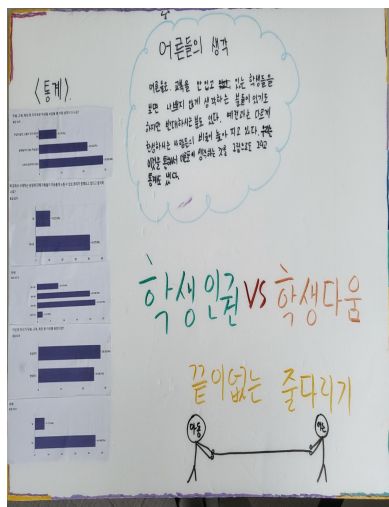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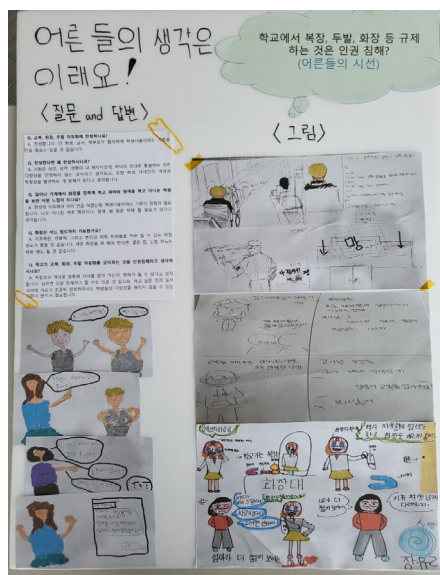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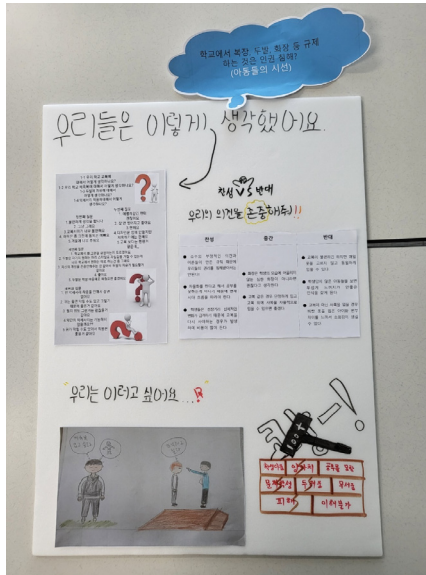
권역별로 자율 주제를 아동들이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아동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음. 활동에서 큰 주제는 하나지만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해서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방법을 선택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나 나왔다고 생각하였음.

아동들이 처음에는 보고서 작성을 많이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에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나가면서 아동인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음.

모두가 아동인권을 단순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활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변화를 통해 다른 인권침해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사업이 아동 스스로 인권에 대해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음.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활동결과 정리 및 판넬제작]



찬성	중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과 어른들이 만든 규칙 때문에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li> <li>● 자유권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대 흐름을 따라야 한다.</li> <li>● 학생들은 성장기라 신체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교복을 다시 사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은 학생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심한 화장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li> <li>● 교복 같은 경우 단정하게 입고 교복 뒤에 사복을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으면 좋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복이 불편하긴 하지만 매일 옷을 고르지 않고 동일하게 입을 수 있다.</li> <li>● 학생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식을 갖게 된다.</li> <li>●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을 경우 빈번 옷을 입은 아이와 빈번 지인을 느껴서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li> </ul>



### <질문 and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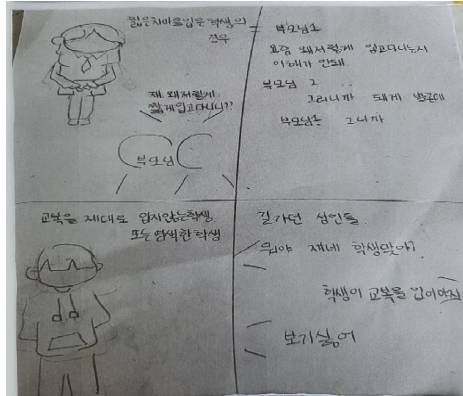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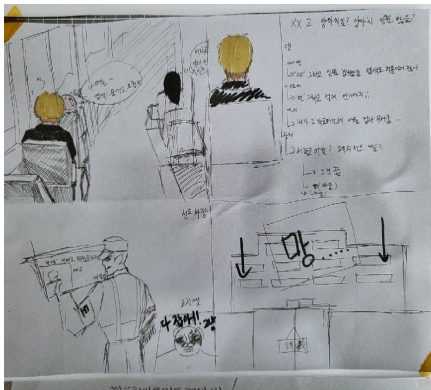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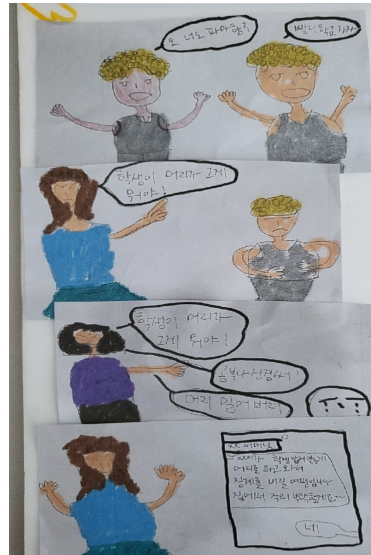
**Q. 교복, 화장, 두발 자유화에 찬성하시나요?**  
**A.** 찬성합니다. 단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의하여 학생다운이라는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시나요?**  
**A.** 시상은 외모, 성격, 성향이 다 제각각인데, 하나의 잣대로 통일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학생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길이나 가게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파마와 염색을 하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A.** 찬성의 이유에서 이미 언급 하였는데, 학생다운이라는 기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친 색조 화장이나, 염색, 펌 등은 자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화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A.** 기초화장, 선블럭, 그리고 본인의 피부 트러블을 커버 할 수 있는 화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색조 화장을 꼭 해야 한다면, 맑은 립, 눈썹 정도는 허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Q. 학교의 교복, 화장, 두발 자유화를 금지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해 자야를 알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면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것과 질서 사이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학생들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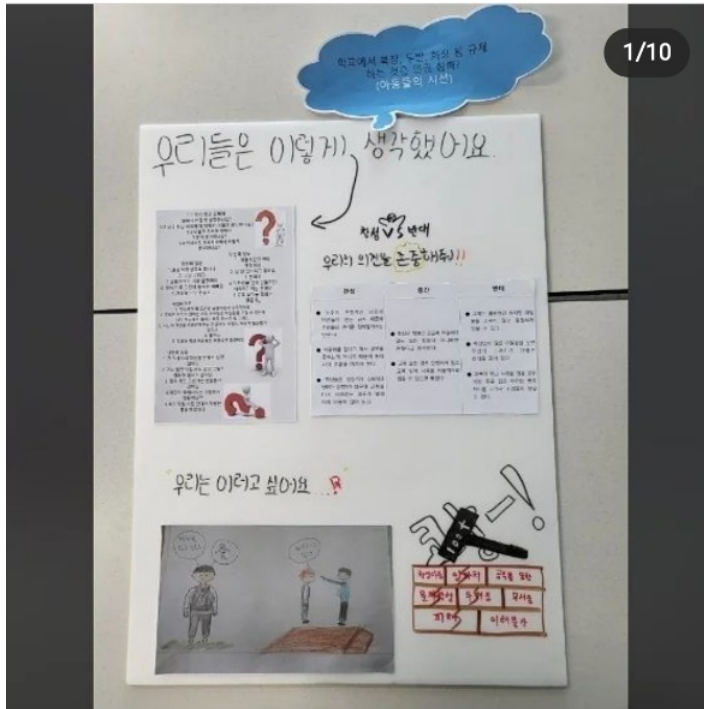




[판넬 제작 결과 인스타그램 공유]

← 게시물

shdvdghsh112



shdvdghsh112 #인권침해 #인권 #청소년 #아동 #아동인권 #두발자율화 #권리 #학생

7일 전



## 경기3 LENS

LENS	양준석, 조해빈, 추가영, 최고은, 박수현
코디 네이터	고현진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에 대해 세분화하여 이야기했음.

##### 1. 교과

- ✓ 수현 : 화상수업과 대면수업을 번갈아 하는 것이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  
-> 온클이 최대한 교육권을 보장했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음. 수현은 중립적인 입장임.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를 못가니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권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르친 것에 대해 이해를 해야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했다가, 대면수업을 하면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지나갈 수 있음.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이 부족했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 ✓ 해빈 :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과, 학교에서의 대면수업을 교차로 함에 있어서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았을까?

- ✓ 준석 : 온라인 수업의 한계 때문에 교육권이 침해받지는 않았는가?  
-> 온라인도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한계점이 발생했음. 격차도 생길 것 집중 및 몰입 등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학교를 받을 때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 가영 :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난이도의 변화(학습의 양)가 과연 아동에게 도움이 될까?

## 2. 정서

- ✓ 수현 :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아동들의 정서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서적 변화가 공부랑 관련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 변화들에 대한 것)
- ✓ 해빈 : 아동에 청소년들이 포함이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할 사교성과 예의 등을 배우는 것에 부족하지 않을까?
- ✓ 준석 : 아동이 원치 않는 지나친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가?
- ✓ 가영 :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 교육을 받고 있는 현 사태에서 사교육같은 경우에는 숙제양이 많은 학원도 있고,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0시간도 공부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 3. 자율활동

- ✓ 수현 : 코로나19시대 속 아동들은 아동들이 하고 싶은 자율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다면 아동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아동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사람들은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을 이야기 함, 중점 자율활동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이러한 측면도 생각해 보았음)
- ✓ 해빈 : 코로나시대로 학교에서 자율활동을 못할텐데 그 것을 대처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찾아서 하고 있는가? (-) 현 시점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함)
- ✓ 준석 : 자율활동을 막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 ✓ 가영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하고싶은 자율활동을 많이 못하는 중인지?

## 4. 사교육

- ✓ 수현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들이 받는 사교육의 양과 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 ✓ 수현 : (+ 교과) 아동들의 교육격차를 위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 ✓ 해빈 :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아서 교육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은 코로나 시대에서 성적 변화가 클까 크지 않을까?
  - ✓ 준석 : 아동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진정 원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정서와 비슷)
  - ✓ 가영 : 코로나19로 인한 사교육의 양의 변화는 어떠한지?
  - ✓ 고은 : 아동들이 수업을 하는 교재나 교구가 얼마나 아동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지?
  - ✓ 고은 :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무리하지 않게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 '적절하고 무리하지 않게'의 조사 방법은 선생님들 자체도 느낄 수 있고, 기한 촉박한 과제 등이 있다. 선생님 설문조사, 학생들의 의견 조사 등을 생각하였음.
- 경기3 권역 주제
- ✓ 고은 : 빈곤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기사 등을 통해 동반자살이라고 보도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먼저 아동을 죽이고,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것임),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동이 살해당하고 부모가 죽는 것임. 이것이 아동인권에 옳은 일인가? 동반자살이라는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  
 -> 인식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 인식 보도 댓글 등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캠페인 진행
  - ✓ 준석 : 온라인 보기 불편한 광고 등, 유튜브 등과 아동인권 침해  
 - 온라인 기사 광고  
 - 유튜브 성인 인증을 안 했음에도 볼 수 있는 유해한 영상 등  
 -> 연령대별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 ✓ 가영 : 학교에서 하는 화장 또는 염색 등 규제에 대한 것  
 - 초등학생까지는 그런 규제가 없는데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규제가 되고 있는데 염색 및 화장의 경우 성인에게는 자유로운데 중고등학생에게는 불법적으로 여겨지는 편견 등, 이러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주변 친구들 설문조사, 유튜브 댓글 등 참고해서 보고서에 넣는 것
  - ✓ 해빈 : 대한민국 아동들이 성에 관련된 모든 학대나 폭력에 대해 안전한가?  
 - n번방 등 법적인 처벌이 해외보다 약하다고 생각함. 한국은 아이들이 자라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 친구들에게 구글폼 설문조사, 네이버 기사 및 카페 댓글 확인하기

✓ 수현 : 아동노동력 착취

- 청소년 아르바이트

- 해외 강제 노동, 임금지불 안 함 등

-> 발생 현황을 기사 및 논문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발생 현황들을 해결하려고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민간단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 관련 홈페이지)를 하는 것. 아동노동력 착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 제시

### 주제 도출 경과

발대식 이전 권역별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떤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음. 각각 다양한 의견을 내었고 그 안에서 투표로 최종 주제가 결정됨.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온라인 기사,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정적인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선정적인 동영상도 성인인증 없이도 볼 수 있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을 증명하고, 이를 해결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음.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권역별 주제인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주변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한다.>**

- 메일을 보내기 위해 댓글 인식,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시간을 가짐.
- 설문조사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030 세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음.

#### 초등학생

- (1)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편함의 정도는? (1-10)
- (2) 하루에 부적절한 광고를 접하는 횟수는? (1-10)
- (3) 의도치 않은 유해한 광고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4) 유해 광고를 봤을 때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4) - 1 만약, 신고를 해보셨다면 그 신고가 효과적이었습니까? (1-10)
- (5) 광고와 내가 보려고 했던 내용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10)

- (6) 광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 (7) 광고를 보고 유해광고인지 아닌지 구분 할 수 있나요? (예/아니오)
- (8) 어떤 내용의 광고를 보았을 때 유해광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술)
- (9) 보기 불편한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서술)

### 중/고등학생

- (1)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쾌함의 정도는? (1-10)
- (2) 하루에 부적절한 광고를 접하는 횟수는? (1-10)
- (3) 의도치 않은 유해한 광고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4) 유해 광고를 봤을 때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4) - 1 만약, 신고를 해보셨다면 그 신고가 효과적이었습니까?
- (5) 광고와 내가 보려고 했던 내용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6) 유해광고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7) 부적절한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서술)
- (8) 유해광고가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아시나요? (예/아니오)
- (9) 유해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 (10) 유해 광고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방하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 2030세대

- (1)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쾌함의 정도는? (1-10)
- (2) 하루에 부적절한 광고를 접하는 횟수는? (1-10)
- (3) 의도치 않은 유해한 광고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4) 유해 광고를 봤을 때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4) - 1 만약, 신고를 해보셨다면 그 신고가 효과적이었습니까?
- (5) 광고와 내가 보려고 했던 내용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6) 유해광고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7) 유해광고가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예/아니오)

#### 40대 이상

- (1) 자녀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 (2)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쾌함의 정도는? (1-10)
- (3) 하루에 부적절한 광고를 접하는 횟수는? (1-10)
- (4) 의도치 않은 유해한 광고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5) 유해 광고를 봤을 때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5) - 1 만약, 신고를 해보셨다면 그 신고가 효과적이었습니까?
- (6) 광고와 내가 보려고 했던 내용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7) 유해광고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8) 자녀에게 유해한 영상이 노출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 (9) 자녀가 유해광고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 \*\* (9) - 1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서술형)
- \*\* (9) - 2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대답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교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아니오)
- \*\* 표시는 필수질문이 아닌 질문임.

- 댓글, 유튜브, 기사 등 설문조사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삽입하여 네이버 및 구글 폼에 연령대별로 설문조사 개설함.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경기 3권역입니다. 저희는 경기 3권역 주제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로 잡고 최종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 현재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오로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준비의 자료 및 최종 활동 보고서의 자료로만 사용되며, 그 외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LENS”는 실제 활동 연령층이 만 10 ~ 18세 아동으로 우리는 아동의 길을 걷고 있고, 걸어왔습니다. 더 많은 아동들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성실히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글 폼 활용하여 주변 지인 및 각종 커뮤니티에 배포하였음.
  - ✓ LENS 각자 SNS에 게시
  - ✓ 초등학생 : 지인 활용
  - ✓ 중고등학생 : 코디네이터 단톡방, 오늘학교 어플 이용, 각자 반톡방, 동아리톡방 활용
  - ✓ 2030세대 :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코디네이터 단톡방 활용
  - ✓ 40대 이상 : 부모님 친구분들 단톡방 활용
  
- 인식개선 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진행방식을 토의함.
  - ✓ 챌린지 형식, SNS 홍보 등 다른 홍보 SNS를 보며 구체적인 계획 필요함
  - ✓ 1회기 : 설문조사 정보 공개
  - ✓ 2회기 : 카드뉴스 제작
  - ✓ 3회기 : 직접 그린 포스터 게시
  - ✓ 4회기 : 이메일 발송
  - ✓ 5회기 : 최종 인식개선 설문조사 실시
  
- 발대식 때 진행한 바와 같이 메일을 보내기 위해 댓글 인식,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설문 문항을 만들었음.
  
- 댓글, 유튜브, 기사 등 설문조사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삽입하여 네이버 및 구글 폼에 연령대별로 설문조사 개설함.
  - 1) 초등학생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1kJHU8guhE8CYHCik0mObeOsLsC-DbYq5XTzYamYfoQIRg/viewform?usp=sf\\_li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1kJHU8guhE8CYHCik0mObeOsLsC-DbYq5XTzYamYfoQIRg/viewform?usp=sf_link)
  - 2) 중고등학생 : <https://forms.gle/m3eXYH87WhWnnzCB9>
  - 3) 2030 세대 : <https://forms.gle/f63HZJZB4yJDNbVz7>
  - 4) 40대 이상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Wk\\_b8J2Kt64gMgGC6cqbDsHLON7XSn5JhJi9MsL6BGD3vQ/viewform?usp=sf\\_li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Wk_b8J2Kt64gMgGC6cqbDsHLON7XSn5JhJi9MsL6BGD3vQ/viewform?usp=sf_link)
  
- 계획과 추가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의 큰 틀을 정했음.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권역별 주제인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설문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문헌적 자료를 정보공유하며, 인식개선 캠페인에 대해 논의한다.〉

-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들로 정리
  - ✓ 설문조사 내역 중 10점 척도로 나타낸 문항에 대해 원형차트로 시각적 자료로 정리하였음. 단원들 개인별 활동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에 삽입 될 예정.
  
- 주제에 대해 논문 등 문헌적 자료 조사
  - ✓ 양준석: 유현중, 김민철, 김운한. “온라인 광고의 유해성 개선과 “더 나은 광고” 실행에 관한 연구 : 광고주와 소비자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연구.129 (2021): 92-126.
    - 나쁜광고(우리 주제와 동일)에 대한 책임 소재 인식(현황 및 인식조사)
    - 공동 1순위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언론/매체사 (광고주-48.9% / 소비자-50.5%), 공동 2순위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기업(=광고주) (광고주-42% / 소비자-23.7)
    - 소비자 3순위 중간에 광고 게재를 제작, 대행해주는 회사(매체대행사/광고대행사) (광고주-2.2% / 소비자-10.6%), 소비자 4순위 규제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공공기관 (광고주-5.6% / 소비자-9%)
    - 광고주와 소비자 의견차이가 생긴 이유는 광고주는 대행사가 그저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소비자는 대행사가 만드는 이미지를 직접 보기 때문에 대행사도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임.
    - 광고주가 뽑은 책임소재 중 3순위 이하는 6%미만임.
    - 온라인 광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인식(해결방안 인식조사)
    - 1순위 국내 포털의 나쁜 광고 방지 관리를 위한 노력 (광고주-33.3% / 소비자-34.7%), 2순위 유해 언론사 광고 영업을 관리 제한하는 법과 제도 마련 (광고주-22.2% / 소비자-29.7%), 3순위 유해 언론사 퇴출 및 광고 제휴 중단을 위한 노력 (광고주-17.8% / 소비자-21.1%)
  - ✓ 추가영: 김봉철, 김유미, 안주아. “인터넷 상의 선정성 광고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3.3 (2019): 209-235.



- 우리나라의 인터넷 광고 규제는 이제 인터넷 광고 심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이며,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심의의 결과가 어떻게 추후 광고에 반영되었는지 결과가 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법적 규제인 타율규제에서도 선정성의 개념이 통일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선정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영상 혹은 이미지에 치우쳐 있음. 실제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제기되는 민원 중 90% 이상이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며, 이 중 상당수가 선정성 광고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박종호 2013).
-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보면, 총 3,550건의 심의 중에 저속·선정성 광고가 2,150건(6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과장광고가 878건(27.8%),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414건(11.7%)로 이들 3대 위반사항이 전체의 97.5%(3,442건)을 차지함.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유해광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약 시행세칙에서는, 음란성과 선정성을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음. 이 시행세칙 제15조에는 음란한 광고표현 금지내용이 있고, 제16조에는 선정적 광고표현 제한이 있음.
- 선정성 광고는 반여성적이고 반인간적인 이데올로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선행연구들(Brownmiller, 1975; Lederer, 1980)은 선정성 광고가 여성을 객체화하고 비인간화하며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요구에 대한 봉사자로서 묘사하고 여성의 성을 부인하며 여성의 성적 및 사회적 종속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 인터넷신문 48개 사,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심의를 시작. 인터넷신문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체계가 구축돼 있어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음. 선정적 광고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한국 인터넷 광고 자율 심의위원회 20조(성인광고)에서는 ①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전송매체에는 성인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인 광고물은 “로그인” 또는 “성인인증” 과정 등을 통해 성인에게만 노출하여야 한다. ③사실적이거나 자극적인 성행위 장면이 노출된 광고소재의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성인 광고물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갖추어야하며,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종료할 경우 연결된 인터넷홈페이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광고에 접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 관련 법규의 문제점]

1. 자율규제는 자체의 도덕적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며, 기준 등이 자율규제 기구별로 통일성이 없고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음.
2. 선정성 광고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 자율심의 결정이 어떻게 선정성 광고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자율심의 결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1. 선정성의 범위도 영상 혹은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와 연상 등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선정성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 있음.
  2.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인터넷 신문이 청소년 유해 선정적 광고 차단을 위한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성이 필요

✓ 최고은: 이희복, 신명희. “인터넷광고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89 (2011): 38-65.

-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총 302건의 선정성 광고를 수집조사한 결과, 모바일에서의 선정성 광고 57.6%(174건), PC에서의 선정성 광고 42.4%(128건)로 나타나, PC보다 모바일에 선정성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정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매체를 보면, 인터넷신문(일간지 및 스포츠신문) 47.3%(143건), SNS 42.1%(127건), 연예·오락 사이트 7.6%(23건) 등으로 나타났다.
- SNS 페이스북, 트위터의 경우 ‘19금’으로 검색하면 청소년유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노출, 성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이 확인되고, 성적대화, 교재, 만남 등의 내용이 전체 게시물의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문사, 스포츠신문 및 SNS의 경우 온라인 기사의 상·하좌우 및 팝업을 통해 선정성 광고가 노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웹툰 또는 만화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성기능 식 품·용품 판매 목적의 광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포털사이트에서는 선정성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성인사이트 및 성인제품 판매 사이트 유도를 위한 광고(9건)가 일부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선정성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체노출 38.8%(193건), 성적 언어와 성적 묘사 17.5%(87건), 성매매 홍보 내용 14.9%(74건), 성적욕구 자극 이미지 13.1%(65 건), 성행위 묘사 11.2%(56건) 및 성적욕구 자극 문자 4.0%(20건) 등으로 나타났음.
- 광고 내용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92.5%(284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인 것 4.5%(14건) 및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9%(9건) 등으로 조사됨.
-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관련 조사 결과, 현행 인터넷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남녀 일반인 500명 대상), 정부에서 선정성/유해성 광고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 불법/유해성 광고 사이트 처벌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8.6% 및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자율규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2% 순으로 나타남.
- 광고규제 개선내용으로는 인터넷 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5%, 선정성 광고 심의 및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및 기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인터넷 사이트 등록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5.7%로 나타남.
- 선정성/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선정성 광고의 노출정도를 감안할 때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58.6%, 자율규제가 인터넷 선정성/유해성 광고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0.8%로 나타나 자율규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규제의 개선방향으로 일정 기준에 따른 자율규제 필수요건을 통해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33.2%, 자율규제 세부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29.2%, 자율규제 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8% 등으로 나타남.
- 국회 토론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선정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자체적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거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통일성이 없고 애매 모호한 규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선정성 유해매체에 대한 부처 및 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주도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0.4%, 선정성 광고 관련 규제-정책이 부처 및 기구별로 여러 곳에 걸쳐져 있어 통합 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8.8%, 인터넷광고만을 규제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9.0% 등으로 나타남.

-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선정성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권고·주의·경고·기각 등 4개 단계 중 대부분 '주의'판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이 선정성 광고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대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선정적인 광고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선정적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 인터넷 신문 및 SNS의 선정성 광고 관련 심의규정 개선

- PC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반인은 물론 어린아·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신문사, SNS 등을 통해 선정적인 광고를 검색하고 있고, 청소년유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노출, 성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 성적 언어·성적 묘사 등의 선정적인 광고로 인해 어린아·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선정적인 광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정부에서 선정성 및 유해성 광고에 대한 규제와 처벌기준을 확대하고,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선정성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부처 및 기구에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 중복 등으로 규제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선정적인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삼진아웃제'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영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2에 따라, 일일 평균 이 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하도 록 되어있어,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신문이나 뉴스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이 있음.

4. 선정성 광고 개념 및 범위의 정립 필요

- 현행 선정성 개념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엄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되고 음란성 개념 과 도 구분이 필요하며, 자율규제 기구 간에 선정성 및 선정적 표현 등에 대해 개념 및 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음란·혐오·폭력·엽기 등의 개념이 '선정성'이라는 개념과 혼용되거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선정성 범위 또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선정성의 범위는 영상 혹은 이미지에 국한함이 없이 텍스트 및 언어적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실태조사 결과, 기사가 아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통한 선정성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며, 선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성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5. 선정성 광고 관련 법률 체계 개선

- 선정성 광고 관련 현행 법률이 소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중복 운영됨으로써 법규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이 야기되므로 관련 법조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정비 작업이 필요함.

✓ 조해빈 : 서정아, 김영희, 김서연.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연구 :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233.

1.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황]

초등학생의 성인물 이용률 증가, 19.6% - 33.8%

이동경로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21.6%), 포털사이트 (19.4%), 스마트폰 앱 (18.5%)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선방안]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실시해서 유해매체 상시 점검, 위기 청소년 지원,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2.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형법 제 243조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 형법적 제재를 가하고, ‘성인용’ 정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성인용’으로 분류하고 성인용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매체, 특히 인터넷에 대한 국가적 규제는 크게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인식개선 캠페인 준비

✓ 양준석: SNS를 활용한 2회기 캠페인, 1회기는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심각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댓글을 포함하여 2회기에는 댓글, 설문조사 결과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에게 경기3권역이 대표하여 메일을 보내고 추후 결과보고 카드뉴스를 제작함.

- ✓ 최고은: SNS를 활용한 캠페인, 1회기 항목별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게시하고, 2회기 문헌자료 공유, 3회기 우리의 생각 올리기, 4회기 모든 생각을 합쳐 관련자에게 경기3권역이 대표하여 메일을 보내고 추후 결과보고 카드뉴스를 제작함.
  - ✓ 추가영: SNS를 활용한 캠페인, 1회기,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 망고보드&미리캠버스 활용하여 제작, 2회기에 SNS를 활용하여 홍보, 3회기 카드뉴스를 인쇄하여 각 학교에 부착함.
  - ✓ 조해빈: SNS를 활용한 캠페인, 1회기, 카드뉴스, 2회기, 카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모아서 추리기, 3회기 관련자에게 경기3권역이 대표하여 메일을 보내고 추후 결과보고 카드뉴스를 제작함.
    - > 최종적으로 SNS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1회기에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태를 공유, 2회기에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식 공유, 3회기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메일 발송 공유로 총 3회기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함.
-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들로 정리
    - ✓ 각자 담당 연령 시각자료로 구성하였음. 개인별 보고서에 첨부.
  - 주제에 대해 논문 등 문헌적 자료 조사
    - ✓ 주제에 관련된 논문 및 기사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자료가 많아 경기3권역의 주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느꼈음.
  - 인식개선 캠페인 준비
    - ✓ 최종적으로 SNS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1회기에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태를 공유, 2회기에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식 공유, 3회기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메일 발송 공유로 총 3회기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함.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메일 발송
- 인식개선 캠페인
  - ✓ SNS를 활용한 캠페인
  - ✓ 1회기: 문헌조사 실태 공유 (담당자 : 박수현, 양준석)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단 LENS 경기3권역 단원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카드뉴스도 기대해주세요!

#아동 #인권 #침해 #LENS #경기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언론사 # 유해매체 #인권침해

- ✓ 2회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식 공유 (담당자 : 조해빈, 최고은, 추가영)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단 LENS 경기3권역 단원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식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030세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중고등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카드뉴스도 기대해주세요!

- ✓ 3회기: 메일 발송 공유 (담당자 : 전체)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경기3권역 단원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적 자료조사,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양한 곳에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로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결과보고 준비

✓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1) 우리의 주제 + 8월 활동

2) 9,10월 우리가 한 활동 ->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 결과는 이랬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다음의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활동에는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식으로 활동과 활동 사이의 유기성 강조 및 활동의 결과에 초점.)

3) 우리가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와 깨달음. -> 설문조사 결과 필수 제시 및 캠페인, 메일보낸 것 다 보여주기. + 설명. -> 왜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 --> 저희 그 메일 답 온것도 있으면 적기

4) 10월 활동 +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 활동을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 명시

5) 우리가 예상한 결과들과 실제 결과들을 비교하는 표 제작

우리가 예상한 결과들과 실제 결과들이 달랐던 이유 분석 및 대체 방안제시

6) 활동을 하며 깨달은 아동 인권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생각 제시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박수현: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디스패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Lens' 단원들입니다. 귀하의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에 관해 건의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귀하의 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저희는 여가생활,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 중 수업시간에 귀사의 영상을 보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수업도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아동들이 귀하의 페이지를 사용하려고 접속할 때 나이가 어린 이용자에게 부적합한 유해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귀사의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광고 노출 시 사용자의 나이에 맞게 노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유해광고란 아동들에게 해로운 광고들을 말하고, 이 예시로는 선정성 높은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아동 이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노출하는 것은 아동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귀사가 저희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아동 권리를 지켜주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We are 'LENS' as members of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 We are writing to suggest about advertisements exposed on your page. First of all,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use your page for free.



Your page is free of charge, so we are receiving help in various fields such as studying. In fact, there are classes where students watch videos that are posted on your page and discuss about them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harmful advertisements have frequently appeared that are inappropriate for young users when children access your page. I understand your company's situation that you have no choice but to make profits through advertising, but we suggest that you should expose advertisements according to user's age. Harmful advertisements that we are talking about mean advertisements that are harmful to children, and for example, sensational advertisements are typical. Exposure of advertisements that are not suitable for child users is an infringement of children's rights. Please take the lead i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by accepting our feedback. Thank you.

您好!我们韩国儿童团体协会'LENS'成员们。我们发邮件想对您页面显示的广告提出建议。

首先,感谢你们允许免费使用您的页面。可免费使用你们的页面,我们在业余生活、学习等多个领域都得到帮助。实际上,在韩国高中课程中,上课时间也会看贵公司的视频,和学生们讨论。只是,最近儿童登陆你们页面时,经常出现不适合年龄小的用户的有害广告。我们非常理解贵公司只能通过广告获得收益的情况,但建议在广告曝光时,根据用户的年龄进行曝光。我们说的有害广告是指对儿童有害的广告,例如煽情性高的广告。曝光不适合儿童用户的广告是侵害儿童权利的行为。希望贵公司能接受我们的反馈,带头维护儿童权利。谢谢。

• 추가영: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1.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 광고들의 근황

노출이 있는 게임광고, 추상적으로 성을 연상케하는 게임광고나 성인 웹툰 광고 등등 배너광고 또는 기사를 접할 때 성인 웹툰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음.

2. 이러한 광고를 성인들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도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는지와 청소년들이 이로 인해 볼 수 있는 피해를 정리, 알림.

- 우리가 구글폼으로 조사한 결과를 첨부함.

- 광고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서술한 유해광고의 기준과 실제로 접한 광고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림.

- 기사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고의 유해성을 알림.

- 우리가 조사한 논문 자료들 중 일부를 첨부하여 소개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림.
-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광고를 접함으로써 모방심리를 품을 수 있음을 알림.

### 3. 개선점

- 광고 승인을 할 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보여줘도 되는 광고인지 판단 후 연령대별 처리나 규제를 해주기를 바람.

#### 1) 네이버

- 현재 네이버 배너 광고, 네이버 뉴스 광고들의 현황: 노출이 있는 게임광고, 추상적으로 성을 연상케하는 게임광고나 성인 웹툰 광고 특히 성인웹툰 광고가 심함. 어떤 배너광고가 눈에 보이는지 예시본을 첨부해서 보냄.

#### 2) 구글

- 구글 사이트와 유튜브 광고들의 현황: 노출과 성을 연상케하는 게임광고가 주로 눈에 띄고 있음. 특히 유튜브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또한 매우 자주 접하고 있음.

#### 3) 페이스북

-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광고 사례를 첨부해서 보냄.

#### • 양준석: 유튜브, 인터넷신문위원회, 여성가족부

코로나 사태 이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한 만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선정적이고 나이에 맞지 않은 유해한 광고를 접하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3.8%로 2018년 이후로 14.2%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선정적인 광고에 나온 행위를 따라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설문에서 유해한 광고를 신고한 사례는 27건이 있었으며 신고에 효과를 본 응답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개인의 신고로는 청소년과 유해광고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 조해빈: 구글, 유튜브, 네이버

1. 아동인권모니터링단 소속
  2.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심각성을 알리기
  3. 그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구글 폼 보여주기, 유해매체 신고를 해도 잘 안 먹힌다는 것도 쓰기.
- 구글 폼 그래프 정리한 것.

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매체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것이 안 좋으며, 신고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부탁한다.

- 최고은: 유튜브, 페이스북, 봉봉(심리테스트 사이트)

(공통) 안녕하세요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LENS입니다. 귀하의 사이트에 건의를 하기 위해 메일 보냅니다. PC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신문사, SNS 등을 통해 선정적인 광고를 검색하고 있고, 청소년유해등급 4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노출, 성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 성적 언어·성적 묘사 등의 선정적인 광고로 인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메일 보냅니다.

#### 1. 유튜브

최근 유튜브 어린이 채널에도 광고 영상이 유해한지에 대한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도한 유해성은 어느정도 걸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 채널에서도 이런 문제가 번번히 발생하지만, 아동들이 어린이 채널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임 리뷰 혹은 젤리 사탕 먹방등은 선정적인 광고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을 성적대상화한 광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들의 성적 인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2. 페이스북

귀하의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선정적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금'으로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노출, 성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이 확인되고, 성적대화, 교재, 만남 등의 내 용이 전체 게시물의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3. 봉봉

귀하의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선정적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선정성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체노출, 성적 언어와 성적 묘사, 성매매 홍보 내용, 성적욕구 자극 이미지, 성행위 묘사 및 성적욕구 자극 문자 등으로 나타났 으며, 광고 내용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인 것 및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심리테스트 사이트에 매우 부적합한 광고라고 판단됩니다.

(공통) 따라서 선정적 광고 등 유해한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아동들이 많이 들어가는 채널에 대한 귀하의 사이트 내에서의 규제와 광고 검토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양준석: 내가 제시한 주제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주제를 제시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활동을 하며 알게 되었다.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알게 된 실황은 유해광고가 많은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처럼 보였다. 이번 활동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와 같은 활동이 쌓여나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 추가영: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해광고’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과정들이 소중한 이와 관련한 인권에 대해 많이 배워갔던 시간이었다.
- 박수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 좋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활동이 비슷하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좀 더 적응한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 해주신 것이 참 감사했고 가끔 이상한 의견을 내더라도 격려해주는 모습에 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LENS단원으로서 올해가 2번째 활동이었고 마지막 활동기간이었는데 아쉬움도 많이 남고 후련하기도 합니다. 넘치는 학교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보고서를 제 때에 맞춰 제출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 잠도 못자며 활동했지만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항상 LENS 와 함께였기에 더욱 애뜻합니다. 모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그 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고은: 7월이 거의 끝나갈 때 처음 발대식을 했던 것 같은데, 매달 한 번씩 줌으로 만났더니 금방 끝나버리게 믿기지 않는다. 공통 주제와 권역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었고, 회의를 통해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결국 마지막 회의까지 온라인으로 하게되어 아쉽긴하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많은걸 배운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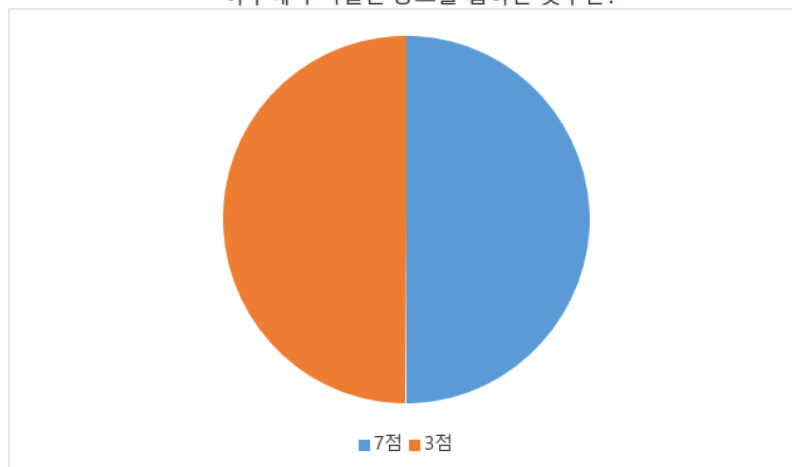
- 조해빈: 아동인권을 위해 고민하고 회의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설문조사를 한 게 처음이라서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고 뜻깊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새로운 친구들과 모여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더 친해지지 못해서 살짝 아쉽다. 또 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길어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 코디네이터 고현진: 대학교에서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며, 최종적으로 아동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코디네이터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단원들을 보지 못하고 활동이 끝난 것이 참 아쉽지만 실제 아동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권리는 아동이 직접 목소리 낼 수 있는 데에 이바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설문조사]

- 초등학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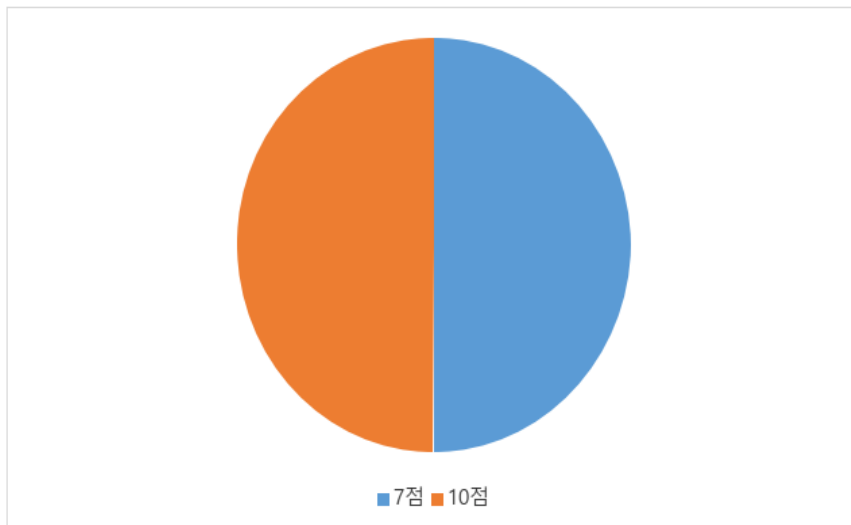
하루에 부적절한 광고를 접하는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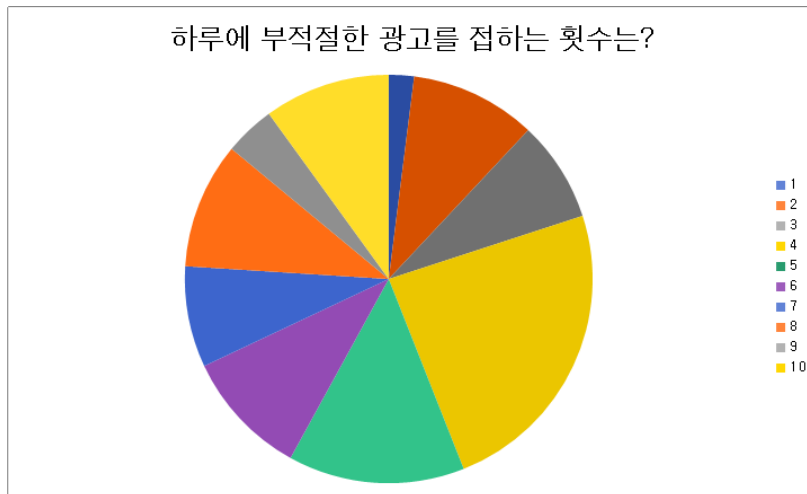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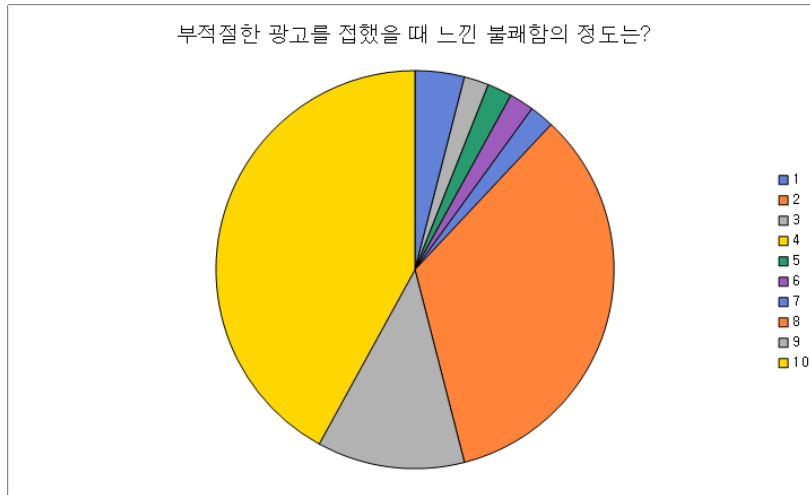
광고와 내가 보려고 했던 내용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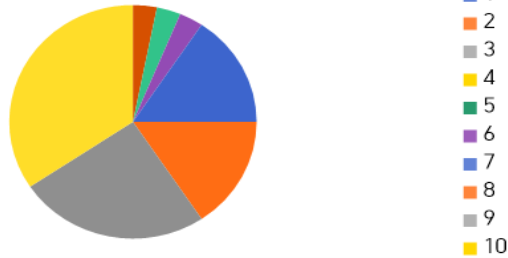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쾌함의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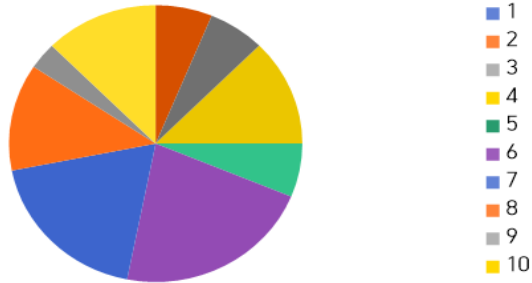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 대상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끼는 불쾌함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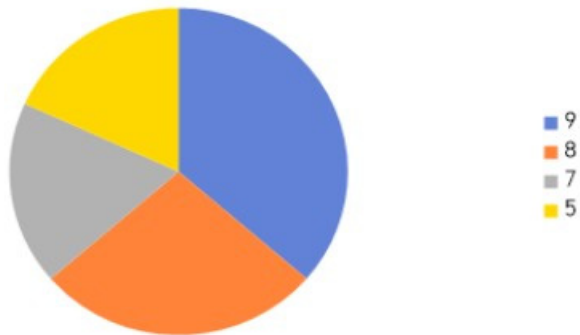


부적절한 광고를 접하는 정도



- 40대 이상 대상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쾌함의 정도 어느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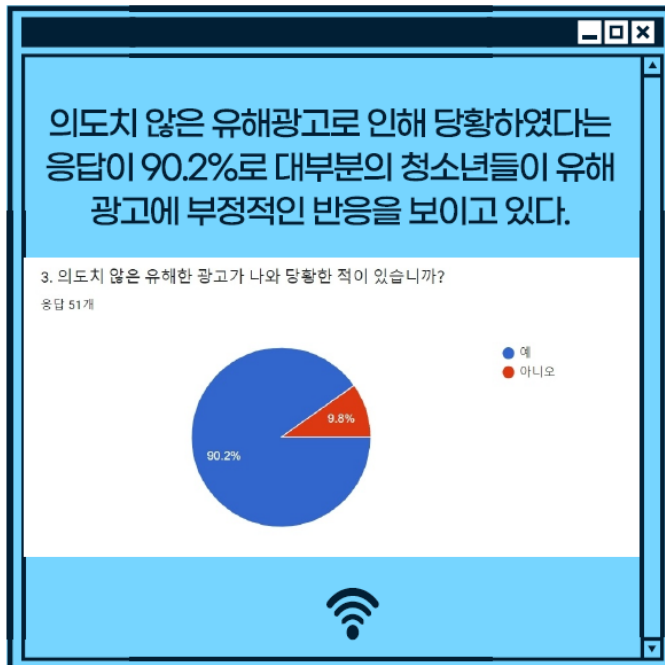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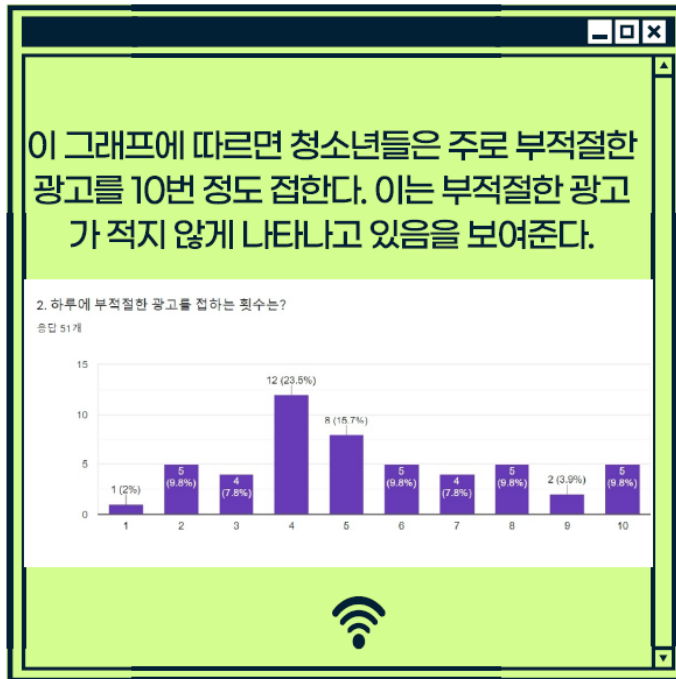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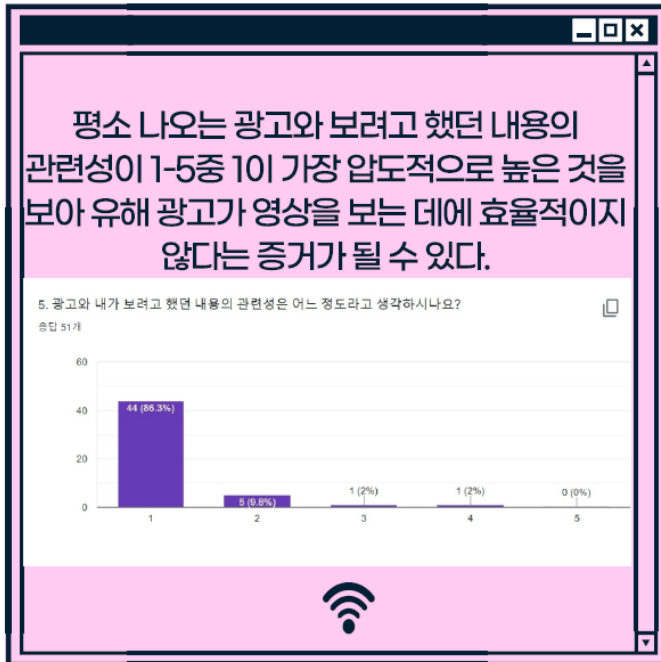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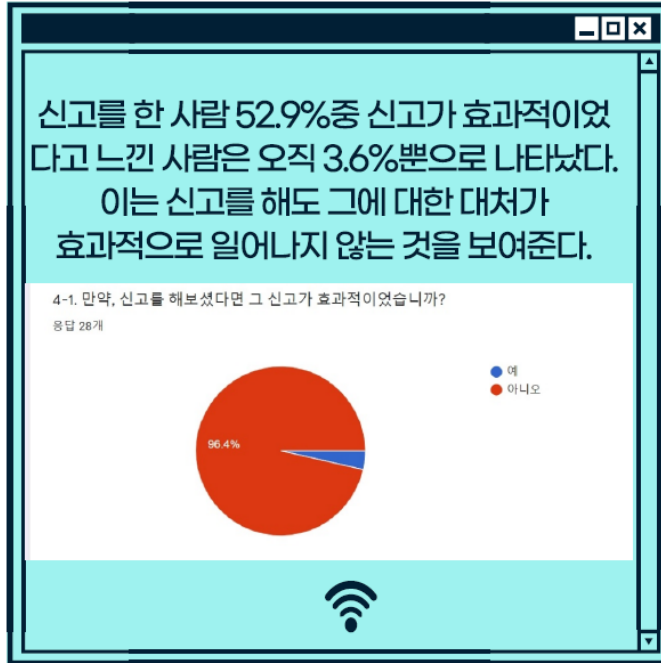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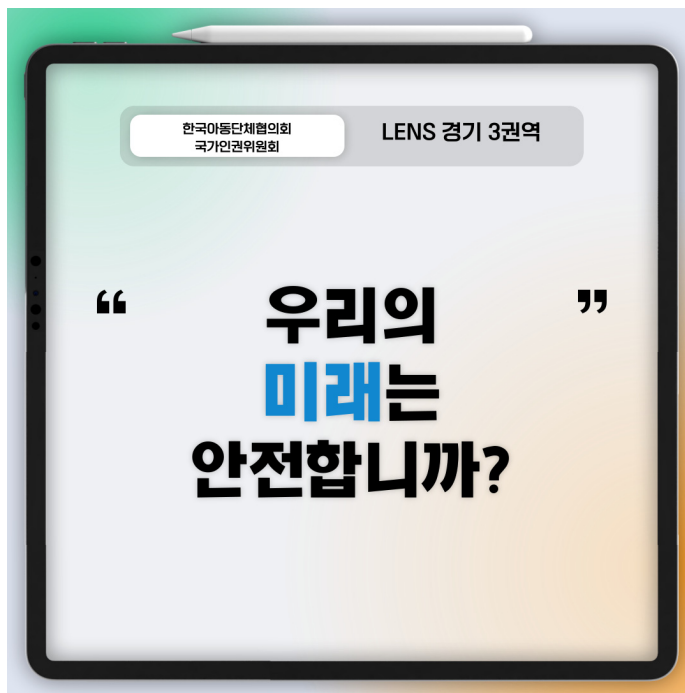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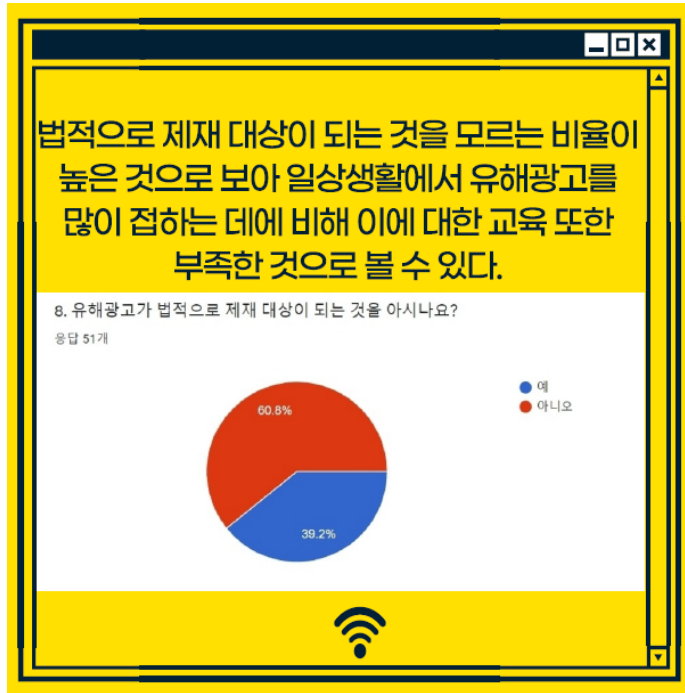
[카드뉴스]

## 2021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경기 3권역 설문조사 결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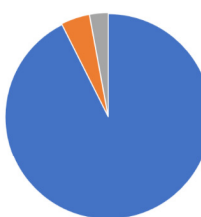


유해광고      문헌적자료조사

# “ 유해광고와 청소년 ”

**출처** 김봉철, 김유미, 안주아, "인터넷 상의 선정성 광고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43,3 (2019): 209-235.  
 이희복, 신명희, "인터넷광고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89 (2011): 38-65.  
 "Raffaello Rossi , Agnes Nairn , Josh Smith, and Christopher Inskip: Get a £10 Free Bet EveryWeek!" Gambling Advertising on Twitter:Volume, Content, Followers, Engagementand Regulatory Compliance

01      현황 1: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 청소년에게 심각한 육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 청소년의 건강한 성격과 시문에서 함성을 자책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광범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대다수의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02

현황 2: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 심의 결과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결과는  
총 3,550건 중 선정적인 광고는 2,150건으로 60%를 차지했다.

03

현황 3: 영국 청소년



89만 개의 광고들을 분석한 결과 약 4만1천명의 영국 아이들은  
트위터 도박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도박 광고의 2/3가 규정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 않았다.

04 처벌 현황



현재 관련 규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권고, 주의, 경고, 기각 4단계 중  
대부분 주의판결에 그친다.

## 경기4 LENS

LENS	강가온, 김우주박, 김정빈, 손세령
코디 네이터	한희경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필요성

### 3개월간의 발자취

Step1. 발대식
1. 회의 일시 : 2021.08.07.
2. 회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ZOOM 이용
3. 회의 참석자 : 강가온, 김우주박, 김정빈, 손세령
4.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모니터링 사업 소개</li><li>2) 아동 인권 교육 영상 시청</li><li>3) 공통주제 관련 논의</li><li>5) 권역 주제 및 방식 논의 : '자유학년제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으로 선정</li><li>6) 활동에 대한 규칙 설정</li></ul>



### 주제 도출 경과

- 자유학년제, 학교 내 차별(성차별, 성적 차별 등), 아동에게 유해한 미디어 속 담배 노출, 가정 내 아동학대, 아동의 체력(체육 교과목의 필요성 등), 사교육 실태조사, 독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조사 등 총 7개의 주제 후보가 팀원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익명투표를 통해 자유학년제를 주제로 선정하였음.
- 자유학년제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정책으로 팀원들의 나이대를 고려해 볼 때 팀원들과 가장 밀접한 주제였기 때문에 다수의 투표수를 받아 주제로 선정되었음.
-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에게 여러 체험과 경험들을 제공하여 학업을 넘어서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선택지를 확대시켜주는 데에 의의가 있는 정책임. 하지만 해당 주제를 발표한 팀원은 주제를 설명하며 자유학기제에 시행되는 체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본인의 경험담을 제시함.
- 학생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고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룸.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09.02.
  2. 회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ZOOM 이용
  3. 회의 참석자 : 강가온, 김우주박, 손세령
  4. 회의 및 활동 내용
    - 1) 다음 달 활동의 구체적인 방향 논의
      - 9월에 계획되었던 또래 인터뷰를 교육 종사자 인터뷰 진행으로 변경
    - 2) 활동 내용
      - 실태조사와 또래 인터뷰를 통한 자유학년제 현황 조사
- (1) 또래 인터뷰 속 자유 학년제
- ①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직업들을 접할 기회가 생김
  - ②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가 없어짐

- ③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기획 시 학생 의견과 흥미 반영 필요
- ④ 무시험인 자유학년제와 자유학년제가 끝난 후 시험을 위한 학업 학년의 괴리감이 너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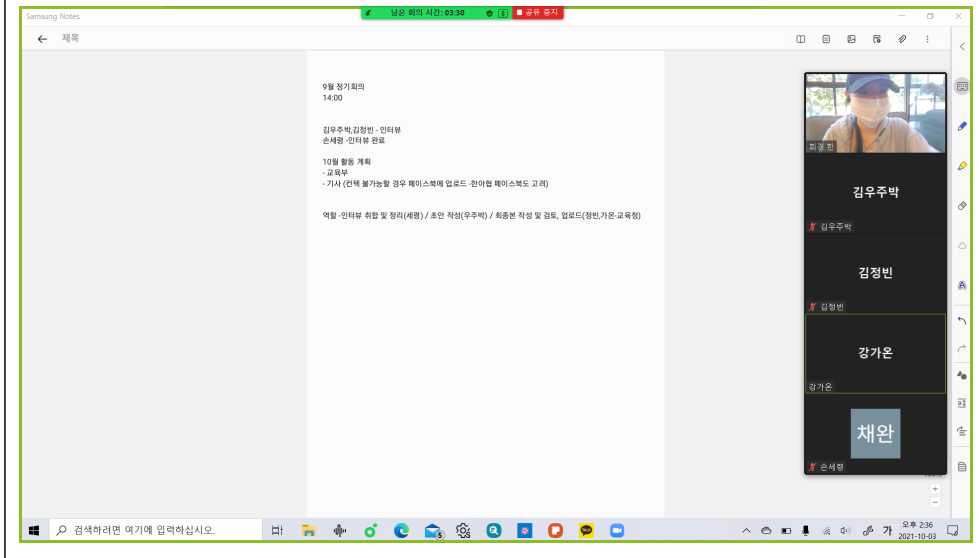
(2) 기사 및 연구 속 자유학년제

- ① 학교 간 프로그램 격차 극복 방안 논의 필요 (학생들 간 경험의 질 차이가 생김)
- ② 프로그램 간 인기도 차이에 의해서도 학생들 간 경험의 차이가 생김. 인기가 많은 수업을 모두가 들을 수 없기 때문. (학년 시작 전 미리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와 흥미 조사 등 통해 최대한 학생의 의견에 맞는 수업들을 계획하는 등 해결 방안 논의 필요)
- ③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 결국 다시 시험을 위한 학업이 시작되는데 학업으로 부터 자유로웠던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부에 소홀해지고 학력 저하로 연결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필요
- ④ 이 문제점에 대해 세종시에서 나다움성장교육과정이 논의되었음.  
중학교(학생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적 학습위주) 1학년 자유학년, 2학년 학습.탐구집중학년, 3학년 진로집중학년 >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10.03.
2. 회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ZOOM 이용
3. 회의 참석자 : 강가운, 김우주박, 김정빈, 손세령
4. 회의 및 활동 내용
  - 1) 다음 달 활동의 구체적인 방향 논의
    - 실태조사와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 민원 작성 및 기사 작성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
  - 2) 활동 내용 및 중간 변경 사항
    - 학교 선생님 외의 다양한 교육 종사자를 섭외 했지만 학생들과 종사자들의 일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였음
    - 일부 교육 종사자 인터뷰를 부모님 인터뷰로 변경 하였음
    - 인터뷰에서 언급된 개선 방향들
      - ① 자유학년제를 계속 진행하되, 자유학년제와 시험 실시 학년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자유학년제 기간에도 간단한 형성평가를 진행.
      - ② 자유학년제 실행 과목을 늘려, 교사간 실력 차이를 줄이기.

③ 활동의 질 개편이 필요함.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일정상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
2. 회의 방식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용
3. 회의 참석자 : 강가은, 김우주박, 김정빈, 손세령
4. 회의 및 활동 내용
  - 1) 마지막 활동 진행 사항 공유
    - 팀원들의 일정 문제로 인해 활동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음 (기사 작성 및 투고 )
    - 기사 작성 후 반 게시판에 게시
    - 민원 글 피드백 및 활동 방법 논의
  - 2) 활동 내용
    - (1) 실시한 인터뷰들 취합, 요약 및 정리
    - (2) 실태조사와 취합 인터뷰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 민원 작성
    - (3) 실태조사와 취합 인터뷰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글 작성 후 반 게시판에 게시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권역별 주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필요성
  - ✓ 학교마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들마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 학교 선생님들 간에도 합의와 개선 의지가 요구된다.
  - ✓ 시험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년과 아닌 학년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유학년제 2학기정도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건의한다.
  - ✓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 ✓ 학교 선생님이 아닌 전문 진로교사에 의한 진로탐색이 반드시 요구된다.
  - ✓ 자유학년제의 실행과목을 늘려 한명의 교사가 소수의 인원만 개별지도 함으로써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강가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동안 재밌는 활동과 보람찬 내용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끼리도 얘기하는 경험을 느껴 즐거웠습니다.
- 김우주박: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 종사자 학생 학부모 등 여러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김정빈: 모니터링을 처음 해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특히 나도 경험해 본 자유학년제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매우 재미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자유학년제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 손세령: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한 활동을 한다는 게 의미 깊었고 아동 인권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보고서 쓰는 시간도 너무 좋고 부듯한 감정도 들어서 나중에도 하고 싶습니다.

- 코디네이터 한희경: 이전까지 참여했던 아동을 위한 활동에서는 이미 정해진 주제에 맞춰서 활동을 해왔는데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활동은 참여 아동들이 주제부터 시작해서 활동의 진행 방향까지 직접 주도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동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동의 권리를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고, 너무 짧았던 활동 기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교육부 민원글 작성]

#####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자유학년제 질 상황에 관한 내용

**내용** 자유학년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정부는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공교육 내에서 찾겠다는 취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청소년 성장 단계를 고려 하였을 때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갖기엔 중학교 단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중학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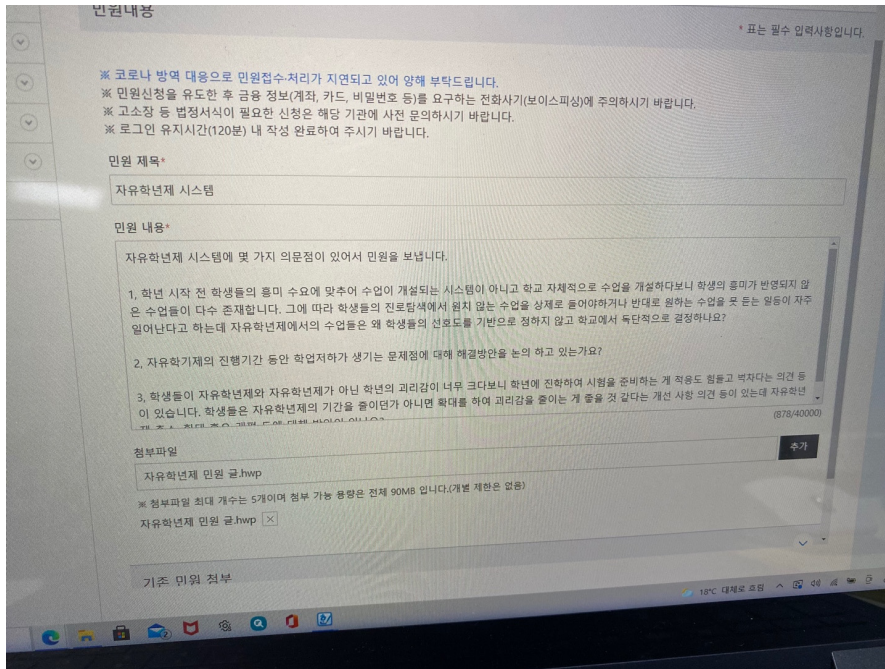
하지만 학생들은 현재 자유학년제 활동에 대해 조금씩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듣는 교육들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또한 지금 자유학년제에 활동이 오히려 시간 아깝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 진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아쉬운 의견을 토로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겪었던 중학교 3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본 결과 10명중 1명은 긍정적이었고 3명은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으며 남은 6명은 부정적이거나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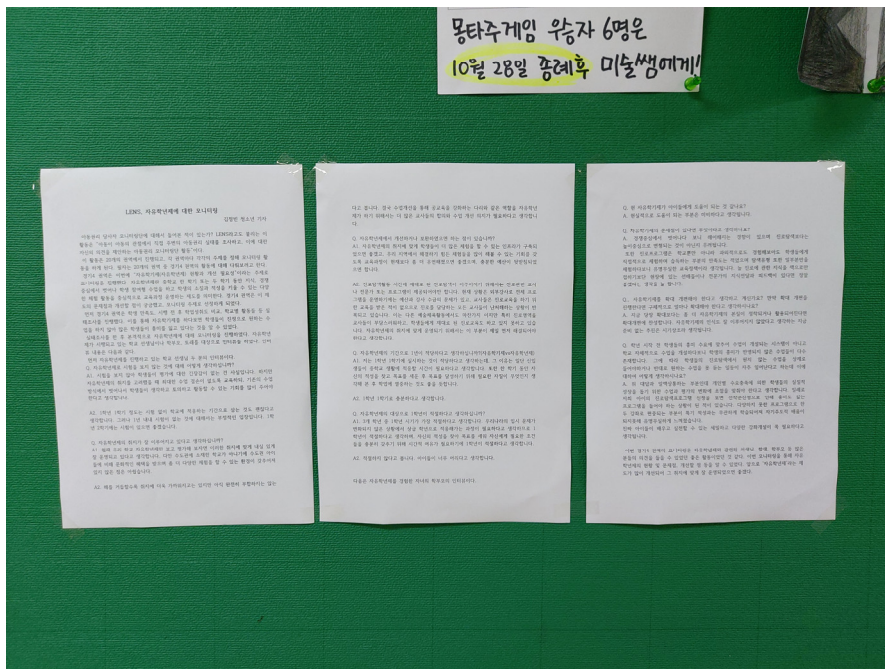
그리고 자세한 인터뷰 결과 아쉬운 점은 활동 기간인 1년동안 실질적인 활동의 질이나 내용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많았고 활동들이 대중적인 직업이 아닌 조금 거리가 먼 직업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크게 고민되는 내용이 아니다 등 너무 먼 내용이나, 아쉬운 활동이라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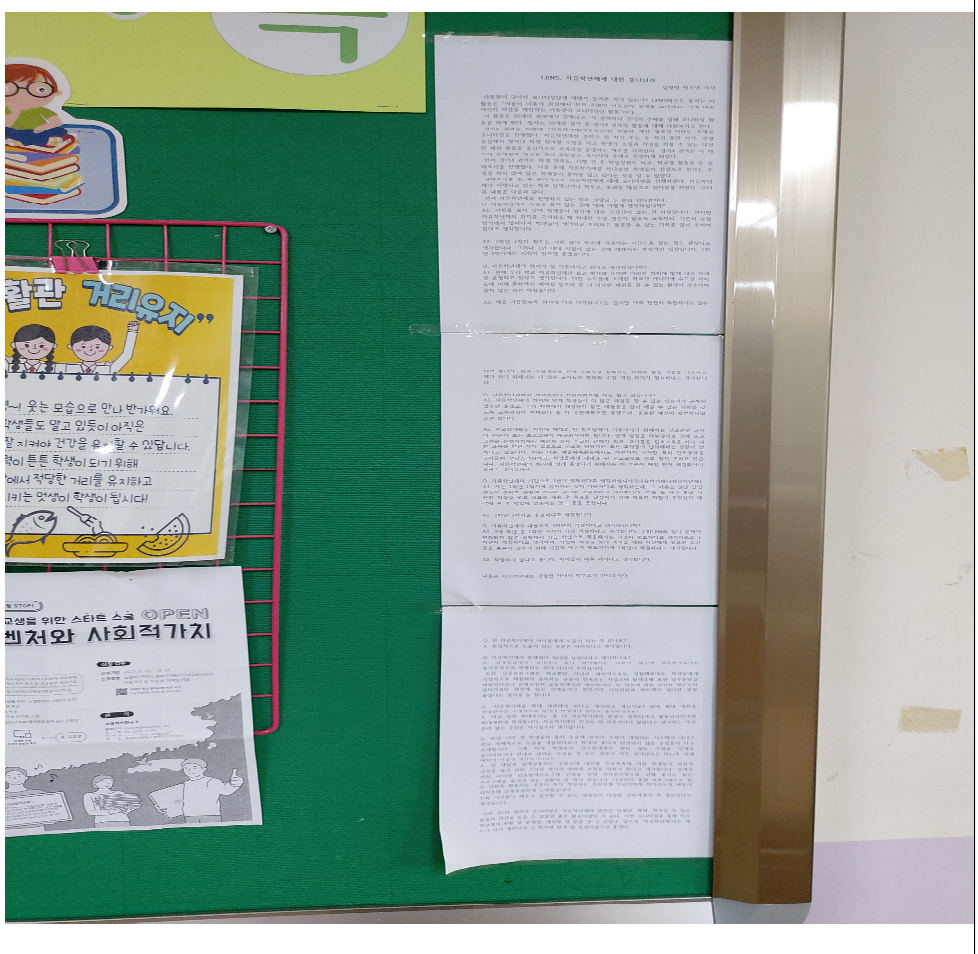
그러므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학년제의 활동 빈도와 활동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파일



[기사 작성 후 반 게시판에 활동결과 게시]





## 전북 LENS

LENS	채지우, 장서연, 최유민, 주아진, 이소애, 한성은, 김지인, 최봄
코디 네이터	김지유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와 흡연예방 및 해결방안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등하교 길에 스쿨버스 존 및 골목 등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무서운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음. 평소에는 그냥 피해갔지만 이번활동을 통해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왜 피우는지, 옆을 지나가며 맡는 간접흡연이 얼마나 나쁜지 제대로 알고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해보려고 계획함.

구분	활동 기간	내용
계획	8월	- 권역별 주제에 대한 통계, 뉴스, 기사 등의 자료조사 및 실태파악
	9월	-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QR을 통한 주변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
	10월	- 8월, 9월 활동결과를 취합하여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간접흡연의 영향,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해결방안·관련 기관 등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구분	활동 기간	내용
조사 대상 및 방법	8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활용한 청소년 흡연율, 흡연이유, 흡연이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조사</li> <li>- 주변 청소년 또는 어른대상 흡연자에게 언제부터 흡연을 했는지, 흡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터뷰</li> <li>- 금연 및 흡연예방 방법 및 관련기관, 상담기관, 약물도움 등에 대한 조사</li> <li>- 주변 청소년에게 조사할 설문문항 선정 및 QR을 통한 의견취합</li> <li>- 10월 캠페인 진행</li> </ul>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8월 활동- 자료조사
  -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아동인권교육 실시 및 공통 주제, 권역주제를 정하고 활동내용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회의진행.
  - 발대식 후 권역주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며 아동청소년 스스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며 자료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과 느낀 점에 대한 소감을 나눔.
- 9월 활동 때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주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흡연의 이유와 경로, 금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정하고 QR을 통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로함.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8월 활동- 자료조사 결과에 따른 인근 아동청소년의 솔직한 얘기를 듣기위한 QR설문을 작성하여 홍보포스터를 제작함. QR설문의 내용으로는 성별, 나이, 흡연을 한 기간과 흡연을 하게 된 이유, 주변의 누구에게 권유를 받았는지, 금연을 하고자 생각하거나 노력한 방식, 금연을 위한 기관과 상담전화 등에 대해 알고있는지, 흡연을 하지 않는 친구의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와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권유를 받았음에도 흡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문항을 만들었음.

- 10월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와 흡연예방 또는 금연을 위한 노력 등의 자료를 모아보기로 함.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익명으로 조사를 하기로 하고 QR을 활용한 홍보포스터는 학교인근 골목과 아동청소년이 흡연하는 것을 본 장소 곳곳에 부착하여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함.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준비한 캠페인 물품을 활용해 인근 중,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캠페인을 진행함. 고등학교는 시험기간이어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를 해주진 못했지만, 해당 여자중학교와 남자중학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음.
  1. 흡연에 대한 생각과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
  2. 주변 친구가 흡연을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3. 흡연을 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4. 금연을 위한 방법과 다양한 상담기관들에 대한 소개
  5. 건강한 폐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함.
- 캠페인결과 흡연이 안 좋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 사전에 홍보한 QR설문에는 흡연자가 참여해주지 않아서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흡연을 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캠페인을 할 때 많은 청소년이 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며 담배를 끊자고 권유 해주었음. 대체적으로 ‘노담’, ‘같이 건강해지자’, ‘지금 흡연하면 빨리 늙는다’, ‘널 오래오래 보고싶다 친구야’ 등의 내용이 많았음. 캠페인을 마무리할 때 까지도 많은 청소년이 주변에서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음.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공통주제
  - ✓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 학생들은 여전히 바뀌는 교육과정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며 성적과 생기부, 대학진학에 더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느낌이 강함.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음. 미리 시범사업처럼 적응기간을 주거나 실제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주입식 교육이 아닌 외국처럼 토론토의 방식의 수업이나 경험과 체험의 활동으로서의 교육과정도입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음! 현재 중학교 1학년은 2학년 3학년과 다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같은 학교 아래서 느껴지는 느낌은 또 차이가 있음.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시험도 안보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지원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굳이 체험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느낌임.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경험과 생각을 넓힐 수 있는 활동보다는 과목의 한 과정으로서의 가르침을 위한, 또는 보호를 위한 학교라는 공간 안에 학생들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더 야외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권역별 주제: 아동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와 흡연예방 및 해결방안
  - ✓ 청소년이 다양한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 생김새와 냄새로는 티가 나지 않아서 단속이 필요함. 금연교육을 더 자주하고, 주변 친구들이 서로 '노담'할 수 있게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음.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이소애: 8~10월 봉사동아리를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은 전체적으로 매우 부뒸했다. 우선 몰랐던 아동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알고난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활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항상 밥도 사주셔서 배도 고프지 않았고 마지막 10월 달에 활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기분이 부뒸했다.
- 최유민: 렌즈 활동을 하며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부뒸하고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보람있다!
- 채지우: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로 8~10월 동안 활동하면서 직접 주제를 정해 조사해보고 설문지도 만들며 마지막엔 캠페인도 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을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앞으로도 아동인권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 한성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렌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몰랐고 감도 오지 않았지만 올해 두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렌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캠페인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설문조사와

캠페인에 조금 흥미를 붙이게 된것 같다. 그리고 내가 렌즈에서 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데 보탬이 된다는게 신기했고 뿌듯했다. 올해가 3학년이라 1년밖에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렌즈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주아진: 8~10월 활동 기간 동안 단원 친구, 후배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와 협동을 통해 다들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권역주제를 정할 때는 1학년 친구들의 의견으로 흡연 관련 주제를 하게 되었는데, 매년 금연교육을 받았지만 직접 자료를 찾고 캠페인 활동을 해보니 새로웠습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주제를 통해 활동하니 인권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금연 관련 캠페인을 하고 나니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청소년들이 흡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졌습니다.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보람차고 즐겁게 인권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장서연: 처음으로 모니터링단 LENS라는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해보는 활동이다보니 어려운 부분과 서투른 부분이 많았다. 또한 장기간 진행이 되는 활동이라 부담감도 없지않아 있었다. 특히 매달 참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점차 시간이 지나며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차올랐고 내가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분야에 관해 알게되어 매 활동마다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동안 주위에서 일어나던 일에 무관심하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되었다. 앞으로는 활동에 참여한 것과 같이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을 알게 되면 주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 김지인: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처음 경험해보고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해봐서 뜻깊은 경험이 됐고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3개월동안 아쉽지 않을 만큼 선생님과 친구들 다같이 활동해서 좋았습니다!
- 최 봄:  
먼저,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더욱 재미있고 행복하게 활동을 이끌어주시고, 청결한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든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익산 문화의 집 김지유, 어수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 최봄은 '꿈드림'이라는 전라북도 대표의 봉사 단체 멤버로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분리수거에 대한 수업, 올바른 분리수거 홍보 포스터 만들기, 주민 참여 독려 편지 쓰기, LENS 활동, 청소년 흡연과 금연에 대한 조사& 포스터 만들기 & 캠페인 활동 등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봉사 활동을 다 끝낸 뒤면 남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또한, LENS 활동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동들이 직접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 받아 아동이 자발적으로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동 스스로가 아동인권 실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으로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시키고,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며 아동의 역량을 향상하고, 아동 권리 수준의 도약이 되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봉사활동이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직접 나서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남을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위해 한걸음 내디뎌보는 것은 어떨까요?!

• 코디네이터 김지유:

초창기부터 LENS활동을 하다 보니 함께 인연을 맺은 학교와의 관계로 인해 아동의 모집과 홍보, 활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아동들을 만나는 것이 더욱 재미있음. 매년 새로운 아동들과 새로운 활동은 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음.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 방법을 다시 안내하는 등의 과정은 똑같지만, 활동주제에 따라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더 책임감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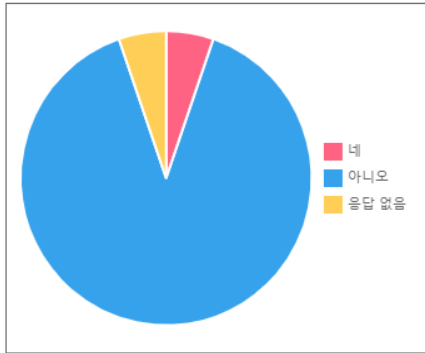
한 달 한 달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켜보니 기한 내에 보고서를 올리는 단원들이 기특했고,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고마웠음. 보고서의 내용도 다채롭게 변하며 단원들의 의식변화가 느껴지고 활동을 해나갈수록 참여하는 모습과 자세가 달라짐이 보여 기특하고 보람찼음.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고 인식이 바뀌는 과정과 마무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반 청소년들 모두 아동인권에 LENS활동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단 활동과 가입조건에 대해 문의하는 아동들이 많아지는 것도 뿌듯했음.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임.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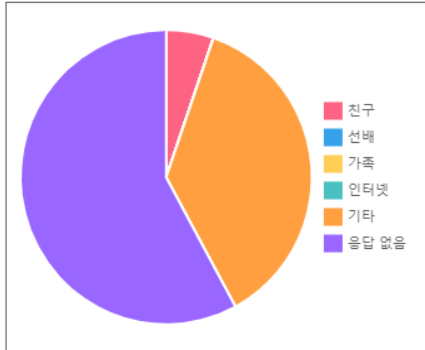
3-1. 주변에서 흡연을 권유받은적 있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네	1 5.3%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7 89.5%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5.3%

3-2. 누구에게 권유받았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친구	1 5.3%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배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족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7 36.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1 57.9%

[캠페인 활동사진]

**아동인권모니터링 LENS 청소년금연캠페인**

담배연기 없는 학교

의명보장

모두함께 만들어요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청소년,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

**우리 같이 금연 해요!**

**스스로 해요!**

- 음식 섭취 (술, 연고, 토마토, 김, 사탕, 과일 등)
- 러닝,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운동 하기
- 금연 시각일까지 개피수 줄이기
- 가족과 나의 건강, 행복 생각하기

**주변의 도움을 받아요!**

- 상담소 이용
- 금연상담 전화 (1994-7474)
- 자담 금연클리닉 사담 (1994-4474)

흡연 습관을 끊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금연에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담배를 끊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담배를 끊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담배를 필수록 줄어드는 수명

How long can you live?

이래도 성팔 흡연 하실건가요?

한 때 모양 같이 만들어요!!

NO! SMOKE!

친구

청소년의 흡연이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흡연의 원인

담배의 주요 성분 및 함유량

타르: 담배 연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고분자 유기화합물. 폐를 자극하고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니코틴: 중독성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발암물질: 폐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유발한다.

청소년의 흡연은 / 시의이해 스스럼없이 친구들과의 게임/공부 등 일상 - 이혼상태에 이르게 하며 - 시의이해 - 습관 / 계층의 공유

## 전남 LENS

LENS	김선아, 엄유빈, 왕빈, 김윤지, 김희진, 박하연
코디 네이터	정은정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의 성적 대상화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1. 발대식 일시: 9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
2. 회의 방식: 비대면 네이버 웨일 온
3. 참석자: 엄유빈, 왕빈, 김선아
4. 회의 내용
  - ① 코디 및 아동의 자기소개
  - ②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목표 및 목적 설명
  - ③ 아동 인권 교육
  - ④ 권역별 주제 모니터링 관련 논의
    - ④-1 주제에 대한 팀원의 의견  
엄유빈: 아동의 교육권에 관련한 법과 제도  
왕빈: 아동 성적 대상화  
김선아: 의견 X



- ④-2 투표를 통해 권역별 주제 선정  
=> 아동 성적 대상화
- 5. 앞으로의 활동 계획 논의
  - ① 1차 보고서 -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실태조사
  - ② 2차 보고서 -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설문지 제작
  - ③ 아동성적대상화를 방지하자는 의미의 포스터 제작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2021.10.04. 2. 회의 방식: 비대면 네이버 웨일 온 3. 참석자: 엄유빈, 왕빈, 김선아 4. 10월 내 세부 활동 계획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0월 15일 내외로 1차 보고서 제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권역 주제 실태조사 진행</li> <li>② 10월 29일 내외로 2차 보고서 제출: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변 인식 설문지 제작 및 포스터 제작</li> </ul> 5. 실태조사에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유빈: 각종 뉴스와 기사들을 참고하여 실사례와 문제점에 관한 실태조사</li> <li>- 왕빈: 유튜브에 게시된 아동 성적 대상화가 가미된 영상 조사 후 문제점에 관련한 실태조사</li> <li>- 김선아: 롤리타 증후군의 유래와 더불어 아동 성적 학대로부터 파생된 아동 성적 대상화의 배경에 대하여 실태조사</li> </ul>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2021.10.16. 2. 회의 방식: 비대면 네이버 웨일 온 3. 참석자: 엄유빈, 왕빈, 김선아

#### 4. 회의 내용

- ① 팀원 간 1차 보고서에 제출한 자료를 공유 후 피드백
- ② 2차 활동 설문지 공유 대상 및 제작 논의

#### 5. 활동 내용

- ① 아동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인식 설문지 제작
- ② 아동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자는 포스터 제작

#### 6. 활동 세부사항

- ① 아동 성적 대상화 설문지 문항 제작

- Q1. 롤리타 신드롬이나 아동 성적 대상화에 대하여 알고 있다.
- Q2. 배스킨라빈스, MLB 속옷 광고 모델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다.
- Q3. 넷플릭스 영화 '큐티스'에 대하여 알고 있다.
- Q4. 아동 모델 화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Q5.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 Q6. 아동 사진에 성적 메시지를 넣은 성상품화 이모티콘 거래에 대하여 알고 있다.
- Q7.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광고 방지 법안 발의에 대하여 알고 있다.
- Q8. 아동 성적 대상화를 줄이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변화해야 할 것 같나요?

- ② 설문지 결과 - 주변인 20명에게 설문조사 실시

- A1. 롤리타 신드롬&아동 성적 대상화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8명 정도였고, 9명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보통'에 응답한 인원은 제외하였음)
- A2. 배스킨라빈스, MLB 속옷 광고 모델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는 인원이 5명(25%), 모르는 인원이 13명(65%)으로 아동성적대상화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실사례는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A3. 아동 모델 화장이 필요한 것 같냐는 질문에는 15명(75%)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다.
- A4.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넷플릭스의 '큐티스'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17명(85%)이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다.
- A5. 사회적으로 아동 성적 대상화가 심한 것 같냐는 질문에 11명(55%)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A6. 아동 사진 성상품화 이모티콘 거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8명(90%)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A7.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광고 방지 법안 발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3명(15%), 모르는 사람은 13명(65%)이 차지하였다.
- A8. 아동 성적대상화를 줄이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아동 보호 법률 구축이 10명(50%)로 가장 많았고, 아동 보호 의식함양, 아동성적대상화를 활용한 광고 삭제가 5명(25%)씩 차지하였다.

- ③ 아동 성적 대상화를 완화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  
: 포스터 디자인에 대하여 함께 논의

####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권역별 주제: 아동의 성적 대상화
  - ✓ 남성 아동보다 여성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나 애정의 부재 시 SNS 일탈 계정 사용 및 랜덤 채팅 어플 사용 등을 활용한 성적 일탈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일탈 계정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특정 옷을 입고 사진만 찍어주면 고액을 얻을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여 아동 성적 대상화의 폐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아성애를 지닌 성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음지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아동·성적학대 및 대상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법적 제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일탈 행동에 대한 상담과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 구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내면의 공허를 채울 생산적인 활동이나 가정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엄유빈: 이 활동을 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아동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실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 왕빈: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코디네이터 정은정: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자질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세대는 어떤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늦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우려도 많았고 난항도 많았으나 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소통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여 처음에는 골머리를 앓았지만 그로 인해서 팀원들의 수준에 맞추어 말하도록 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마음먹은 계기가 청소년들의 현 실태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돌봄이었던 만큼 저희 팀에게 많은 정보, 가르침을 주고 싶었고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팀과 함께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설문조사]

# 아동 성적대상화에 대한 설문조사

1. 롤리타 신드롬과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해 알고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2. 배스킨라빈스, mlb속옷광고 모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3. 아동 모델 화장이 꼭 필요할까?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5. 아동성적대상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5-1 그렇지 않다는 선택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5-2 매우 그렇지 않다는 선택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7. 넷플릭스 큐티스에 대해 알고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8. 아동 성상품화 이모티콘 거래에 대해 알고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광고 방지 발의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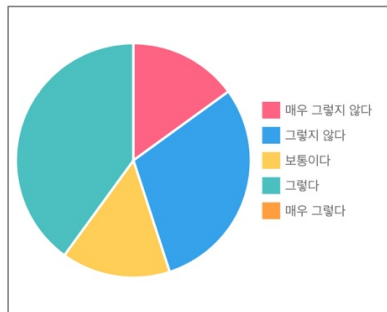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0. 아동 성적대상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변화해야 할까요?

- 구체적인 아동 보호 법률 구축
- 아동보호 의식 함양
- 아동성적대상화를 활용한 광고 삭제
-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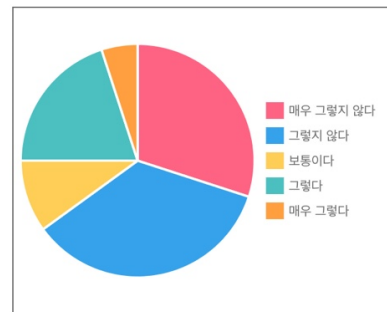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1. 롤리타 신드롬과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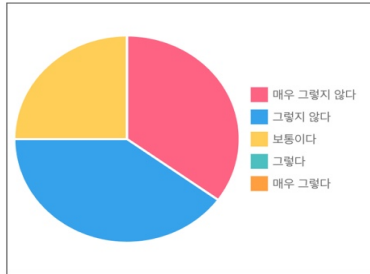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3	15%
<input type="radio"/> 그렇지 않다	6	30%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3	15%
<input type="radio"/> 그렇다	8	40%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0	0%

2. 배스킨라빈스, mlb속옷광고 모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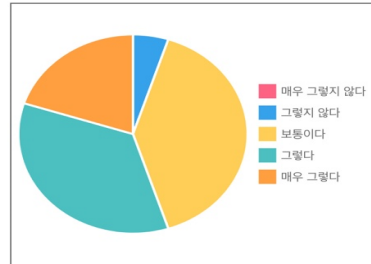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6	30%
<input type="radio"/> 그렇지 않다	7	35%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2	10%
<input type="radio"/> 그렇다	4	20%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1	5%

### 3. 아동 모델 화장이 꼭 필요할까?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7	35%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지 않다	8	40%
<input checked="" type="radio"/>	보통이다	5	25%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다	0	0%

### 5. 아동성적대상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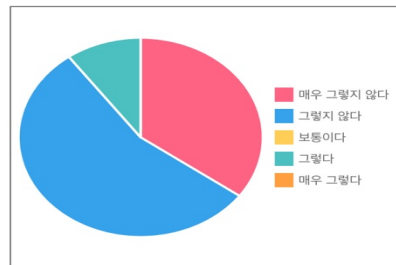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지 않다	1	5%
<input checked="" type="radio"/>	보통이다	8	40%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다	7	35%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다	4	20%

### 7. 넷플릭스 큐티스에 대해 알고 있다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9	45%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지 않다	8	40%
<input checked="" type="radio"/>	보통이다	3	15%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다	0	0%

### 8. 아동·성상품화 이모티콘 거래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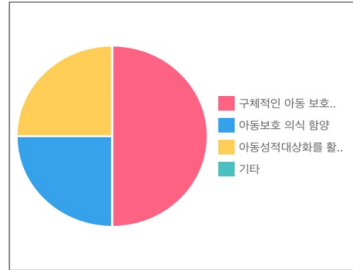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7	35%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지 않다	11	55%
<input checked="" type="radio"/>	보통이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다	2	10%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다	0	0%

9.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광고 방지 발의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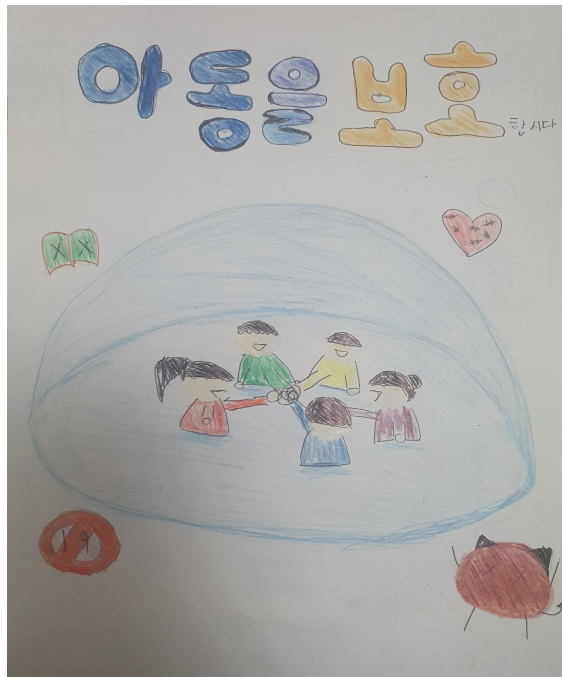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4	20%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지 않다	9	45%
<input checked="" type="radio"/>	보통이다	4	20%
<input checked="" type="radio"/>	그렇다	3	15%
<input checked="" type="radio"/>	매우 그렇다	0	0%

10. 아동 성적대상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변화해야 할까요 ?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구체적인 아동 보호 법률 구축	10	50%
<input checked="" type="radio"/>	아동보호 의식 함양	5	25%
<input checked="" type="radio"/>	아동성적대상화를 활용한 광고 규제	5	25%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	0	0%

[포스터 제작]





## 강원1 LENS

LENS	현다혜, 김서윤, 김민건, 원도경, 허원, 전시윤, 전예성, 이진서, 김지현, 박수진, 임연지
코디 네이터	나지은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의 놀 권리(원주시를 중심으로)

### 3개월간의 발자취

Step1. 발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대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아동권리교육과 권역별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함.</li> <li>• 아동권리교육은 사전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선생님께 교육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활용하여, 아동 권리에서 간과되고 있는 주체성, 차별, 포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li> <li>• 권역별 주제 선정 토의에서는, 아동들의 의견과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인원이 12명이라 모두의 의견이 동일할 수 없어서, 세 조로 놀 권리 중 각 조의 관심 세부 주제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활동함.</li> </ul>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1차 모니터링 회의 전, 3개월 동안 진행할 모니터링 활동 로드맵을 표로 미리 준비하였음.
- 먼저, 아동들에게 현황 조사, 설문조사 및 캠페인 준비, 설문조사 및 캠페인 진행 순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안내함. 그 후, 각 조별 상이한 주제에 맞는 세부 조사 내용들을 예시로 들어 안내해주고 조별로 역할 분배 및 조사 하는 활동을 진행함.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2차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먼저 8월 모니터링 활동의 피드백을 진행함. 제출 날짜 및 역할 분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함.
- 그 후, 미리 준비한 설문지 작성 예시와 캠페인 자료 양식을 보여주고 조별로 설문지 질문 및 캠페인 자료 구성 토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함.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3차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설문 조사와 캠페인 진행 방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글 설문지 활용 여부/ 캠페인 이벤트 내용)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함. 결과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지 사용,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 캠페인 퀴즈 준비를 통한 참여 확인하기 등의 내용을 확정함.
- 조별 진행 시간 또한 통일하였고, 조원들의 일정을 고려한 진행을 위해 활동 진행 준비를 위한 토의시간을 가짐.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권역별 주제: 아동 놀 권리(원주시를 중심으로)
  - ✓ 돈이 충분하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출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원주시의 놀이 공간 및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주시고 최신화하여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 ✓ 원주시의 놀이공간 유해물질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원주시 놀이 공간의 유해물질을 검사해주시고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세요.
  - ✓ 어른들과 아동들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 ✓ 설문조사 결과 아동들은 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박수진, 김민건, 전시윤 (1조): 놀 권리 중에서도 설타운제를 비롯한 놀권리 침해 현황 중점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놀권리를 침해하는 설타운제는 사라졌지만 돈 없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김지현, 원도경, 허원, 현다혜 (2조): 놀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이기를 중점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동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웠다. 하지만 활동을 통해 코로나가 놀 권리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좀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놀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지장이 없어보였던 우리의 생활에 놀 권리가 꼭 필요하단 걸 알게 되었다. 처음에 들었을때 “에이~일부터 제대로 하고 놀 생각을 해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에게엔 맞지 않는 말이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 이진서, 전예성, 임연지, 김서윤 (3조): 놀이공간의 유해물질에 집중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놀이 공간의 유해 물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건의사항으로는, 원주시가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 코디네이터 나지은: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에 코디네이터로 참여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11명을 담당하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아동들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다른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실효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8월 첫 활동에서 제출해준 보고서를 보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다면 아동들의 힘을 믿지 못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다. 3개월 동안 아동들이어서 질문할 수 있는 진실된 물음들을 설문조사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는 원주시의 놀 권리 현황을 열심히 조사하였다. 적어도 아동들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아동의 권리와 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 이러한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에 앞으로도 많이 참여하여, 여러 어른들과 사회에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캠페인 활동]

공유 1회

##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 원주시

1. 놀이공간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2. 원주시 놀이공간 유해물질 조사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들었나요?
3. 만약 원주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 꼭 읽어주세요.

놀이공간 유해물질 사태는 많이들 모르지만 꽤 심각합니다. 유해물질 자체가 해로움이 있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보내는 곳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더는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 봐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원주시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안전하다, 위험하다 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의 검사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쓰는 저도 원주시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이 나올거라는 것 알았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안전했던 것이 위험해질 수 있고 애초에 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 강원2 LENS

LENS	권수민, 박수빈, 최우주, 김나윤, 임지원, 신화용, 송지훈
코디 네이터	서예원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청소년의 음주문제

### 3개월간의 발자취

Step1. 발대식
1. 회의 일시 : 2021.08.21
2. 회의 방식 : 대면으로 진행
3. 회의 참석자 : 권수민, 박수빈, 신화용, 임지원, 송지훈, 최우주
4. 회의 내용
1) 아동인권 교육
2) 모니터링 사업 소개
3) 공통주제 관련 논의
5) 권역 주제 모니터링 관련 논의
6)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7) 기타 안내 사항
- 단원들 카페가입 재공지 및 카페가입 확인

주제 도출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며 아동 청소년의 음주 문제에 대해 활동하기를 건의함. 청소년 음주 실태와 이유,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대안) 등을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함</li> <li>• 익명 투표(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방식)를 통해 다수표를 받은 음주문제가 주제로 선정됨</li> <li>• UN 아동권리협약 33조를 바탕으로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33조).” 주제선정을 마침</li> </ul>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일시 : 2021.08.28</li> <li>2. 회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ZOOM 이용</li> <li>3. 회의 참석자 : 서예원, 김나윤, 권수민, 신화용, 최우주</li> <li>4. 회의 및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소개 및 인사</li> <li>2) 활동 시 주의 사항 및 약속사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날짜 및 시간 지키기</li> <li>- 카톡 채팅방 운영시간 공지(9-22시)</li> <li>- 각자 맡은 일과 과제 책임감 갖고 수행하기</li> </ul> </li> <li>3) 권역주제 및 의견 나눔</li> <li>4) 8월 역할배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주 김나윤 학생이 통계자료를 조사 및 공유. 이를 바탕으로 코디네이터가 정리해서 단원들에게 공유함 *자료 첨부</li> </ul> </li> <li>- 알코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화용, 송지훈, 임지원 학생이 진행</li> </ul> </li> <li>-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 질문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수민, 박수빈 학생이 공동으로 질문지 작성함 추후 구글폼으로 청소년들에게 공유</li> </ul> </li> </ul> </li> </ol> </li> </ol>

5) 활동

- 설문지 내용 구성

\* 본인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

1.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음주률이 1.9%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률을 낮추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1) 국가에서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관해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2)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3) 기타(적어주세요)
2.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1) 몸에 해로우므로 하면 안된다.
  -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하면 안된다.
  - (3) 성인이 아니므로 흡연/음주 하면 안된다.
  - (4) 기타 (적어주세요)
3. 주변에서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1) O (2) X  
있다면 4번, 없다면 5번으로
4. 있다면 어디에서 목격하였나요?
  1. 골목
  2. 학교
  3. 집
  4. 피시방
  5. 기타(적어주세요)
5. 흡연 또는 음주 경험이 있으신가요?
  - (1) O (2) X있다면 6번으로 없다면 7번으로
6. 흡연 또는 음주를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 (1) 호기심
  - (2) 친구나 선배의 권유
  - (3) 스트레스 해소
  - (4) 친구들과의 어울림 목적
  - (5) 기타



7. 음주가 청소년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나요?  
 (1) O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적어주세요)  
 (2) X
  
8.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선 음주에 관해 아동을 보호하는 약물 및 발달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음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1) O  
 (2) X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09.11
2. 회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ZOOM 이용
3. 회의 참석자 : 서예원/권수민/김나윤/박수빈/신화용/최우주/임지원
4. 지난 활동 내용 정리
5. 9월 역할 배분
  - 1) 최우주/김나윤/임지원/신화용 학생 :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 조사 구글폼 공유
  - 2) 권수민/박수빈 학생 : 구글폼 제작
6. 9월 활동 내용
  - 1) 구글폼 제작  
 : 권수민/박수빈 학생이 8월 활동을 바탕으로 준비해온 질문과 다른 학생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글폼 제작
  - 2) 제작된 구글폼을 공유  
 : 최우주/김나윤/임지원/신화용 학생: 주변 친구들에게 구글폼을 공유함.
  - 3) 구글폼 결과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AFLnK9Oo6TB4yC6ElzeCwhtD00Zt7ltneblm0ZA4MA/edit?resourcekey#gid=1800815746>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AFLnK9Oo6TB4yC6ElzeCwhtD00Zt7ltneblm0ZA4MA/edit?resourcekey#gid=1800815746>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10.16
2. 회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ZOOM 이용
3. 회의 참석자 : 서예원/권수민/김나윤/최우주/박수빈/신화용/임지원
4. 회의 및 활동 내용
  - 1) 지난 9월 활동 내용 정리
  - 2) 10월 역할 배분
    - 최우주/김나윤 : 카드뉴스 제작
    - 임지원/신화용 학생 : 주변 친구들에게 카드뉴스 공유
    - 권수민/박수빈 학생 : 카드뉴스 내용 제작
5. 10월 활동 내용
  - 1) 카드뉴스 내용 구성
    - ✓ 간 or 폐 떨어지는 흡연, 우리는 하지 말자
    - ✓ 담배는 노담, 우리 모두 노담
    - ✓ 나예겐 너무 이른 음주, 상처가 될 수 있다
    - ✓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만두자
    - ✓ 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 ✓ 흡연과 음주(해로운 약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2) 카드뉴스 제작
    - 최우주, 김나윤 학생: 권수민, 박수빈 학생이 보내준 내용으로 카드뉴스 제작
  - 3) 카드뉴스 공유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권수민: 지금까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을 한 것이 뜻깊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고, 설문조사로 현재 상황도 알아보고 카드뉴스도 기획했다. 이 활동으로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 김나윤: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아동이 교육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이며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 박수빈: “알코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그 중 설문조사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인상 깊었다. 또한, 월마다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니 알코올의 부정적인 점을 알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관심을 주었으면 하였다.
- 신화용- 아동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낸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음주 관련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문제는 사소한 부분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법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우주- 스스로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며 구체적으로 참여하며 음주의 위험성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음주의 폐해를 알리고,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도록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코디네이터 서예원: 청소년 시절의 저보다 성숙한 권역 모니터링단 학생들과 함께한 3개월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 좋은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어 노력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다양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 귀찮았을지도 몰랐을 원주 2팀 모니터링단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제선정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깊게 남았습니다. 수민, 수빈, 우주, 화용, 지원, 지훈. 나윤이까지 모두 수고 많았어요!

## 강원3 LENS

LENS	박지영, 윤서진, 신형진, 김해선, 김신영, 권여희, 김동엽, 홍채원, 김다영, 신형우, 이한빈
코디네이터	최진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학교규칙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 3개월간의 발자취

Step1. 발대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일시: 2021.08.21.토요일</li> <li>2. 회의 방식: 대면</li> <li>3. 회의 장소: 원주청소년수련관</li> <li>4. 회의 참석자: 박지영, 윤서진, 김해선, 김신영, 권여희, 홍채원, 김다영, 이한빈</li> <li>5. 회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아동협회에서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LENS)과 공통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주셨음</li> </ul> </li> <li>•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활동시간에 코디네이터부터 돌아가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함</li> </ul> </li> </ul> </li> </ol> </li> </ol>

2) 아동인권교육

- 윤석빈 소장님께서 아동 인권 교육을 진행해주심

3) 공통주제 관련 논의

- 앞서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팀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음

4) 지역주제 모니터링 관련 논의

-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 중 학교규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눔
- “학교규칙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을 주제로 정함

5)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눔
- 달별로 나누어 모니터링 활동을 계획함
- 회의 날짜, 활동 진행사항 보고 날짜를 정함
  - 다음 회의 날짜: 9/4 or 9/5
  - 진행사항 보고 날짜: 매주 토요일
- 활동을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함
  - 설문조사팀  
: 박지영, 윤서진, 김해선, 김신영, 권여희, 이한빈
  - 인터뷰팀  
: 홍채원, 김다영
- 계획서는 개별보고서 작성을 기본으로 진행하기로 함  
(활동을 같을 경우에 팀별보고서 제작 후 개인이 작성한 부분에 본인 이름 기재)

6) 기타

- 팀원들의 연락처를 받아 단체 카톡방을 개설함
- 팀원들의 다음카페 가입을 진행함

**주제 도출 경과**

시대착오적인 학교 규칙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 알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주제를 선정함.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2021.09.04.토요일
2. 회의 방식: 비대면
3. 회의 장소: zoom
4. 회의 참석자  
: 박지영, 윤서진, 김해선, 김신영, 권여희, 이한빈, 김동엽, 홍채원, 김다영
5. 회의 내용
  - 1) 자기소개
    - 발대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동들을 위해 자기소개 시간을 가짐
  - 2) 활동보고
    - 8월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정리함
    - 8월 21~31일 (개별 조사)
      - 발대식 이후 한 주간 개별로 학교 교칙을 조사함

〈각 학교 복장에 관련된 교칙 조사 결과〉

- 조사 대상 학교  
: 중학교3, 고등학교3 (총 6곳)  
(북원중학교, 남원주중학교, 대성중학교)  
(육민관고등학교, 상지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 학교별 교칙 공통점
  - 교복과 체육복등교 허가
  - 교복과 체육복위에 집업형태의 겹옷 착용 가능  
(남원주중학교의 경우 맨투맨, 후드티 착용 가능)

• 그 외 교칙

- 탈색 및 c컬 제외한 펌이나 피어싱을 금지

- 화장(기초화장 제외)

상지고 육민관고 남원주중의 경우 화장 금지

북원중학교의 경우 허용

- 액세서리 제한

상지고등학교와 육민관고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의 경우 제한

북원중학교과 남원주중학교의 경우 제한 없음

3) 다음 활동계획

• 발대식에서 정한 9월 활동계획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획을 구체화함

4) 팀정하기

• 발대식 미참석자의 팀을 정함

5) 다음 회의날짜 정하기

• 투표를 통해 다음 회의날짜를 정함

6) 활동보고서 안내

• 모니터링단 월별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음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2021.09.18.토요일

2. 회의 방식: 비대면

3. 회의 장소: zoom

4. 회의 참석자

: 김신영, 권여희, 박지영, 김동엽, 이한빈, 김해선, 홍채원, 김다영

5. 회의 내용

1) 공동주제 설명

• 공동주제에 대해 설명함

• 공동주제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함



2) 활동보고서 추가 안내

- 저번 보고서 제출 시 들어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월별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함

3)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 인터뷰팀 활동보고&계획
  - 인터뷰 대상자를 특정함
  - 인터뷰 대상자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함
  - 질문지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현 시점 학생1명 인터뷰 완료)
  - 다음으로 진행할 인터뷰를 계획함

◎ 학생1과의 인터뷰 내용

**질문: 본인의 반에서 교복 검사가 이루어졌나요?**

- 학생1: 네. 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겠지만 방학식날 혹은 그 전 날 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교내 교복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생1: 전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단정하게 교복 입기)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7월에 이루어진 학교 측의 교복 검사는 인권 침해적이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교복 검사가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 학생1: 선생님께서 번호 순으로 한 명씩 부르면 교단 앞으로 나가 한 바퀴 돌며 용모와 복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손톱과 치마 등 옷매무새를 점검하며 마치 단정한 정도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당시 교복 검사를 받았을 때 심정은 어떠했나요?**

- 학생1: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반 친구들 모두와 선생님이 나의 복장과 신체를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목이 쏠린 와중에서 나의 옷매무새를 점검받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검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는 수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이 논란에 대한 해명 혹은 사과문을 접한 적이 있나요?**

- 학생1: 학생들 사이에서 실장단과 학생자치회만 모인 학생 정기 총회에서 사과를 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저는 공식적인 사과 혹은 해명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학교 측에서 이후 이 논란에 대한 추후 개선 조치를 접한 적이 있나요?**

- 학생1: 전혀 없습니다.

◎ 다음 인터뷰 진행 계획

- 해당 학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적 교복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학생 1 외 두 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할 예정
- 해당 학교의 교사의 의견을 물어 이런 인권 침해적 교복 검사 방식을 어떻게 생각해왔고 이런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할 예정

• 설문조사팀 활동보고&계획

- 설문조사지에 들어갈 질문을 각 1개 이상 생각해오기로 하고 카톡을 이용해 질문을 주고받고 다 같이 수정하는 시간을 가짐
- 회의를 통해 '학교 교칙관련 학생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지'를 완성 (9월 18일)
- 각자 자기포함 10~20명의 인원에게 설문조사지 링크를 배포하여 답변을 모으기로 함

◎ 설문지 질문

- 1번. 교복 관련 규칙이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2번. 교복 관련 규칙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교복관련규칙에 대해 겪었던 불만이나 의견

- '겨울에 규칙대로 다 입어도 추웠다.', '현 고등학생으로써 자신의 학교에 대한 불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적게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임
- 반면 교복을 안 입어도 생활복이나 체육복이 자유롭게 허락되기 때문에 교복 규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음



▷ 기타 의견

- 사복을 입게 해주면 좋겠다.
- 겹옷은 어느 정도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악세사리 규칙도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 인터뷰팀 활동

- 학생 추가 인터뷰를 진행함
- 선생님 인터뷰를 대체할 추가 자료를 정리함

2) 기타 논의

- 설문 참여자 선물과 활동 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 의논 함
  - 결과 발표회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인원을 조사함
- ⇒ 활동 마무리 방법: 추후에도 활동이 이어지도록 활동 결과를 각자 학교에 전달하기로 결정함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권역별주제: 학교규칙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 ✓ 학교의 규칙은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교칙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꾸준히 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 교칙을 지도하는 선생님께서는 교칙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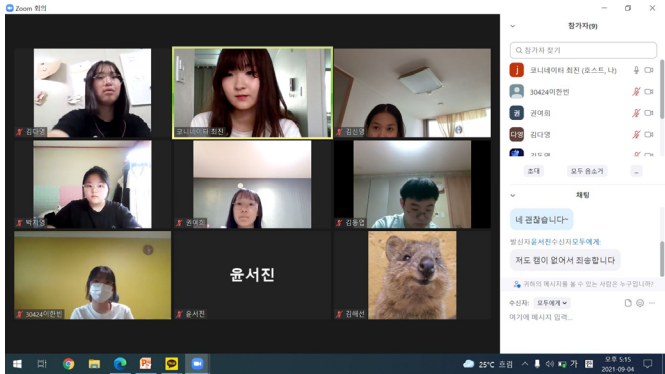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LENS
  - ✓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이뤄낸 성과가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 ✓ 좋은 팀원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며 오고가는 감사의 말이 너무 따뜻했던 것 같다.
  - ✓ 내가 청소년일 때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
  -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다른 학생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 의견이 다 비슷했다.
  - ✓ 효과적인 파트 분배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도출 할 수 있어서 뿌듯하였습니다.
  
- 코디네이터 최 진: 아동들이 주도해가는 활동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동들이 각자의 생각을 발전시켜 아동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들이 주도해가는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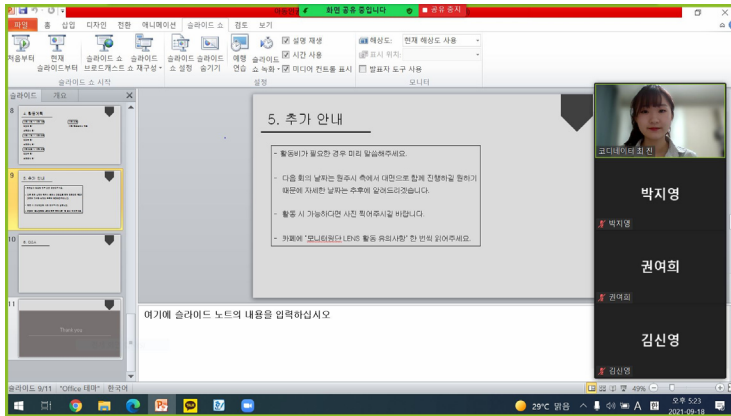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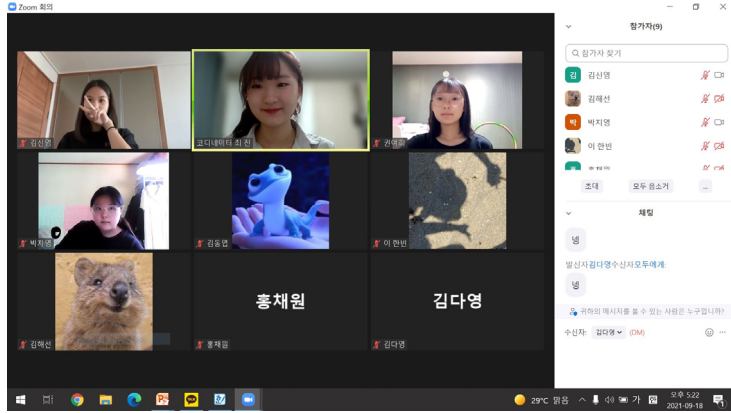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원활한 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며 팀원들끼리 유대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며 팀원들끼리 유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의견과 생각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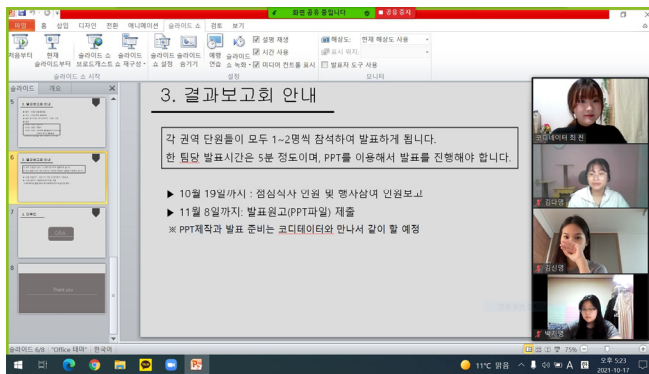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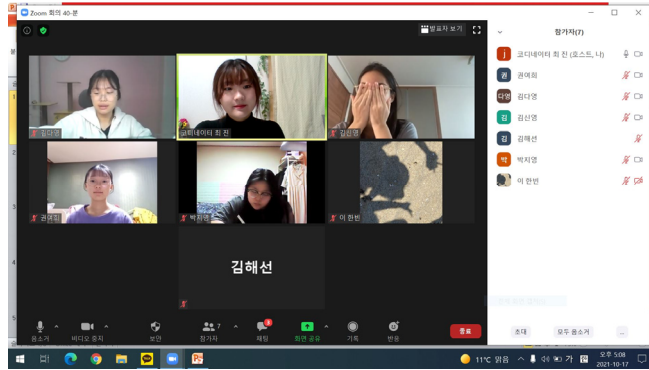
[8월 회의]



[9월 회의]



[10월 회의]



## 충북 LENS

LENS	강민재, 김예진, 김준석, 신규리, 신은서, 윤상엽, 주다현
코디네이터	김범석

활동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3개월간의 발자취

Step1. 발대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LENS 활동 소개</li><li>- 코디네이터 및 각 참여자 자기소개</li></ul></li><li>2. 아동인권교육</li><li>3. 공통주제 및 권역별 주제 논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에 대한 토론 진행</li><li>- 주제 해석</li><li>-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li></ul></li><li>4. 차후 모니터링 계획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의 주요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 중심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논문조사, 통계 및 기사 조사</li><li>- 단원 역할 분배</li><li>- 일정 조율</li></ul></li></ol>



### 주제 도출 경과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던 중 학생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게 청년 대상의 복지 정책이었음. 이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와 엮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의 토론으로 이어졌음. 언뜻 보면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좋은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무상복지의 질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무상보육 확대 이후 양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음. 이에 반해 어떤 이들은 선별적 복지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모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옳은 것이라고도 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둘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음.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 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 주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 자료조사와 주제 해석을 진행함.
- 권역별 주제: 당시 미정
  - ✓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였음. 토론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제가 무엇일지 고민해봄. 투표를 통해 정해진 주제는 다음 9월 모니터링에서 다루기로 함.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 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 토론을 통해 인터뷰와 설문조사 계획 수립.
  - ✓ 설문조사를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함.
- 권역별 주제: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 <토론>  
아동 복지 중 선별적 아동 복지와 보편적 아동 복지가 있다는 것을 배운 후 둘 중 어느 정책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음. 이후 아동 복지에 관한 설문지 제작 및 배포,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 후 보고서 작성, 각자 주장하는 의견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문을 만들어보고자 하였음.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공통 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권역별 주제: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두 주제에 맞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통주제 질문내용

1.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2. 최근 교육 정책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가?

##### 권역별주제 질문내용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있는가?
2. 보편적 지에 대해 찬성하는가?
3. 청소년으로서, 복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로 체감하는가?
4. 보편적 복지 찬성 이유
  - 선별과정 속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 (선별적 지원 시) 국가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생길수도
  - 차별없이 공평하므로
  - 사회적 불만이 적으므로
5. 보편적 복지 반대 이유
  - 사람에 따라 제공되어야할 복지가 다르므로
  -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
  - 정책의 효율성을 생각
  -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시 소모되는 예산의 낭비가 심함
  - 사회적 약자 배려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권역별 주제: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 청소년이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복지를 늘려주세요.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신은서: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과 유형을 탐구하며 우리 사회 속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의 형태를 구상해보았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강민재: 새로운 아동 인권 관련 주제를 깊게 탐구하며 사회적인 상식을 얻었고 토론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른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 김준석: 공통주제에 대해 다뤄보면서 평소 아무생각없이 학업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교육의 주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이 현저히 적은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 신규리: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한단계 성장할 수 있어 매우 의미깊었다.
- 주다현: 평소에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LENS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권리와 직접 마주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 김예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해석하면서 성장한 듯한 기분이어서 매우 부듯했다.
- 코디네이터 김번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따라와준 단원들에게 고마웠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진행해봐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인터뷰 내용-권역별 주제]

#### · 교사 및 학부모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음.
- 자신의 어린 시절엔 아동 복지 혜택을 실감하지 못했으나 그에 비해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내비침.
- 개선되긴 했으나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복지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음.
-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또래와 함께 지내는 혹은 또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복지는 보편적으로, 취약 계층의 아동들이 타인의 눈에서 벗어난 공간에서는 선별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침.
-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받은 도움을 통해 자신이 노력하면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침.

#### · 청소년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각각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복지가 당연시되는 경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대한민국의 아동으로서 복지의 혜택을 누렸다고 할 만큼 체감하지 못했다고 얘기함.
- 취약 계층 아동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복지의 세부적인 측면에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침.
- 복지의 질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보편적 복지가 좋겠지만, 아직은 선별적 복지의 세부적인 측면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고 최소의 극대화를 통해 각 계층의 아동 간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침.
-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나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지의 본질인 삶의 질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적절한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의 실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침.

[정기모임]



## 충남 LENS

LENS	김광래, 박상민, 이가은, 김원호, 이종명, 정은서, 오하은, 박서윤
코디 네이터	황아연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의 놀 권리(아동청소년의 취미활동 및 여가시간 관련 문제)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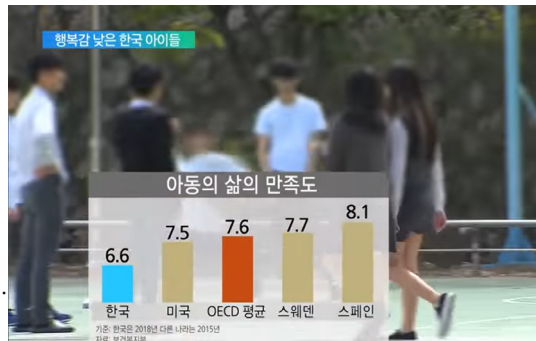
##### 1. 발대식 - 세부주제 도출 과정

아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 중 가장 조사해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자, 가장 공감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아동의 이익 최우선'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익'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셋다운제, 취미나 여가 시간 확보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아동들의 의견을 들었고, 투표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라는 큰 주제와 '여가 시간'이라는 세부 주제에 대해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2. 현황 및 문제점

-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여가와 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019년에 조사한 아동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 행복도는 27개 회원국의 평균 점수인 7.6점보다 1점 낮은 6.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 뉴스EBS 2019.5.27)

- ③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는 ‘실제로 놀이를 좋아하는 아동들이 보다 창조적이며, 창의성은 놀이상황과 같은 쾌활한 환경에서 발휘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시기에 하는 여가 행동은 그 시기의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④ 놀이를 통해 모든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놀이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성과 감성, 창의성과 상상력, 자신감도 자라나게 해줍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대화하고 협상하는 능력,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을 키우며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소꿉놀이 같은 놀이가 아동의 지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행 같은 여가 활동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가벼운 운동 같은 여가 경험은 기분 전환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명상 같은 취미 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kids/content/sub020202.jsp>)

1. 회의 일시 : 2021.08.25.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은산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 김광래, 김원호, 박상민, 박서윤, 오하은, 이가은, 이종명, 정은서
5. 회의 내용
  - ① 권역 주제 도출
  - ② 앞으로의 활동 계획 논의
6. 활동 내용
  - ①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 ② 아동인권교육
  - ③ 공통 주제 및 권역 주제 도출
    - 권역 주제 도출 : 아동의 놀 권리 - 아동·청소년의 여가 시간은 충분한가?
  - ④ 활동 방법 선정 : 설문조사, 캠페인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09.29.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은산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 김광래, 김원호, 박상민, 박서윤, 이가은, 이종명
5. 회의 내용
  - ① 설문조사지 내용 구성
  - ② 캠페인 진행 방법 논의
6. 활동 내용
  - ① 권역 주제 설명
  - ② 설문조사 내용 구성
  - ③ 캠페인 진행 방법 논의



## 7. 활동 세부 사항

### ① 설문조사지 내용

대상	놀이와 여가에 관심이 있는 또래 아동
목적	놀이와 여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
방법	구글 폼 링크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	1. 본인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놀이를 하나요?
	2.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나요?
	2-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3. 본인은 놀이나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1. 본인이 생각하기에 놀이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본인이 집 안이나 밖에서 놀이를 할 때 누군가나 어떤 사건에 의해 놀이를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4-1.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5. 우리가 사는 지역에 놀이나 편의 시설이 충분한가요?
	6. 우리가 사는 지역에 놀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7.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놀이시설에 놀이기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8.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놀이시설에 놀이기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9.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나요?
	10. 본인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10-1. 귀가 시간으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2.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1. '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2.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② 설문조사 결과

#### 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놀이를 하나요?

- 1시간 이하 : 20%
- 2시간 이하 : 0%
- 3시간 이하 : 20%
- 4시간 이하 : 40%
- 4시간 초과 : 20%

- ②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나요?
- 매우 그렇다 : 40%
  - 약간 그렇다 : 40%
  - 보통이다 : 0%
  - 별로 그렇지 않다 : 0%
  - 전혀 아니다 : 20%
- ②-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 :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 몸이 늘면 힘들어서 많이 논다. / 부모님이 많이 놀게 해주신다.
  -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사람 : 센터에 다녀오면 놀이하고 집에서 쉴 시간이 없어진다.
- ③ 본인은 놀이나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매우 그렇다 : 40%
  - 약간 그렇다 : 20%
  - 보통이다 : 20%
  - 별로 그렇지 않다 : 0%
  - 전혀 아니다 : 20%
- ③-1 본인이 생각하기에 놀이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사람 : 주말에는 놀 시간이 많지만, 평일에는 놀 시간이 별로 없다.
- ④ 본인이 집 안이나 밖에서 놀이를 할 때 누군가나 어떤 사건에 의해 놀이를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 예 : 0%
  - 아니오 : 100%
- ⑤ 우리가 사는 지역에 놀이나 편의 시설이 충분한가요? (충남 부여군)
- 매우 그렇다 : 20%
  - 약간 그렇다 : 0%
  - 보통이다 : 40%
  - 별로 그렇지 않다 : 20%
  - 전혀 아니다 : 20%
- ⑥ 우리가 사는 지역에 놀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남 부여군)
- 예 : 80%
  - 아니오 : 20%

- ⑦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놀이 시설에 놀이 기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충분하다 : 0%
  - 보통이다 : 60%
  - 충분하지 않다 : 40%
- ⑧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놀이 시설에 놀이 기구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 매우 그렇다 : 40%
  - 약간 그렇다 : 40%
  - 보통이다 : 20%
  - 별로 그렇지 않다 : 0%
  - 전혀 아니다 : 0%
- ⑨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나요? (충남 부여군)
- 없다 : 20%
  - 1명 : 20%
  - 2~3명 : 40%
  - 4~5명 : 0%
  - 6명 이상 : 20%
- ⑩ 본인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 오후 12시(정오)~2시 : 0%
  - 오후 2~4시 : 20%
  - 오후 4~6시 : 0%
  - 오후 6~8시 : 40%
  - 오후 8시 이후 : 40%
- ⑩-1 귀가 시간으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후 12시(정오)~2시 : 0%
  - 오후 2~4시 : 40%
  - 오후 4~6시 : 40%
  - 오후 6~8시 : 20%
  - 오후 8시 이후 : 0%
- ⑩-2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부하면 힘들기 때문이다.
  - 힘들기 때문이다.
  -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귀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가 질문]

⑪ '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여가 활동
-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하는 것
- 아이들에게 없으면 안되는 것
- 재미있는 것
- 놀 권리

⑫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나의 기쁨
- 내가 기뻐하는 것
- 나의 기쁜 마음
- 내가 기쁜 것
- 행복의 권리

③ 캠페인 진행 방법

대상	여가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또래 아동
목적	충분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
방법	'많다', '보통이다', '적다' 중 해당하는 곳에 스티커 부착

④ 캠페인 결과

: 참여 인원 87명 중

- 많다 : 27명(약 30%)
- 보통이다 : 36명(약 42%)
- 적다 : 24명(약 28%)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10.20.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은산지역아동센터
4. 회의 참석자 : 김광래, 김원호, 박상민, 박서윤, 오하은, 이가은, 이종명, 정은서
5. 활동 내용
  - ① 활동 내용 공유 및 정리

Step4.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주제: 아동의 놀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오는 아동·청소년들은 귀가시간이 늦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놀이할 시간이 없어진다.</li> <li>✓ 주말에는 놀 시간이 많지만 평일에는 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놀이나 여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li> <li>✓ 우리가 사는 지역(충남 부여군)에는 놀이나 편의 시설이 보통이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다수(80%)였고, 놀이터나 놀이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놀이기구가 충분하지 않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설문지 8번 문항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80%).</li> <li>✓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와 8시 이후가 가장 많았고(각각 40%), 집에서 쉬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귀가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각각 40%).</li> <li>✓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역인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놀이 시설이나 놀이 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른 귀가 시간을 희망하고 있다.</li> </ul> </li> </ul>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라는 단어가 어렵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의 주체가 우리인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li> <li>✓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놀이 시간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li> <li>✓ 아동의 인권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li> <li>✓ 다음에 또 하고 싶었을 만큼 재미있는 활동이었다.</li> <li>✓ 몰랐던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li> <li>✓ 재미있는 느낌이었고 또 하고 싶은 활동이었다.</li> <li>✓ 여가 시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재미있는 활동이었다.</li> <li>✓ 너무 재미있었고 아쉬웠고, 더 활동하고 싶다.</li> </ul> </li> <li>• 코디네이터 황아연: LENS 아이들과 처음 만났던 8월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느덧 10월이 되어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li> </ul>

처음 발대식과 8월 활동을 앞두고 있을 때는 꾸준히 준비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전에서는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배우는 활동에서 아동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어찌하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막상 실제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묵살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저는 한 번 생각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저의 꿈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써 사회에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설문조사 및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자신의 권리를 직접 옹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설문조사]

#### 충남권역-아동의 놀 권리 조사

아래 12개의 질문과 6개의 부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읽고 응답해주세요. 각 응답에 맞는 부가 질문에도 답변 작성 부탁드립니다.

1. 본인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놀이를 하나요? \*

- 1시간 이하
- 2시간 이하
- 3시간 이하
-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2.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나요? \*

- 매우 그렇다 (2-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 약간 그렇다 (2-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2-2 번으로 이동해주세요)
- 전혀 아니다 (2-2 번으로 이동해주세요)

6. 우리가 사는 지역에 놀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 예
- 아니오

7.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놀이시설에 놀이기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 충분하다
- 보통이다
- 충분하지 않다

8.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나 놀이시설에 놀이기구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아니다

10. 본인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

오후 12시(정오)~2시

오후 2시~4시

오후 4시~6시

오후 6시~8시

오후 8시 이후

---

10-1. 귀가 시간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후 12시(정오)~2시

오후 2시~4시


오후 4시~6시

오후 6시~8시

오후 8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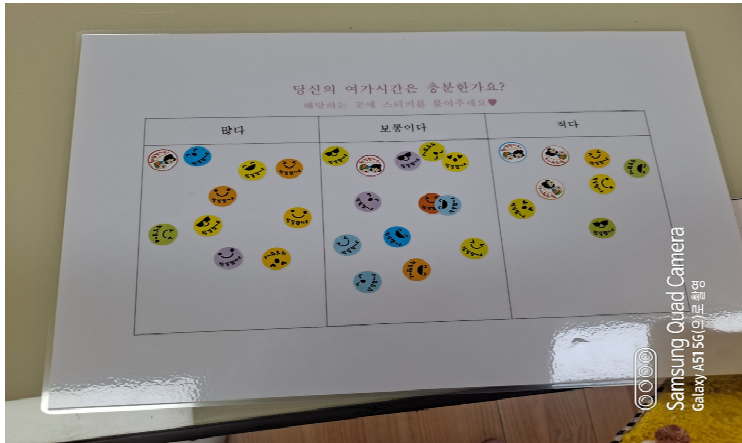
---

10-2.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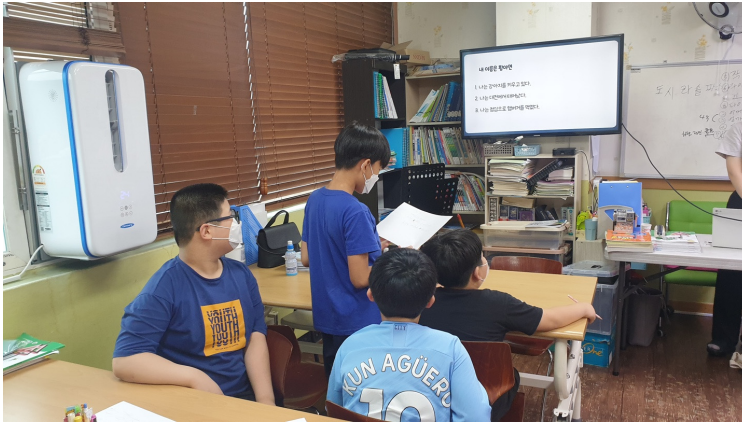
내 답변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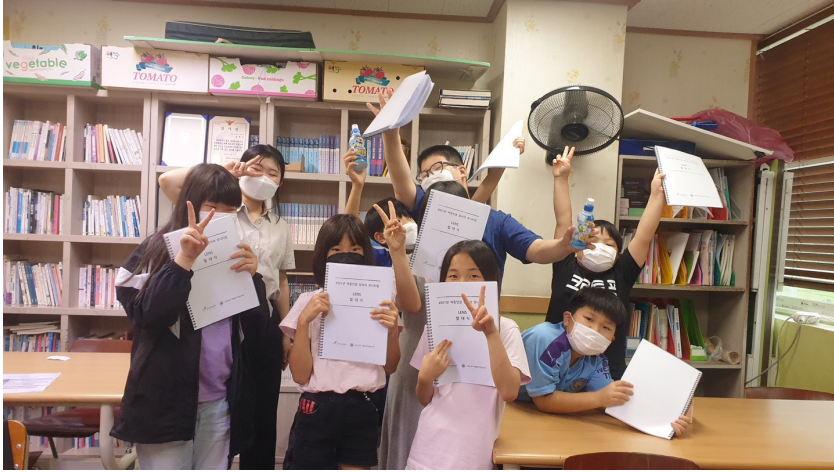




[정기모임]







## 대전 LENS

LENS	신유빈, 김새별, 강동균, 홍예림, 박성빈
코디 네이터	박지원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문제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1. 발대식 일시: 2021.08.21.
2. 회의 방식: 비대면 ZOOM 활용
3. 회의 참석자: 박성빈, 홍예림, 강동균, 김새별, 신유빈
4. 회의 내용
  - ①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 ② 아동인권교육
  - ③ 공동주제 및 지역주제 모니터링 관련 논의
  - ④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5. 활동 세부내용
  - ① 지역주제에 대한 단원들의 의견  
신유빈: 놀권리(학업이 너무 중시된다)  
박성빈: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 강동균: 결식아동의 급식비 인상  
 김새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② 투표를 통해 권역별 주제 선정
    - 대전권역 주제: 결식아동 급식비
  - ③ 현황조사 방법 및 캠페인 활동 계획하기
    - 현황조사: 설문지
    - 캠페인 활동: 신문고 활용
  - ④ 정기회의 날짜 및 활동보고서 일정 정하기
    - 정기회의: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3시
    - 활동보고서: 매달 7일까지 제출
  - ⑤ 다음 회의 전까지 할 일
    - 권역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 설문지에 포함하고 싶은 내용 생각하기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대식 일시: 2021.09.04.</li> <li>2. 회의 방식: 비대면 ZOOM 활용</li> <li>3. 회의 참석자: 박성빈, 홍예림, 강동균, 김새별, 신유빈</li> <li>4. 회의 및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료조사 내용 공유</li> <li>② 설문지 대상과 내용 선정 및 제작</li> <li>③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li> <li>④ 추후 활동 계획</li> </ol> </li> <li>5. 활동 세부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료조사 내용                    전국에 약33만명의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급식카드 단가가 낮아서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때우고 있다. 광역시자체 5곳은 여전히 1식에 5000원으로 단가가 낮으며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결식아동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li> </ol> </li> </ol>

2008년, 소외되고 불우한 아동청소년을 위로하며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결식아동청소년지원협회가 창단되었다. 결식아동 한끼 비용 5,000원으로 편의점에서 90%가 끼니를 때웁니다. 결식아동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음식점은 전국 10%미만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8년 기준 끼리를 거르거나 영양을 공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인 전국 결식 위험 아동이 316, 234명이다.

② 설문지 대상 및 내용

[설문지 대상]

주변 어른 및 친구들

[설문지 내용]

1.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아나요?
  - 1-1 알게 되었다면 어디서 처음 알았나요?
  - 1-2 지금 현재 평균 급식비가 얼마지 알고 있나요?
2. 평소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을 본적이 있나요?
3. 얼마를 받아야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4. 결식아동을 위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5. 든든히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때 급식카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6. 한정된 사용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완성 설문지 아래 활동자료에 첨부\*

③ 추후 활동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국민 생각함 내용 작성 및 글 올리기

④ 다음 회의 전까지 할 일

- 활동보고서 작성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발대식 일시: 2021.09.25.
2. 회의 방식: 비대면 ZOOM 활용
3. 회의 참석자: 박성빈, 홍예림, 강동균, 김새별, 신유빈
4. 회의 및 활동내용
  - ① 1차 활동보고서 피드백
  - ② 설문지 결과 발표 및 의견 나누기
  - ③ 국민 생각함에 대한 교육 및 사용 방법
  - ④ 국민생각함 활동 역할분담 및 내용작성
5. 활동 세부내용
  - ① 설문지 결과에 대한 요약
 (\*구체적 결과 아래 활동자료에 첨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33분께서 참여해주셨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33명중 22명이 알고 있었고 11명이 모르고 있었다. (급식지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66%정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33% 정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알게된 경로는 책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된 경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을 통한 것이 4명, 자신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것이 2명이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22명 중 아는 사람이 6명, 모르는 사람이 11명이었다.

=> 급식지원에 대해 알긴 하지만 현재 자신의 거주신지역 지원금액은 모르고 있다.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을 본 적이 있는 아동은 8명, 못 본 아동은 25명이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28명, 반대하는 사람은 5명이었다. (급식지원 인상에 대한 찬성은 84%정도가 응하였고 반대는 15%정도) 한끼당 가장 적절한 지원금액을 설문한 결과 7000원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00원대 9명, 9000원 이상 5명, 6000원대 6명, 5000원 이하 3명 순이었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의 한정된 사용 장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용가능 음식점 확대 21명, 지원금액 인상 8명, 급식카드에 대한 인식 바꾸기 4명이었다.

결식아동 지원 방안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 지급 21명, 도시락 배달 11명, 단체급식 1명이었다.

## ② 국민 생각함 역할 분담 및 내용 작성

### 1. 역할 분담

모두 참여하되 한명이 대표하여 글 올리기

- 단원 전체: 글 내용 의견 작성
- 신유빈: 국민 생각함 글 올리기
- 박성빈, 홍예림, 강동균, 김새별: 글 아래 추가 의견 제시(덧글 참여)

### 2. 국민 생각함 내용

[단원들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각함 글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권역에서 아동인권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학생이며 저희 단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몇 달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주제로 아동인권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 여러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해당 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급식카드의 지원금액이 평균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년 전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인상된 지역도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끼를 먹기위한 금액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금액의 수준이 더욱 높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한끼당 금액이 아닌 한달 단위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욱 확대되고 아동들이 사장님께 여쭙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보편화된다면 아동들은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되어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것이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식단을 제공한다면 세금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카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들마다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은 현재 끼니를 전보다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곤 합니다. 도시락 배달 등과 같은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은 무척 중요하고 커가는 시점에서 먹는 문제는 더욱이 중요합니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 결식아동의 지원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다음 회의 전까지 할 일

- 활동보고서 작성
- 국민신문고 가입
- 국민신문고 글 올리기

###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1. 발대식 일시: 2021.10.16.
2. 회의 방식: 비대면 ZOOM 활용
3. 회의 참석자: 박성빈, 홍예림, 강동균, 김세별, 신유빈

#### 4. 회의 및 활동내용

- ① 2차 활동보고서 피드백
- ② 국민 생각함 활동 살펴보기
- ③ 더 나아가 생각해보기
  - 아동(자신)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 ④ 3차 활동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 5. 활동 세부내용

더 나아가 생각해보기

[더 나아가 생각해보기 시간 - 아이들의 의견]

질문 내용: 2021년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 어른들이나 사회에게 바라는게 있나요?

박성빈: 솔직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세별: 부모님과 의견차이(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데 부모님은 또 다른 걸 원해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1주일에 방과후나 시험, 숙제등이 많으면 15개정도 있어서 쉬는게 부족하다고 느껴요.

신유빈: 아동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하기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까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예림: 아동들의 의견도 잘 듣고 실행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동균: 코로나 시대의 등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른들이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권역별 주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 급식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 ✓ 결식아동을 위한 식당의 인지도가 적은 것은 식당 수의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어 식당들이 결식아동을 지원한다면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 식당들의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 ✓ 지원 급식비를 인상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급식비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 급식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싶다.
  - ✓ 사용 가능한 음식점 확대와 지원금을 올리는게 좋겠다. 편의점이나 햄버거집을 제외하고 식당 등 여러 음식점을 사용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에 대한 효과는 결식아동들이 한정된 곳에서만 먹다가 여러 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 ✓ 지원방안에 있어 코로나로 인한 지원 공백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강동균: 아직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그늘 속에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되어 슬펐고 아동의 인권의 대해서 토의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회의 동안 자신이 아동인권향상의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박성빈: 처음에는 아동인권에 대해 아는 게 없었는데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많은걸 생각하고 배운 것 같습니다.
- 김새별: 비록 코로나19때문에 zoom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체계는 굉장히 이번 활동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 어색함도 별로 없어 질 때 즈음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되어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희 대전권역을 맡아주신 지원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홍예림: 국민 생각함을 알았고 저희 나이에도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인권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재미있었고 벌써 끝나는게 실감이 안납니다.
- 신유빈: 직접 만나서 활동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화상으로라도 열심히 함께해서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서 부듯합니다. 이번 기회로 다른 친구들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다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대전지역의 우리 팀이 직접 정한 주제 안에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뜻깊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까지 공유할 수 있었어서 좋았습니다.
- 코디네이터 박지원: 코디네이터를 맡으며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아이들이 이 활동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아동인권에 대해 아는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리고 성장하며 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실현되도록 의미있는 활동을 만들고자 하는 것 이었습니다. 처음 코디네이터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자의 입장에 있었기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무척 어색하였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수록 더욱 가까워졌지만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법에 있어서 틀렸던 부분이 있었기에 미안함도,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믿고 따라준 대전권역 단원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디네이터 활동은 저에게 있어 후에 생각해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교사를 꿈꾸는 저에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진심을 대면하는 경험은 보다 해당 꿈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아동인권에 대해 저도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성을 하기도하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에 대해 생각도 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실무진분들과 관계자 분들, 각 권역의 코디네이터분들, lens단원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힘써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설문지]

#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중인 대전권역팀입니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으로 능동적인 활동을하며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아동권리 수준의 도약을 도모합니다.

저희 대전권역팀의 주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로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알기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필수항목 입니다.

### 1.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아시나요?

- 예
- 아니오

#### 1-1.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언제 처음 알게되었나요?\*

- 내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
- 책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 기타 :

#### 1-2.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2. 평소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을 본적이 있나요?\*

- 본적있다.
- 본적없다.

3.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현재 한끼당 평균 지원금액은 5500원입니다.

- 찬성합니다.
- 반대합니다.

4. 한끼당 지원금액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 5000원 이하
- 6000원대
- 7000원대
- 8000원대
- 9000원 이상

5.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한정된 사용장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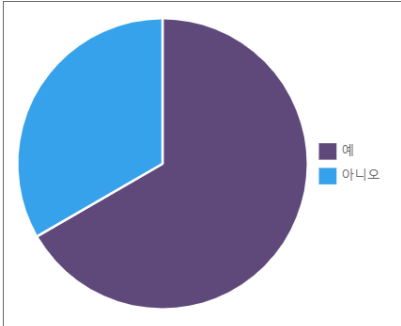
- 지원금액 인상
- 사용 가능한 음식점 확대
- 급식카드에 대한 인식 바꾸기
- 급식카드에 대한 홍보
- 기타 :

6. 다음 결식아동 지원 방안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급식카드 지급
- 단체급식
- 도시락배달
- 기타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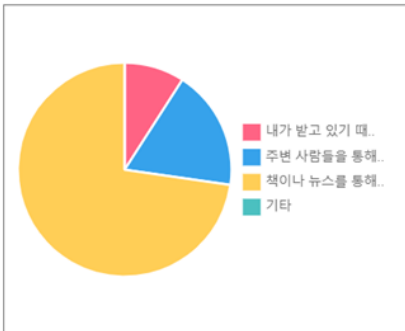
1.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아시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input type="checkbox"/> 예	22 66.7%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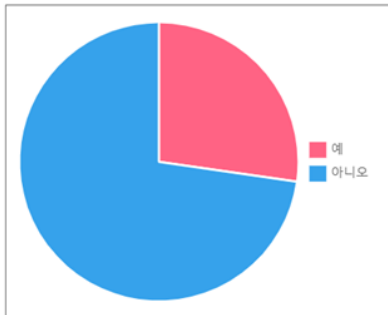
1-1.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언제 처음 알게되었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input type="checkbox"/> 내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6.1%
<input type="checkbox"/>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4 12.1%
<input type="checkbox"/> 책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16 48.5%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답 없음	11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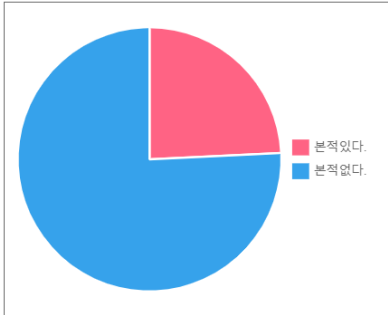
1-2.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input type="checkbox"/> 예	6 18.2%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48.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답 없음	11 33.3%

2. 평소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본적있다.	8 24.2%
<input checked="" type="radio"/>	본적없다.	25 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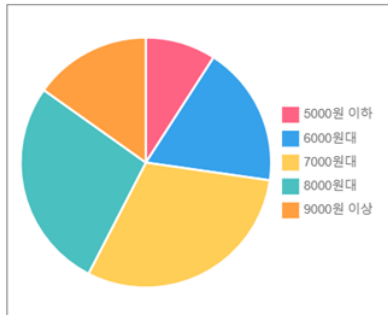
3.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찬성합니다.	28 84.8%
<input checked="" type="radio"/>	반대합니다.	5 15.2%

4. 한끼당 지원금액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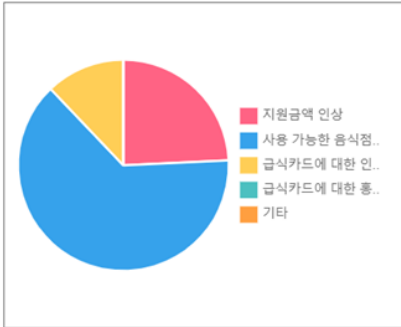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type="radio"/>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5000원 이하	3 9.1%
<input checked="" type="radio"/>	6000원대	6 18.2%
<input checked="" type="radio"/>	7000원대	10 30.3%
<input checked="" type="radio"/>	8000원대	9 27.3%
<input checked="" type="radio"/>	9000원 이상	5 15.2%

5.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한정된 사용장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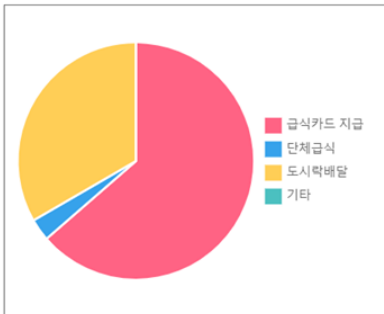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비율
지원금액 인상	8	24.2%
사용 가능한 음식점..	21	63.6%
급식카드에 대한 인식 바꾸기	4	12.1%
급식카드에 대한 홍보	0	0%
기타	0	0%

6. 다음 결식아동 지원 방안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비율
급식카드 지급	21	63.6%
단체급식	1	3%
도시락배달	11	33.3%
기타	0	0%

[국민 생각함 글 올리기]

결식아동과 관련하여 생각을 공유합니다



신유민 님의 생각 | 2021.10.07    ☆    ♥ 1    💬 3

안녕하세요. 대전권역에서 아동인권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학생이며 저희 단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몇 달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주제로 아동인권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 여러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방안을 제안하기위해 해당 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급식카드의 지원금액이 평균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년 전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인상된 지역도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끼를 먹기위한 금액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금액의 수준이 더욱 높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한끼당 금액이 아닌 한달 단위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욱 확대되고 아동들이 사정님께 여쭙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보편화된다면 아동들은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되어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것이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식당을 제공한다면 세금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카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들마다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은 현재 끼니를 전보다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 등과 같은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은 무척 중요하고 커가는 시점에서 먹는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 결식아동의 지원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2021-10-15 20:38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에 동의 합니다 급식을 잘 못먹는 아이들을 더 잘먹을수 있고 못먹는 아이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하루를 배부르게 끼울수 있는 점이 저의 바라는 점입니다

신고

답글 0

😊 0

😞 0

---

**dk123** 2021-10-15 20:24

안녕하십니까  
전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족한 급식비와 제한된 사용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지금의 아이들은 제한된 품목에 항상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부족한영양소로 인한 저체중  
한쪽으로 치우 치진 영양소로 인한 비만과 각종 질병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 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답글 0

😊 0

😞 0

---

**새별08** 2021-10-08 19:33

안녕하세요  
저도 이 글과 마찬가지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더욱 많아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카드가 아닌 도시락 배달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결식아동들에게 한 번이든 그 이상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답글 0

😊 0

😞 0

**[활동사진]**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241

## 부산 LENS

LENS	강준재, 엄동현, 김동환, 권예지, 원소연, 성소미, 성리교
코디 네이터	고수연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학대

### 3개월간의 발자취

Step1. 발대식
1. 회의 일시 : 2021.08.07
2. 회의 방식 : 비대면
3. 회의 장소 : 줌 활용 비대면 회의
4. 회의 참석자 : 강준재, 권예지, 김동환, 성리교, 성소미, 엄동현, 원소연
5.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공동주제 설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온라인수업에 아동들의 의견이 들어갔는지 코로나 상황과 온라인 수업 이미지를 보여주며 아동들에게 질문함</li></ul></li><li>② 아동 인권교육<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리엔테이션 당시 들었던 내용과 ppt를 참고하여 아동 인권교육 진행</li></ul></li></ul>



- ③ 권역 주제 선정 및 월별 활동 방식 논의
  - 아동들에게 원하는 주제를 질문 후 투표를 통해 아동학대로 선정
  - 월별 활동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은 정기회의에서 정하기로 함
  - 8월 :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한 자료조사
  - 9월 :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한 자료조사
  - 10월 : 8,9월 활동을 바탕으로 캠페인 활동(SNS)
- ④ 회의 날짜 및 활동 규칙 논의
  - 월별 회의 날짜는 일요일 오전 10시 중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08.22
2. 회의 방식 : 비대면
3. 회의 장소 : 줌 활용 비대면 회의
4. 회의 참석자 : 강준재, 권예지, 김동환, 성리교, 성소미, 엄동현, 원소연
5. 회의 내용
  - ① 월별 세부 활동계획 논의(권역별 주제)
    - 8월 : 설문조사팀과 인터뷰 팀으로 나누어 각 활동의 대상과 질문 논의
    - 9월 : 팀별 모니터링 활동 진행 및 결과 공유 후 카드 뉴스 초안 작성
    - 10월 : 카드 뉴스 제작 후 단원들 각자 SNS에 릴레이 형식으로 업로드
  - ② 설문조사와 인터뷰 대상 및 질문 논의
 

설문조사팀, 인터뷰팀으로 나누어 질문 및 대상 논의하였으며 질문 및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인터뷰 팀
    - 대상: 설문조사팀 & 반 친구들 각 2명
    - 질문
    - 1.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으신가요?
    - 2.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3. 아동학대를 당하면 어떤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상: 아동학대 관련 기관담당자(협회에 인터뷰 대상 도움 요청 후 구체화하기로 결정)  
질문

1. 아동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목격하셨다면 당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2.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3. 올바른 아동학대 신고법이 궁금합니다.
4. 아동학대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기관에서 어떤 대처를 하나요?
6.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설문조사팀

대상 : 아동 & 부모님

질문(네이버 폼 링크 공유(각자 20명씩)로 진행)

1.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 있나요?
2.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아동학대 신고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4. 아동학대 신고 후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09.12
2. 회의 방식 : 비대면
3. 회의 장소 : 줌 활용 비대면 회의
4. 회의 참석자 : 강준재, 권예지, 김동환, 성리교, 성소미, 엄동현, 원소연
5. 회의 내용
  - ① 각 팀별 활동 결과 공유

- 설문조사팀  
9/1~9/10간 진행, 총 78명 참여  
대상 : 아동, 부모님

질문

1.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 있나요?

답변 :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음.

2.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집> 어린이집> 학교 순이었음,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을 확인 후, 그에 맞는 예방법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3. 아동학대 신고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답변 :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음. 신고법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4. 아동학대 신고 후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대응 절차)

답변 :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음.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 주요 답변으로는 처벌 강화나 법 강화, 더 많은 관심 가지기, 관련 교육 진행 노력 등이 있었음. 설문조사팀 또한 이 문항을 보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늘리고 주변에 대한 관심도 늘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인터뷰팀

대상1 : 반 친구 2명, 설문조사팀

1.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으신가요?

답변1 : 흔히 훈육이라고 부르는 위해를 가하는 행동까지 아동학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2 : 아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폭력을 당하면 아동학대다.

답변3 :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하거나, 욕하는 것.

답변4 : 뉴스에서 본 기억으로는 사소한 언어폭력도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변1 : 아동학대를 당하면 아동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답변2 : 믿을 수 있는 주변 어른이나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

답변3 : 주변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기, 숨기지 말고 주변에 알리기(선생님 등).

답변4 : 경찰이나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를 어떤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답변1 : 몸만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다.

답변2 :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답변3 :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변4 :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것 같고,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부모님께 학대를 당한 거라 살아가면서 계속 괴로울 것 같습니다.

대상2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하효준 주임님

1. 아동학대 당한 학생들 목격하셨나요? 목격하셨다면 학생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 일을 하면서 본 적이 있다. 그때 학생들은 공포심이 둘러싸여 있고 불안한 상태였다.

2.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 아동학대 80%는 부모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다. 그 밖에도 아동이 있는 장소인 지역아동센터, 학교, 학원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3. 올바른 아동학대 신고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상담 전화 129로 전화해 도움을 받거나 112로 신고를 한다. 신고 시에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추정되는 학생의 인적 사항과 목격한 행위,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을 자세해 묘사하여 전하면 더 도움이 된다. 신고 후 보복으로 선뜻 나가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한다.

4. 아동학대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뒤 발생지, 아동의 거주지 및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청에 그 사건이 전달되거나 구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다. 이를 거친 후 학대 행위 사실을 기반으로 학대 행위가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이가 인정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으로 사례가 전달되어 아동학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처리한다.

5.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기관에서 어떤 대처를 하나요?

답변 : 주 1회나 월 1회로 가정방문을 하고 재학대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가정을 회복하도록 상담 등을 통해 이를 돕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이 불가할 때는 구청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사례를 진행한다.

6.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친구가 마음을 풀고 말을 할 수 있게 상담을 해주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자고 말한다. 또한 위 인터뷰 답변을 친구들에게 알려준다.

② 카드 뉴스 초안

- 활동 방식 : 방 탈출 패러디(릴레이로 진행)로 진행

예시

[https://instagram.com/escape\\_happy\\_room?utm\\_medium=copy\\_link](https://instagram.com/escape_happy_room?utm_medium=copy_link)

- 내용 : 표지 - 자주 일어나는 장소 - 신고법과 신고 절차 - 신고 후 절차 -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 기관에서의 대처법 - 친구들을 돕는 법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1.10.24

2. 회의 방식 : 비대면

3. 회의 장소 : 줌 활용 비대면 회의

4. 회의 참석자 : 강준재, 성리교, 엄동현, 원소연

5. 회의 내용

① 카드뉴스 구체화 및 업로드

- 표지 : 아동학대 멈춰! 라고 표지를 만들 그 이유는 요즘 유행어를 사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

-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라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적극적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 아동학대 80%는 부모로부터 발생하기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그 외 학교, 학원 등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

- 신고법 : 아동학대 상담 전화 129나 112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목격 학대 행위 등 신고내용을 자세히 말해야 함. 신고자의 신변은 법에 의해 보장됨
  - 신고 후 절차 : 경찰이 1차적으로 조사 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조사에 참여함. 학대 행위 사실 여부 판단 후 전담 공무원이 사건을 처리하고 그 후 관련 기관으로 사례가 전달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짐
  - 기관에서의 대처법 : 상담·치료 및 교육,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재학대 방지 업무 수행이 이루어짐
  - 아동학대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이 부분은 단원들이 각자 생각한 예방법을 단독에 올린 후 투표를 진행하여 두 가지를 뽑아 작성함
  - 친구를 부담스럽지 않게 돕는 법 : 평소와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아동학대에 대해 묻고, 만약 아동학대를 당했을 시 해당 카드 뉴스 내용을 알려주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함
- ② 3개월 간 모니터링 활동 소감 발표(아래 활동소감란 참고)

### Step5. 활동결과 및 아동 제안

- 공통주제
  - ✓ 현재 비대면 수업에서도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 거리두기로 인한 이론 수업 증가(토론, 실습 등 감소)에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점이 그 예입니다. 이런 수업방식을 시행하기 전 아동에게 미리 설문으로 조사를 받아 아동이 원하는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미 정해진 수업방식을 진행해야 할 시 아동에게 수업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권역별 주제: 아동학대
  - ✓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지만, 부산권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 아동학대의 정의, 심각성 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신고법, 신고 절차, 신고 후 기관에서의 대처 등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신고법을 알리는 것이 아동,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도움이 되는 점을 알리는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Step6.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강준재 :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해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경험하지 못한 이런 회의 같은 것을 하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회의를 한 것을 토대로 활동을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 권예지 : 활동을 통해 뉴스로만 보던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아동학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듣고 찾아볼 기회가 되어 좋았고,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하며 카드 뉴스를 만들기 위한 진행방식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 김동환 :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우리 아동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단원들과 나누었던 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시험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정말 아쉽고 남은 단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 성리교 : 3개월 동안 LENS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고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 성소미 : 평소 친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었는데, 인터뷰를 위해 질문을 만들다 보니 막상 물어봐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질문을 생각하니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위한 준비를 하며 어떤 캠페인 활동이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와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신기했고 주변에 친구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다가가서 도와줘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엄동현 : 이번 활동을 하며 아동이 주체가 되어 직접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원소연 :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방법과 신고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관련 교육 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코디네이터 고수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단원들이 모두 초중등생이어서 소통과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각 활동을 할 때 아동이 어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아동들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많아 비대면 수업에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이모티콘과 마스크를 보여주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 제한된 수업방식(활동적인 수업보다는 이론적인 수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이모티콘을 보여주며 이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방식처럼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 등을 들어 설명 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발대식부터 10월 회의까지 모든 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부끄러워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단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원들끼리 팀을 나눠 활동을 진행할 때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이크를 켜고 말하기보다는 채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팅창을 활용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반부에는 단원들이 원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여 평소 소극적인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채팅 등 여러 방법으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목소리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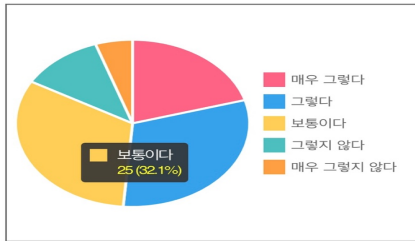
OT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수업을 듣고, 아동 인권교육을 직접 진행하며 아동 권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주제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큰 관심이 있지 않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단원들과 저 모두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이나 교육을 사람들이 좀 더 접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전 아동이 과연 이 활동들을 잘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문조사, 인터뷰 질문 및 대상 선정부터 진행, 캠페인 활동까지 모든 활동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개월간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날 이런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고, 아동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사회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아동은 그럴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동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코디네이터 활동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아동이 주체가 되어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3개월 동안 코디하며 아동이 직접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고, 다음 연도에도 기회가 된다면 코디네이터로 다시 한번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Step7.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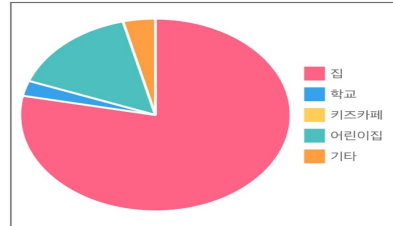
### [9월 활동]

#### 1.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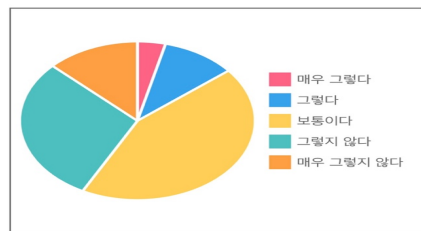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16	20.5%
<input type="radio"/> 그렇다	24	30.8%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25	32.1%
<input type="radio"/> 그렇지 않다	9	11.5%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4	5.1%

#### 2.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type="radio"/> 집	61	78.2%
<input type="radio"/> 학교	2	2.6%
<input type="radio"/> 키즈카페	0	0%
<input type="radio"/> 어린이집	12	15.4%
<input type="radio"/> 기타	3	3.8%

#### 4. 아동학대 신고 후 관련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나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3	3.8%
<input type="radio"/> 그렇다	8	10.3%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34	43.6%
<input type="radio"/> 그렇지 않다	23	29.5%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지 않다	10	12.8%

#### 5.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 옆에서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봐 주고 멍 자국이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께 살짝 말씀드려서 그 친구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동학대 범종 올리자 제발

어른들에게 아동학대 교육을 한다

.

유쾌한 가족분위기를형성하기위해 노력한다

안때리면 됩니다

국가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극복 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어른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믿을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CCTV를달아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이 없는지 살펴본다

함께 알아가요!  
**아동학대 멈춰!**



아동학대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합니다.

80%

부모로부터 발생  
따라서,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



가정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학교, 학원 등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아동학대는 발생합니다.

신고법

- ① 아동학대 상담 전화 129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
- ②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의에 보장됩니다.\*

- ① 신고자의 이름 및 연락처
- ✓ ②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
- ③ 목격한 행위, 행위자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행동을 자세히 묘사
- \*신고 내용이 자세할수록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 절차

- ✓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 ① 경찰이 1차적으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 ② 아동의 거주지 및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청에 사건이 전달되거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조사를 참여합니다.
- ✓ **학대 행위 사실 여부 판단 후,**
  - 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건 처리를 진행합니다.
  - ②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전달됩니다.
  - ③ 기관에서 아동학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처리합니다.

기관에서의 대처법

- ✓ **상담 치료 및 교육**
  - ① 피해 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가 대상
  - ② 가족 기능 회복 및 강화 목적
  - ③ 지속적으로 실시
- ✓ **사례관리-서비스제공**
  - ① 피해아동을 위한 법적 절차 안내 및 지원
  - ② 아동 및 가정에 필요한 지원 확인 후 연계
  - ③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회의
- ✓ **재학대 방지 업무 수행**
  - ① 주1회 혹은 월 1회 가정방문으로 실시
  - ②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로 인한 유유증 감소 목적
  - ③ 재학대 모니터링 및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LENS 부산권역 친구들이 생각한 아동학대를 막는 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많이 접한다.  
② 아동학대 발생 조짐이 보일시 관련기관 또는 112에 신고한다.

부산권역 설문조사 팀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이 있나오 라는 질문에 32.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법에 대해 알고 있나오 라는 질문에는 32.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하여 위 두문항을 택했다.

**아동학대 피해친구를 목격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돕는 법은 무엇일까요?**

① 평소와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물어본다.  
② 해당 카드뉴스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알리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배운 친절과 관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9:09 📶 🔋

SO\_MMMMMMMMI 팔로우

게시물

10월 27일



so\_mmmmmmmmi

...



2/3

아동학대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합니다.

♡
💬
📌
...
🔖

좋아요 15개

so\_mmmmmmmmi 흉도 제대로 안치워져 있는 등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지 않은 현관이다. 집 안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곳 같다. 집안으로 이동해보자.  
(아래 계정을 클릭해서 이동하자)  
@xxcccc.cxx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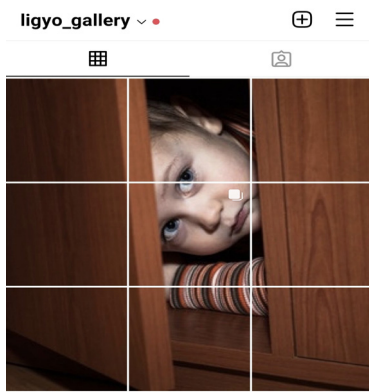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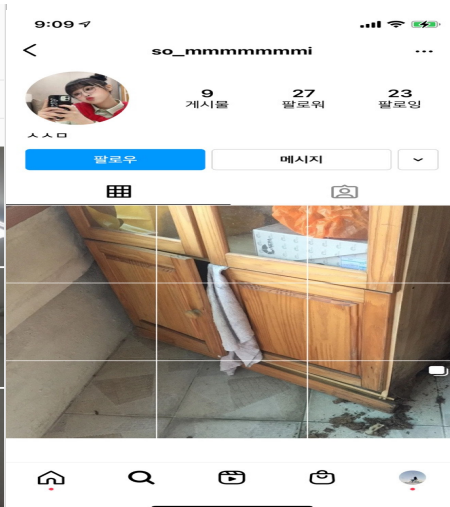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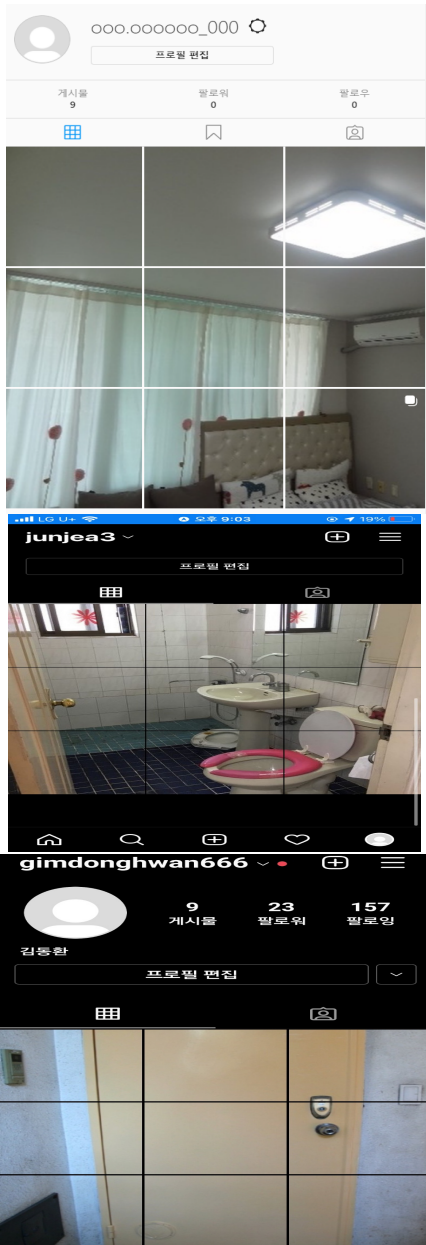
10월 27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서울특별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방탈출 카드뉴스]



## 경남 LENS

LENS	윤희람, 구민경, 양현비
코디네이터	박은빈

###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지정 속도(30km) 미준수 차량의 문제점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고 어떠한 계기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동인권교육에서는 아동의 정의, 인권과 아동 인권의 의미, 아동인권의 발달 역사, 아동 권리협약, 권리 책임 등을 교육하고 인권교육이 끝난 후에 LENS단의 목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3개월 간의 활동 계획을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코로나 19로 변화한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이 설문지에 넣고 싶은 문항들을 이야기하고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 아동들에게 궁금한 교육권과 관련한 문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총 6개의 문항을 확정짓고 설문 대상과 설문 방법, 설문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코로나 19로 변화한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새로 함께 하게 된 아동을 소개하며 10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월 활동에서 하기로 했던 포스터 제작 및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포스터에 어떤 그림과 문구를 넣고 싶은지,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Step4.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윤희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LENS단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 구민경: 이번 참여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포스터를 제작할 때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양현비: 이런 활동은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흥미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의 소중한 아이들이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을 위해 처하게 만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느꼈습니다.
- 코디네이터 박은빈: 처음엔 제가 아동들에게 인권교육을 해주고 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아동인권 자체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아동인권과 교육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3개월 간 저의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야할지 깨달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를 성인의 시선이 아닌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Step5.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설문조사]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1.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전자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기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나요?
3.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4. 학교 수업의 모든 활동을 모두 별 비대면 활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모든 별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5.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남권역 설문조사지

### [포스터 제작]



[캠페인]



모정 11:31

오 모정 11:31

30km 이하 차량운전을 하라고 캠페인 하는 중!

모정 11:31



침만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가야 되겠어.

모정 11:31



## 제주 LENS

LENS	천수리, 박예은, 신아름, 김다솔, 고하은, 박세진, 김민주, 김민서, 고아라
코디네이터	이종렬

### 활동주제

공동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주제	상벌점제도는 아동을 위한 것인가?

## 3개월간의 발자취

### Step1. 발대식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인권교육을 진행함.
- 공동주제인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며 재난 상황(코로나19) 속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현재 중학생인 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였는데 특히 원격 수업의 지루함, 사회적 관계 부재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의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는 아동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논의하게 됨. 특히 제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벌점 제도가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동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판단함. 주체성을 지닌 인간 양성이 아닌 ‘학생다움’이라는 애매한 개념에 매몰된 교육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를 느낌. 해당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제주 단원들은 ‘상벌점제도는 아동을 위한 것인가?’의 주제로 상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인권침해적 요소 등을 알아보기로 함.

### Step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단원들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활동 상황을 공유함.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상벌점제도가 아동의 자아개발과 잠재성을 발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 내용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함. 활동이 이해 당사자인 아동들의 주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살펴보기로 함.
- 제주도 내의 45개의 중학교 중, 41개의 학교에서 상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4개의 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단원들은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과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학교의 상벌점 세부 내용을 비교 조사함.
- 인터뷰와 조사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음.
  - ① 학생생활규정 또는 상벌점 제도의 제·개정은 매년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회'가 참여하는 학칙제·개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② 인터뷰에 응해준 학생은 모두 상벌점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음.
  - ③ 개인 소지품, 용의 복장,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까지 제한을 두는 학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음.
  - ④ 상벌점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 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었음.

### Step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지난 활동을 통해 단원들은 '상벌점제도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띄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
- 실제 결론을 내리기 앞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벌점제도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벌점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제작함.
- 단원들이 재학중인 학교 학생들(1학년 30명, 2학년 202명, 3학년 30명)과 교사(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설문문항과 결과는 별첨함)

Step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설문 결과 학생, 교사 모두 상벌점 제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임. - 아래는 설문의 주요 내용임.		
학생	교육에 긍정적 (매우 긍정+긍정)	교육에 부정적 (매우 부정+부정)
	39.7%	15.2%
교사	교육에 긍정적 (매우 긍정+긍정)	교육에 부정적 (매우 부정+부정)
	33.3	5
학생	합리적으로 운영되는가? (매우 + 약간)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가? (매우 + 약간)
	61.4	38.4%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매우 + 그렇다)	(전혀 + 그렇지 않다)
	43.4%	56.4%
교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매우 + 그렇다)	(전혀 + 그렇지 않다)
	38.8%	61%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Step6. 활동결과 및 활동자료' 참고)

-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부분에 대해 단원들이 회의를 거쳤고, 아래와 같은 생각들을 나눔.
  - ①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은 학교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벌점제도는 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② 상벌점제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감정과 주관이 개입되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 상벌점제의 모든 항목이 인권 침해적인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서술식 설문 답안(별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③ 학생 대부분은 상벌점을 통한 자신의 행동 변화가 거의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64.1%), 교사의 경우 상벌점제가 교육적이다(88.8%)라고 판단한 비율이 높아 상벌점제의 실효성에 대한 괴리가 있었음. 또 상벌점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앞선 조사 내용으로 보아 대부분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은 상벌점제로 인해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일 수 있음.
  - ④ 실제 학교에서 상벌점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소위 부적응 학생들인데, 교사들은 이 학생들에게 상벌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비율이 77.7%로 높았음. 이 부분에서도 상벌점제도는 대다수의 학생 생활 지도에 큰 실효가 없다고 판단됨. 상벌점제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⑤ '상벌점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56.4%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답한 43.4%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43.4%의 비율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됨.
  - ⑥ 특히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성숙한 인식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런 내용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느냐?"하며 놀라는 경우가 많음.
  - ⑦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기초로 하여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연구를 해보고 싶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여 아쉬운 마무리를 짓게 됨.
- 단원들의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 되었지만 본 결과를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학생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어 전체 교직원 회의가 열림. 학교생활 제규정에 대한 성찰적 논의와 상벌점제도의 교육적 실효성,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토의 등 생산적 논의가 있었음.

### Step5. 활동소감(LENS, 코디네이터)

- 고아라 : 아동 인권 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을 조금이나마 표출하고 싶다는 목적 때문이었으나, 활동을 하며 자료 조사와 인터뷰,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접하며 단순한 비판만이 아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단순히 내가 느끼는 불합리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개선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그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제도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이점을 똑같이 주게 할 수는 없을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며 이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고민했고, 이것은 단순히 나의 학교 생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세달동안 학업과 활동을 병행해야 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 고하은 : 렌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생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분명 아동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학교들은 그에 위배되는 교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벌점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제주도, 나아가 대한민국 학교들의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이 바뀔리는 없으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변화가 오는 날이 생기리라 생각한다.
- 김다솔 : 렌즈활동을 하면서 상벌점 제도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볼수 있었고, 렌즈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직접 상벌점 제도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아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것 같습니다. 렌즈 활동으로 저는 되게 많은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아 '렌즈활동 하기를 잘 한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활동으로 신성여자중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상벌점 제도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기쁘고, 부듯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활동이 있다면 그때는 직접 더더욱 나서서 많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 김민주 : 아동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LENS활동을 통해서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라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 김민서 : 우리 주변에 있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신아름 : 인권 모니터링단 렌즈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 상벌점 제도라는 주제가 좀 평범하고 흔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주에만 흔하였고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는 많이 사라져있고 사라지는 추세라는 걸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전에는 상벌점제도 자체에 거부감이 많이 들었는데 조사를 하고 하나씩 배워나가니깐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드신 제도구나를 잘 알게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 박세진 : 학생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서 좋았다.
- 박예은 : 4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아동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아동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주 권역은 타지역과는 다른 주제를 진행하였는데, 덕분에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 천수리 : LENS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으나. 부정적인 감정은 오래 남는다는 말이 되새겨질 만큼, 단원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다같이 활동하며 적지 않은 성취를 이루긴 하였다는 생각도 함께 들어, 기쁨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LENS에 신청했던 동기와 같이, 아동 인권에 대해 몇 발자국 더 알아가고 싶었다는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성취감이 들기도 하면서 부듯하였고. 활동이 마무리 된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코디네이터 이종렬: 전체 권역 공통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이래도 괜찮을 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학생 인권의 바람이 다소 늦게 불고 있는 제주 지역에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단원들과 공유하였기에 차별성을 강조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만 보면 단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결과와 달라서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도출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생활규정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조금씩 움트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단원들의 수고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규칙’은 개개의 자유를 통제하여 공동체의, 나아가 개인의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통제를 위한 통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권역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 규칙에 대한 본질적 성찰과 학생 인권 확대의 움직임이 작게나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Step6. 활동사진 및 활동자료

### [설문조사]

#### 상벌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교사용)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재주 권역 단원'들의 활동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동 인권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오니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상벌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에 매우 긍정적 0
- ② 교육에 긍정적 33.3%
- ③ 보통이다 61.1%
- ④ 교육에 부정적 5%
- ⑤ 교육에 매우 부정적 0

##### 2. 상벌점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학생다움을 교육 18.1%
- ② 규칙 준수를 위해 72.7%
- ③ 학교 폭력 예방 0%
- ④ 교권 존중 9%
- ⑤ 학생 인권 존중 4.5%
- ⑥ 기타 : ( )

##### 3. 상벌점제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0
- ② 그런편이다 88.8%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1%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0

##### 4. 선생님은 상벌점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많이 활용한다 5.5%
- ② 약간 활용한다 83.3%
- ③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5.5%
- ④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다 5.5%

##### 5. (활용한다면)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 통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46.1%
- ②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53.8%
- ③ 기타 : ( 교육적 동기부여, 대안 부족, 행동에 대한 의미 부여 )

##### 6.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 통제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75%
- ②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5%
- ③ 기타 : (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미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음 )

7. 동료교사들이 상벌징제 운영에 적극적이라고 보십니까?  
 ① 대부분 적극적이다 16.6%  
 ② 대부분 소극적이다 22.2%  
 ③ 반반이다 61.1%
8. 상벌징제의 학생에 대한 통제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0  
 ② 약간 크다 72.2%  
 ③ 약간 작다 22.2%  
 ④ 거의 없다 5.5%
9. 상벌징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교육적이다 0  
 ② 약간 교육적이다 88.8%  
 ③ 약간 비교육적이다 11.1%  
 ④ 매우 비교육적이다 0
10. 상벌징 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0  
 ② 그렇다 38.8%  
 ③ 그렇지 않다 55.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5%
11. 상벌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정하다 5.5%  
 ② 공정한 편이다 83.8%  
 ③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11.1%  
 ④ 매우 불공정하다 0
12. 학생들이 상벌징제를 잘 수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수용하는 편이다 44.4%  
 ② 약간 수용하는 편이다 50%  
 ③ 약간 거부하는 편이다 5.5%  
 ④ 매우 거부하는 편이다 0
13. 소위 부적응 학생에게는 상벌징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 33.3%  
 ② 동의하는 편 44.4%  
 ③ 반대하는 편 22.2%  
 ④ 매우 반대 0
14.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5. 선생님의 연령은?  
 ① 20대 ~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응답이 큰 힘이 됩니다.



### 상벌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학생용)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LENS 제주 권역 단원'들의 활동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동 인권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오니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벌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에 매우 긍정적 8.4%
- ② 교육에 긍정적 31.3%
- ③ 보통이다 44.9%
- ④ 교육에 부정적 8.8%
- ⑤ 교육에 매우 부정적 6.4%

2. 상벌점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학생다움을 교육 17.5%
- ② 규칙 준수를 위해 63.9%
- ③ 학교 폭력 예방 6.8%
- ④ 교권 존중 8.7%
- ⑤ 학생 인권 존중 2.8%
- ⑥ 기타 : ( )

3. 상벌점제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9.6%
- ② 그런편이다 65.2%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2%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6%

4. 평소 학교생활을 할 때 상벌점을 의식하는 편인가요?

- ① 매우 의식한다 28.7%
- ② 약간 의식한다 58.7%
- ③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12.4%

5. 상징이나 벌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상징과 벌점을 골고루 받았다 8.7%
- ② 대부분 벌점을 받았다 3.5%
- ③ 대부분 상징을 받았다 70.9%
- ④ 상징이든 벌점이든 받은 경험이 없다 16.7%

6. 상벌점제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합리적이다 18.5%
- ② 약간 합리적이다 42.9%
- ③ 약간 불합리하다 30.9%
- ④ 매우 불합리하다 7.5%

7. 선생님들이 일관되게 상벌점을 부여하시나요?

- ① 매우 그렇다 12%
- ② 그렇다 51.2%
- ③ 그렇지 않다 30.6%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6%

8. 선생님들이 상벌점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 ① 대부분 활용하신다 34.4%
- ② 일부만 활용하신다 58.9%
- ③ 거의 활용하지 않으신다 6.6%

9. 상벌점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좋게 변화되었다 6.5%
- ② 약간 좋게 변화되었다 22.2%
- ③ 아무런 변화가 없다 64.1%
- ④ 약간 나쁘게 변화되었다 4.3%
- ⑤ 매우 나쁘게 변화되었다 2.6%
- ⑥ 기타 : ( )

10. 상벌점 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그렇다 13.4%
- ② 그렇다 30%
- ③ 그렇지 않다 47.5%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9%

11. 상벌점 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서술 : ( )

12. 상벌점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나요?

서술 : ( )

[설문조사 세부 결과]

11. 상벌점 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고만 하니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자유를 위축시킴
상벌점으로 협박을 많이 한다.
꾸미는 것을 다 막아 놓으면 학생은 대체 무슨 재미로 학교를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다
학생다움을 강조하는데, 학생다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권침해적이라고 생각한다.
벌점으로 끝나지 않는 물건 압수 등
따를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는 부조리한 교칙이 있다. 내 양심이 더 우선하는데 그 교칙에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학생의 외적 표현 부분도 통제한다.
자신의 개성을 맘껏 뽐낼 수 없다.
학생이 원하는 걸 막는게 너무 많다.
자유가 없어짐
학생이 불편하니까 실행하는 건데 선생님 눈에 보기 안 좋다고 벌점주는 것.
선생님은 해도 되는데, 학생은 안 된다고 하는 것.
학생의 자유 무시
지나치게 학생다움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
개성있게 자신을 꾸밀 자유를 빼앗아감
화장 못하는 것. 못 꾸미는 것.
자유롭지 못함.
학생의 자유가 억압된다.
자유가 약간 억압 당하는 느낌이 있다.
표현의 자유
모든 행동을 벌점으로 막는다.
어두운 톤으로 염색이 불가능한 것. 중학교 입학 전 뽀은 피어싱이 착용 불가능한 점. 붉은 색 점퍼 등을 입지 못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발 자유.
제약이 과하게 많다.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약시켰다.
복장. 강요.
두발 자유
학생의 자유에 피해를 준다.
예를 들면 귀걸이를 끼고 싶은 학생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
화장이나 머리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등 규제
학생 용의복장 관련 항목들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개성을 표현할 자유를 억압받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막는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한다.
학생다움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학생다움을 강조한다.
악세사리 착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학생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상벌점제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등 외모와 관련된 부분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학생도 꾸밀 수 있는데 꾸미는 거에 벌점을 준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두발 규제, 체육복 등하고 제한
복장, 등하교, 용모, 외부활동 규제
식발금지, 체육복 등교 금지

엄색, 파마가 아닌 이상 머리스타일에 자유를 주면 좋겠다.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의상, 헤어스타일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두발 규정, 교복 강요 자체가 인권침해다.
의상을 지적하는 것
학생 자유 침해
식발금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두발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개성을 뽐내지 못함.
학생이 원하는 복장, 행동 등을 지나치게 규제한다.

12. 상벌점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나요?

벌점 중 왜 벌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상점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상벌점으로 협박을 많이 하고 편애하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고 벌점은 봐준다. 자기 맘대로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상점을 주었으면 한다.
벌점은 많이 주면서 상점은 아예 안 주시니까 상점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벌점을 받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벌점을 주었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게 남모르게 선행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앞에서만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가는 상점이 문제가 있다. 상점을 부여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일부만 보는 선생님 대신 함께 어울리고 그 친구의 평소 행동을 아는 학우들에게 물어본 후에 부여했으면 좋겠다.
상점은 안 주시면서 벌점만 많이 줌
학생 인권을 무시한다. 상벌점제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학생의 기본적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평하지가 않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상벌점 부여.
상벌점 부여가 선생님마다 다르고 어떤 것을 시키실 때 상벌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행이 아닌, 이걸 하면 상점을 주실까 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상벌점 부여 방식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에 영향을 줌
일관되게 평등하게 상벌점을 사용하여 부여했음 한다.
쓸데없는 교칙이 너무 많음. 있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고 교칙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이 교칙이 왜 있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신다.
이상한 이유로 상벌점을 주시지 않았으면 한다. 규칙에만 따라 주시면 좋겠다.
우리학교는 너무 딱딱하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통제하는 것 같긴 하다.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닌

교칙에 맞게 상벌점을 주셨으면 좋겠다.
상징과 벌점을 골고루 부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풀어져 있다.
분배가 불평등하다.
눈에 띄는 아이들만 주지 말고 균등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협박용으로 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도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어르고 달래주었으면 좋겠다.
협박을 해서 자아 손상 및 자존감 저하를 불러일으킴
너무 상벌점제도에만 열매일 수 있다.
약간 협박용으로 쓰이는 듯...?
상벌점 제도를 학생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점을 받을 때 학생이 공정하게 대우받았으면 한다.
생활지도와 관련없는 규칙도 제약하는 점.
상점을 받을 수 있는 행동보다 벌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더 많다.
학생의 행동이나 생각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잘못이다.
악용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벌점 주고 어떤 사람은 벌점 안 줌
학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벌점을 준다.
교복의 길이나 하교할 때 체육복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비슷한 행동을 해도 벌점을 받는 학생이 있고 안 받는 학생이 있다. 벌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선생님들끼리 너무 상벌점 주는 범위, 방식이 달라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편애하는 학생에게만 상점을 주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의 학생에게만 벌점을 주는 등 일관되지 않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벌점 많이 받은 애들은 이미 많다고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고 상점을 받는 것.
선생님에게 걸리지 않으면 벌점을 안 받고, 걸리면 벌점을 바는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상벌점 제도는 일관성이 없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벌점제도를 없애고 상점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들의 기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가끔 누구에게 상점을 몰아줌. 벌점으로 겁을 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벌점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선생님들마다 활용 정도가 다르다.
선생님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상벌점을 줌.
학생들끼리 회의를 해서 복장 등에 대한 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

# 04

---

## 제언

---





## 제언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시기의 아동의 교육권의 실태는 얼마나 보장받고 있으며, 학교의 온라인 교육 및 학교 외 교육의 현황은 어떤지, 아동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아동의 삶과 권리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기 위해 각 권역별 주제를 선정하였다. 권역에 따라서 교육권과 관련하여 '자유학년제, 학교의 규칙에 관한 권역별 주제를 선정하기도 했고, 교육권과 직접적 연관은 없어 보이더라도 온라인 매체 속에 나타난 아동 인권 침해 상황, 아동보호구역 내의 지정 속도 미준수 문제 등 아동의 삶과 가장 가깝게 직결되는 문제를 선정하거나,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이나 아동 학대 문제 등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참여 아동은 아동 인권에 대해 알게 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고 제안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는 주체가 되며, 권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실현된 아동 자신이 주도하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할 뿐 아니라, 다음에도 이러한 주도적인 참여 활동을 또 해보고 싶다고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이 아동권리증진에 관한 지식을 얻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아동 주도적인 활동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이득은 많이 있다. 그 동안 관심을 두지 못했던 다양한 아동의 권리와 주변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갖고 문제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며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모니터링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며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기사를 포함한 문헌 조사를 하고, 다른 또래 학생이나 종사자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견해 차이와 다각도적인 접근 방법 등을 알 기회를 가졌다. 또한 주제와 관련한 다수의 아동의 의견과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발표회도 갖는 등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비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등에 대해 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하였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계획, 실행하기도 하였으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직접 ‘국민생각함’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관련된 기관과 기업 등에 건의문과 민원글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적극적인 의견 표출 행동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와 어려움도 경험했다. 첫째,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웠던 상황적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모니터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위험이 커졌던 시기와 맞물려 환경적 제약과 심리적 부담이 더 많이 있었다. 처음 만나는 코디네이터와 아동들이 비대면으로 만나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원활한 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며 팀원들끼리 유대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 번의 회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한 곳은 모니터링 참여 아동 간, 아동과 코디네이터 간 라포 형성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적어도 한 번은 대면으로 만나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3회 모두 비대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한 권역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마이크를 켜고 말하도록 계속 요구하기 보다 채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더니, 채팅창을 활용해서 활발한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환경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소통의 방식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발대식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총 3회의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점이다. 활동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주제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우며, 짧은 기간 내에 공통 주제와 권역별 주제를 나눠서 둘 다 활동하는 데에도 부담이 있다. 긴장과 어색함이 풀리고 자유롭고 편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만한 시간

이 되었을 때 활동이 마무리 된다는 아쉬움이 지적된다. 활동 기간을 1~2개월 정도라도 연장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할 뿐 아니라 좀 더 질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권역마다 회의 날짜가 다른데도 모든 권역이 하나의 정해진 날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 회의를 하든지 회의 후 일주일 안에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코디네이터의 경험에 따라 모니터링 활동의 달라질 수 있는 변동성이 주는 제한점이다.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여한 아동 간의 역동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역량도 무시 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권역별로 코디네이터의 모니터링 활동의 경험 여부가 다르며, 그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와 경험하는 어려움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활동을 오래 해온 경우, 그동안 알고 지낸 학교와의 관계를 통해 홍보와 아동의 모집이 훨씬 수월하여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이후의 활동 운영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한 정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쌓이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 활동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코디네이터가 선발되면 전년도 코디네이터와 멘토링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방식을 이용하기를 제안한다. 전년도 코디네이터가 적어도 첫 모임이라도 함께 준비해 준다면, 아동을 모집하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권역별 세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전체 활동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이 사업의 시간적 제한점을 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활동이 그 내용이나 의사 소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만나는 횟수 및 시간과 장소 등 모든 면에서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며 점검하는 것이 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 05

---

## 부록

---



## 모니터링단 월별 활동보고서(권역주제)

### 사례1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서울1	이름	전○○
제출일		2021년 9월 26일	
활동 주제	여태까지 조사했던 <노키즈존> 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현황 및 실태	<p><b>[9.2~9.17 약 2주동안 설문조사(응답인64명) 내용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비율 13세 이하의 어린이 (7.8%), 청소년(45.3%), 20,30대(21.9%), 40,50대(25%)</li> <li>-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64.1%로 대다수를 차지함. 매우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7.8%, 들어만 봤던 사람의 비율은 14.1%,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14.1%를 차지함.</li> <li>-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은 경험 약 80퍼센트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에 의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음.</li> <li>-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64.1%로 그에 대한 이유로는 ‘장소에 따라 가게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너무 시끄러울 때가 많다.’, ‘점주의 자유이다.’라는 의견등이 있었고 노키즈존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35.9%로 ‘노키즈존 은 명백한 아동 혐오이다. 아이 교육 잘못 시킨 부모, 어른들이 잘못인데 아이들을 내세워서 억압하는 부조리한 행동이다.’ , ‘우리도 모두 어렸던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음.</li> </ul>		

	<p>- 노키즈존은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비율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반으로 나타났음.</p>
<p>활동 내용</p>	<p>2주간의 설문 내용을 분석, 8월 &lt;노키즈존 조사&gt; 활동과 9월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SNS에 올릴 카드뉴스 제작 내용 논의          -&gt; 카드 뉴스에 들어간 내용 (설문조사 내용, 노키즈존이 명백한 아동의 차별 행위 인 이유, 노키즈존의 대안책들 제안)</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설문조사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키즈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노키즈존이 명백한 아동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카드뉴스를 통해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동차별임을 알리고 싶었음.</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예정)</p>



##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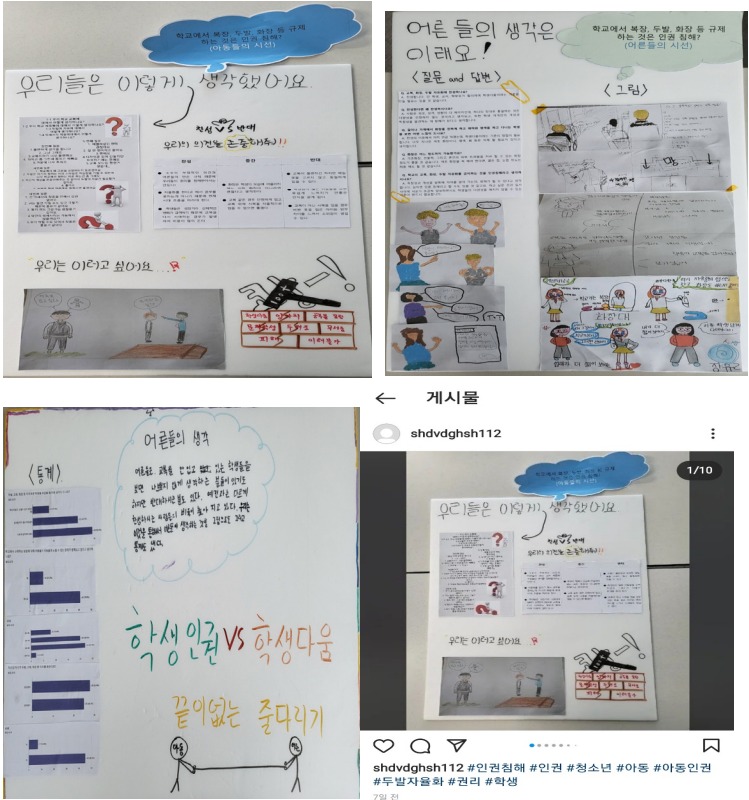
### 월별 활동보고서(인터뷰)

권역	서울2	성명	문○○
제출일		2021년 10월 29일	
활동 주제	(공통주제)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권역 주제) 코로나 시대에서 침해받는 아동의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p>- 광주광역시 삶디자인센터 인터뷰 내용</p> <p>삶디자인센터는 고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립 청소년 특화시설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p>코로나19 이후, 삶디자인센터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비대면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ex. 요리 관련 프로그램 : 식재료를 집에 배달해주고 비대면으로 함께 요리한다.) 또 원래는 프로그램 이용과 상관없이 자율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이용자나 관계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그 결과 센터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하나의 아지트, 혹은 사랑방 역할을 하던 이전과는 달리 이용자 수가 절반 이상 줄고 나니 직원들도 힘이 안 나고,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p> <p>또한 이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혼합형(대면+비대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특히 청소년들도 등교를 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이 지속되며 zoom 같은 플랫폼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크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느낀다.</p> <p>활동 참여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량적 평가 부분이 아닌 내용적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졌다. 이전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해봐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면 활동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p> <p>특히, 운영진들은 코로나19가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우려했다. 주기적으로 이런 팬데믹이 반복된다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삶디자인센터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p>		

	<p>에서도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인터뷰 내용</p> <p>현재 교육에서 아동의 주체성이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배움의 과정을 학습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동들이 진짜 궁금한 것,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보거나 관심을 두는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실제 교육의 커리큘럼 설계과정에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설계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동의 주체성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을 교육의 주체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p> <p>실제로 관련 내용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의견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관련해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청원 운동을 하는 등 법률 개정 시도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거나, 아동 놀 권리 조례 등 그런 여건들이 조금씩 논의도 활발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하였다.</p> <p>결국 핵심은 교실 안에서 수학 공식 몇 개 외우고 지식을 암기하는 걸로는 마음의 근육, 삶의 근육을 기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아가면서 겪을 외로움, 두려움 등에 맞설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체적인 교육, 놀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활동 내용</p>	<div data-bbox="425 1315 802 1650" data-label="Image"> </div> <p>▲ 광주광역시 삶디자인센터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삶디자인센터에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li> <li>-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li> </ul>

### 사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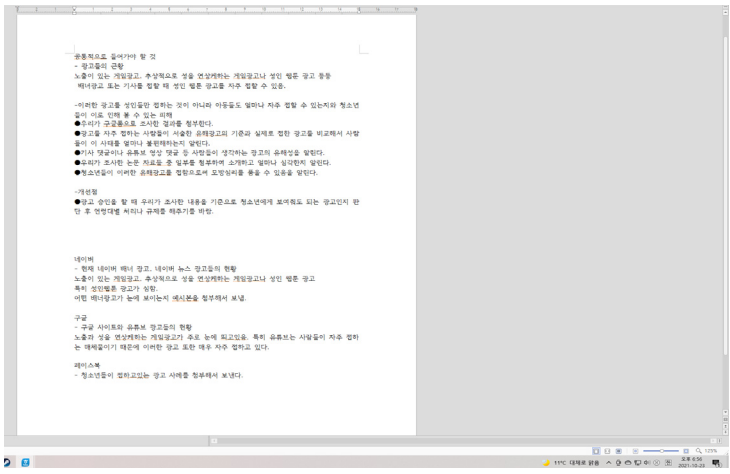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기2	이름	김○○, 배○○, 왕○○ 우○○, 이○○, 장○○ 정○○, 지○○
제출일		2021년 10월 30일	
활동 주제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에 대한 권리 침해		
현황 및 실태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찬성 의견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자율화를 통한 아동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과 학생다움과 학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활동 내용	 <p>Handwritten posters and social media posts (Facebook) showing student opinions on school regulations. The posters include titles like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This is how we think) and '어른들의 생각은 이래요' (This is what adults think). The social media post shows a Facebook page for 'shdvdghsh112' with a post about school regulations and student rights.</p>		

	<p>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제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아동들의 시선과 어른들의 시선을 판넬로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에 홍보하였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지○○ -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기 쉽게 판넬을 제작하였고, 인스타그램에 홍보하여 우리가 조사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을 수 있었다.</p> <p>장○○ -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궁금했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우○○ - 이번 활동을 통해 자유회에 어른들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배○○ - 아동시선과 어른들의 시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권이 존중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왕○○ - 학생들의 생각과 성인들의 생각을 설문지,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더 많은 의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른들과 직접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김○○ - 자유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활동을 통해 우리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규정이 바뀌는 부분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p> <p>정○○ - 아동이 바라보는 시선과 성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것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p> <p>이○○ -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우리가 조사한 주제 외 우리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다.</p>

## 사례4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기 3	이름	추○○
제출일		2021년 10월 26일	
활동 주제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동인권 침해		
현황 및 실태	<p>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 점점 유해 매체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노출이 점점 심해지는 중이다. 네이버, 구글 같은 경우 팝업창에 떠 있는 광고에 성적인 묘사가 들어간 만화 등의 광고가 여러 번 뜨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 볼 영상을 클릭할 때 뜨는 성적 묘사적인 광고가 뜨는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많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는 중이다. ‘온라인 성인 광고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나온 적이 있고 성인 광고를 비판하고 있는 기사의 댓글에서도 ‘이거 진짜 문제임’ ‘정말 이 성인 만화는 어디든 폰 보다가 막 떠서 민망함 애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음’ 등의 이러한 유해 매체 광고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아동을 향한 유해 매체 광고의 노출은 심해지고 있다.</p>		
활동 내용	<p>1. 메일을 보내기 위한 준비, 공유 추○○:</p>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 광고들의 근황

노출이 있는 게임광고, 추상적으로 성을 연상케하는 게임광고나 성인 웹툰 광고 등등

배너광고 또는 기사를 접할 때 성인 웹툰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음.

- 이러한 광고를 성인들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도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는지와 청소년들이 이로 인해 볼 수 있는 피해

● 우리가 구글폼으로 조사한 결과를 첨부한다.

● 광고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서술한 유해광고의 기준과 실제로 접한 광고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린다.

● 기사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고의 유해성을 알린다.

● 우리가 조사한 논문 자료들 중 일부를 첨부하여 소개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린다.

●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광고를 접함으로써 모방심리를 품을 수 있음을 알린다.

- 개선점

● 광고 승인을 할 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보여줘도 되는 광고인지 판단 후 연령대별 처리나 규제를 해주기를 바람.

박○○: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아동인권위원회 'Lens' 단원들입니다. 귀하의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에 관해 건의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귀하의 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저희는 여가생활,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 중 수업시간에 귀사의 영상을 보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수업도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아동들이 귀하의 페이지를 사용하려고 접속할 때 나이가 어린 이용자에게 부적합한 유해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귀사의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광고 노출시 사용자의 나이에 맞게 노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유해

광고란 아동들에게 해로운 광고들을 말하고, 이 예시로는 선정성 높은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아동 이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노출하는 것은 아동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귀사가 저희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아동 권리를 지켜주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we are members of 'Lens' of the Korea Children's Human Rights Commission. We are writing to suggest about advertisements exposed on your page. First of all,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use your page for free. Your page is free of charge, so we are receiving help in various fields such as studying. In fact, there are classes where students watch videos that are posted on your page and discuss about them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harmful advertisements have frequently appeared that are inappropriate for young users when children access your page. I understand your company's situation that you have no choice but to make profits through advertising, but we suggest that you should expose advertisements according to user's age. Harmful advertisements that we are talking about mean advertisements that are harmful to children, and for example, sensational advertisements are typical. Exposure of advertisements that are not suitable for child users is an infringement of children's rights. Please take the lead i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by accepting our feedback. Thank you.

您好!我们是韩国儿童人权委员会的'LENS'成员们。我们发邮件想对您页面显示的广告提出建议。

首先,感谢你们允许免费使用您的页面。可免费使用你们的页面,我们在业余生活、学习等多个领域都得到帮助。实际上,在韩国高中课程中,上课时间也会看贵公司的视频,和学生们讨论。只是,最近儿童登陆你们页面时,经常出现不适合年龄小的用户的有害广告。我们非常理解贵公司只能通过广告获得收益的情况,但建议在广告曝光时,根据用户的年龄进行曝光。我们说的有害广告是指对儿童有害的广告,例如煽情性高的广告。曝光不适合儿童用户的广告是侵害儿童权利的行为。希望贵公司能接受我们的反馈,带头维护儿童权利。谢谢。

**양○○: [메일 발송]**

코로나 사태 이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한 만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선정적이고 나이에 맞지 않은 유해한 광고를 접하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가부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3.8%로 2018년 이후로 14.2%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명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선정적인 광고에 나온 행위를 따라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설문에서 유해한 광고를 신고한 사례는 27건이 있었으며 신고에 효과를 본 응답자는 1명 뿐이었습니다.

개인의 신고로는 청소년과 유해광고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조○○: [메일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1) 아동인권모니터링단 소속
- 2)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심각성을 알리기
- 3) 그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구글 폼 보여주기, 유해매체 신고를 해도 잘 안 먹힌다는 것도 쓰기.  
-구글 폼 그래프 정리한 것.
- 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매체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것이 안 좋으며, 신고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부탁한다.

**[어디에 보내는가]**

- 1) 청소년보호위원회
- 2) 국가청소년위원회
- 3) 부천청소년 의회

**최○○: [메일 발송]**

(공통) 안녕하세요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LENS입니다. 귀하의 사이트에 건의를 하기 위해 메일 보냅니다. PC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반인은 물론 어린아·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신문사, SNS



등을 통해 선정적인 광고를 검색하고 있고, 청소년유해등급 4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노출, 성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 성적 언어·성적 묘사 등의 선정적인 광고로 인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고 메일 보냅니다.

(페이스북)

귀하의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선정적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금'으로 검색하면 청소년유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노출, 성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이 확인되고, 성적대화, 교재, 만남 등의 내 용이 전체 게시물의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붕붕)

귀하의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선정적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선정성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체노출, 성적 언어와 성적 묘사, 성매매 홍보 내용, 성적욕구 자극 이미지, 성행위 묘사 및 성적욕구 자극 문자 등으로 나타났 으며, 광고 내용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인 것 및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심리테스트 사이트에 매우 부적합한 광고라고 판단됩니다.

(유튜브)

최근 유튜브 어린이 채널에도 광고 영상이 유해한지에 대한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도한 유해성은 어느정도 걸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 채널에서도 이런 문제가 번번히 발생하지만, 아동들이 아린이 채널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임 리뷰 혹은 젤리 사탕 먹방등은 선정적인 광고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을 성적대상화한 광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들의 성적 인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통)

따라서 선정적 광고 등 유해한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아동들이 많이 들어가는 채널에 대한 귀하의 사이트 내에서의 규제와 광고 검토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카드뉴스 만들기

우리 권역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배포할 준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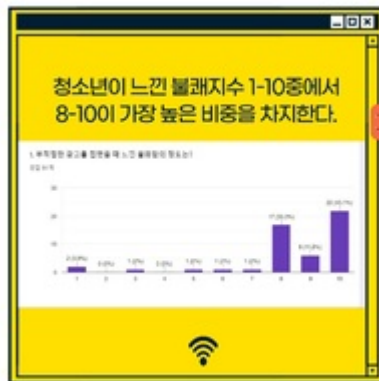
박○○.양○○(1회기): 문헌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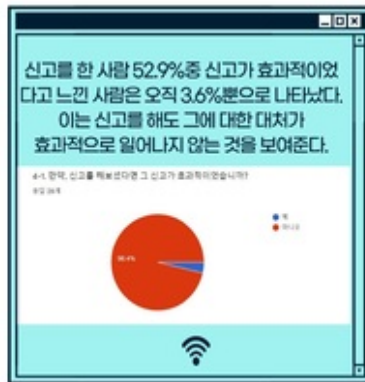






조○○, 최○○, 추○○(2회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설문조사 결과 공유”







### 3. 메일보내기(문의하기)

구글, 인사이트, 페이스북 총 3곳에서 문의를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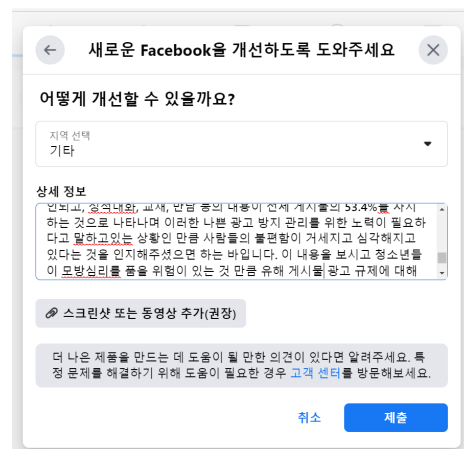
문의내용은 공통적으로 이러하다.

안녕하세요! 한국아동인권위원회의 'LENS'단원들입니다. 전부터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있는 광고 문제에 대해 건의 드리고 싶어서 의견 보내 드립니다. 현재 000의 경우 추상적으로 성을 연상케하는 게임광고나 성인웹툰 배너 광고 등등 이러한 광고들을 000에서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광고가 자주 보여 건의 드립니다. 저희가 구글폼으로 청소년들과 그 외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청소년들의 통계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쾌감의 정도를 1~10까지 나타내었을 때 8,10이 가장 많았고 의도치 않은 유해한 광고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냐에 맞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0.2%, 유해 광고를 신고했을 때 효과적이었냐에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96.4%나 되었습니다. 다른 문항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해광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기사나 영상의 댓글을 조사해보았을 때 ‘이거 진짜 문제인듯~나만 불쾌한게 아니었군요.’, ‘이거 문제임. 애기들 폰 보는데 버젓이 저런 광고 넣어놓고 ㅋㅋㅋ 규제좀 해라ㅠ’, 정말 이 성인만화 어디든 폰 보다가 막 떠서 민망함 애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음’ 등등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또한 이러한 나쁜 광고 방지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인 만큼 사람들의 불편함이 거세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청소년들이 모방심리를 품을 위험이 있는 것 만큼 유해 광고 규제에 대해 더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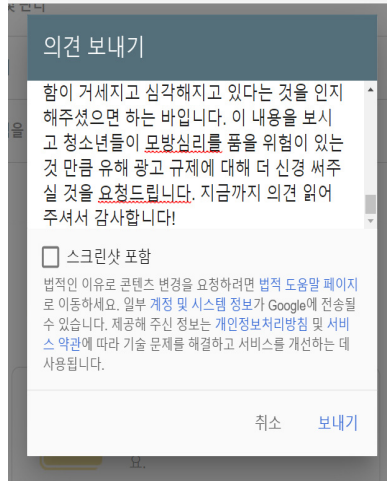
이 내용은 보내는 곳에 따라 약간의 내용 조정이 있었다.

### (1) 페이스북



## (2) 구글

topic=9257498



## (3) 인사이트

### 인사이트

4.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영주권과 영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한국아동인권위원회 소속 'LENS' 단원입니다!

####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아동인권위원회의 소속 'LENS' 단원입니다. 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 광고 문제에 대해 건의 드리고 싶어서 의견 보내드립니다. 현재 인사이트의 경우 추상적으로 성을 연상케하는 키워드 광고나 성인원투 배너 광고(혹시 심화) 등등 이러한 광고들을 인사이트 기사에서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광고가 자주 보여 건의 드립니다. 저희가 구글링으로 청소년들과 그 외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청소년들의 통계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부적절한 광고를 접했을 때 느낀 불편감의 정도를 1-10까지 나타내었음때 8.10이 가장 많았고 의도치 않은 유해한 광고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냐에 맞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0.2% 유해 광고를 신고했을 때 효과적이었냐에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96.4%나 되었습니다. 다른 문항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해광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기사나 영상의 댓글을 조사해보았을때 '이거 진짜 문제인데-나만 불편하게 아니었군요.', '이거 문제임. 애기들 본 보는데 배젓이 거러 광고 보이려고 ㅋㅋㅋ 규제좀 해라요', 정말 이 성인만화 어디든 폰 보다가 막 떠서 민망할 애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음' 등등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있습니다. 논문에서 또한 신문사, 스포츠 신문 및 SNS의 경우 온라인 기사의 상, 하, 좌, 우의 삽입을 통해 선정성 광고가 노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웹툰 또는 만화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성기능약품, 음용 판매 목적의 광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나쁜 광고 방지 관리를 위한 노력(선정성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인 만큼 사람들의 불편함이 거세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청소년들이 모방심리를 품을 위험이 있는 것 만큼 유해 광고 규제에 대해 더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SNS(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 공유

회의때 1,2회기 카드뉴스 멘트를 정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넣어 카드뉴스를 SNS에 공유했다.

1회기 멘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단 LENS 경기3권역 단원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



동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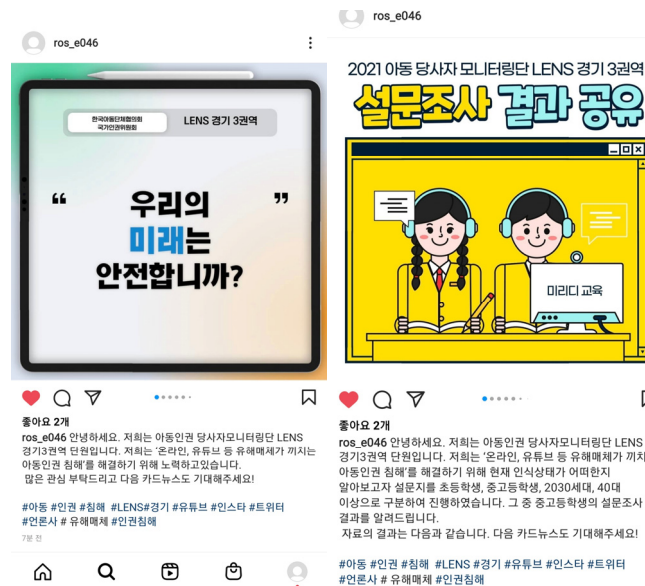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카드뉴스도 기대해주세요!

#아동 #인권 #침해 #LENS #경기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언론사  
# 유해매체 #인권침해

2회기 멘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단 LENS 경  
기3권역 단원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튜브 등 유해매체가 끼치는 아  
동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식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2030세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중고등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카드뉴스도 기대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공유 인증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우리 권역 단원들의 진심 담긴 문의와 지금까지 한 활동들이 유해광  
고 문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설문했던 내  
용들 등등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니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느껴졌던 활동이었다.

## 사례5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기4	이름	김○○○
제출일		2021년 11월 1일	
활동 주제	자유학년제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현황 및 실태	학생 및 학부모등의 자유학년제에 대해 불편한 사항 등이 다수 있었고 이에 교육부에 민원을 올렸다.		
활동 내용	<p>교육부에 민원을 올렸다.</p> <p>자유학년제 민원 글</p> <p>1, 학년 시작 전 학생들의 흥미 수요에 맞추어 수업이 개설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수업을 개설하다보니 학생의 흥미가 반영되지 않은 수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탐색에서 원치 않는 수업을 상제로 들어야하거나 반대로 원하는 수업을 못 듣는 일등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유학년제에서의 수업들은 왜 학생들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나요?</p> <p>2, 자유학기제의 진행기간 동안 학업저하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 하고 있는가요?</p> <p>3, 학생들이 자유학년제와 자유학년제가 아닌 학년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보니 학년에 진학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적응도 힘들고 벅차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의 기간을 줄이던가 아니면 확대를 하여 괴리감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선 사항 의견 등이 있는데 자유학년제 축소, 확대 혹은 개편 등에 대해 방안이 있나요?</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자유학기제에 대해 불편한 사항 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사례6

###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권역	전북	이름	주아진
제출일		2021년 10월 23 일	
활동 주제	권역별 주제-아동들의 흡연 원인과 흡연에 미치는 영향		
현황 및 실태	적은 수의 아동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금연 관련 캠페인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참여와 반응을 보였다.		
활동 내용	<p>지난 활동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진행했던 설문조사와 단원들이 함께 했던 자료조사의 취합을 이용하여 우드락에 자료를 붙이고 아동들이 참여할 부분을 제작했었다. 그 우드락과 팜플렛을 들고 다양한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과 그 영향을 알리고 함께 스티커를 붙여 건강한 폐 모형을 만들고 흡연하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를 적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p>		
계획 이행 상황 및 활동 결과	<p>아동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주어 캠페인 활동 장소가 활기넘쳤고, 다양한 의견들로 준비한 우드락을 전부 채울 수 있었다.</p> <p>흡연하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를 적는 칸에는 금연을 권하는 학생들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p>		
활동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p>아동들에게 진행중인 흡연 실태 관련 설문조사가 끝나고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난 활동과는 달리 적은 수의 아동들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캠페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정확한 청소년 흡연률을 통계로 만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기타	<p>아동들에게 진행중인 흡연 실태 관련 설문조사가 끝나고 자료를 취합하고 마무리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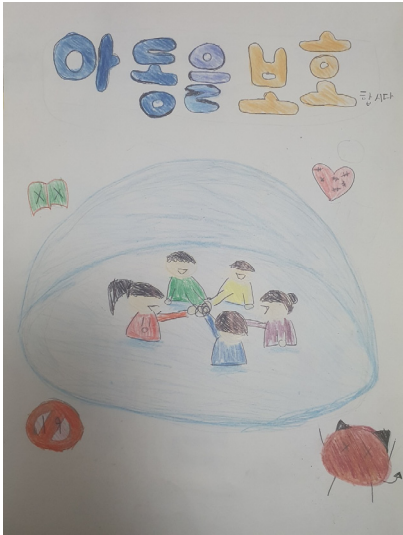
## 사례7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전남	이름	엄○○
제출일		2021년 10월 28일	
활동 주제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현황 및 실태	<p>아동 성적대상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변인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한 인지도와 여러 실사례에 대한 인지도, 이에 대한 관련 법안, 아동성적대상화를 없애기 위하여 변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p> <p>설문조사 결과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11명을 차지했는데, 이는 곧 절반에 조금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아동성적대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아동성적대상화를 가미한 광고로 가장 큰 이슈였던 배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광고와, MLB 속옷광고사례에 대해서는 7명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아동성적대상화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동모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아동모형의 화장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다’를 선택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명은 모두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여 아동모형은 아동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알 수 있었다.</p> <p>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성적대상화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동성적대상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변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아동 보호 법률 구축이 20명중 10을 차지하여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p>		
활동 내용	네이버 폼 설문지를 활용하여 주변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을 잘 모르긴 하지만, 많이 알려진 법도 없고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아동을 보호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광고 방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많은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동을 보호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함양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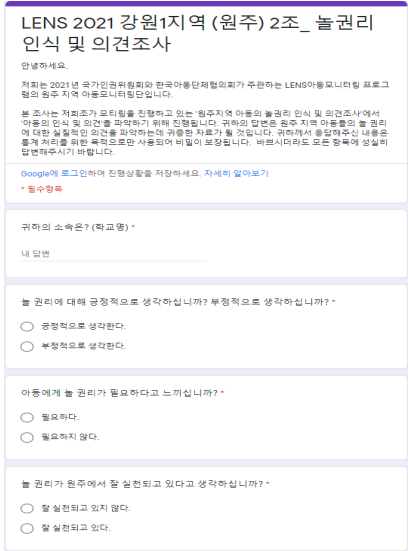
## 사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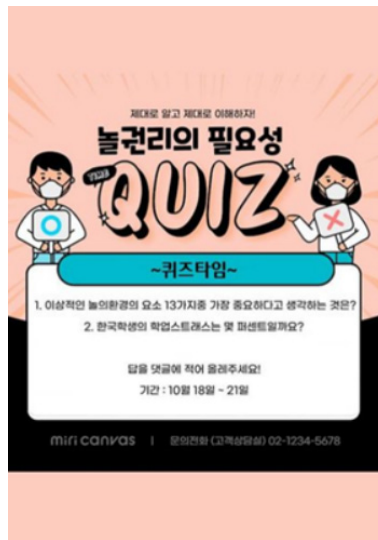
### 월별 활동보고서(그림)

권역	전남	성명	왕○
제출일		202년 10월 28일	
활동 주제	아동성적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		
현황 및 실태	아동 모델에게 성인이 하는 화장과 드레스, 높은 구두를 신고 광고를 찍게 하여 소아성애를 자극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활동 내용	 <p>포스터 제목: 아동을 보호합니다.</p> <p>그림의 파란색 막은 이 막이 아동을 각종 사회의 위험한 것들 즉 아동 성범죄, 학대, 차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준다는 것을 표현하였고 이 막이 있어서 아이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아동을 위한 보호법이 아직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재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 법이 제정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 사례9

###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권역	강원(원주)1	이름	김○○, 원○○, 허○, 현○○
제출일		2021년 10월 24일	
활동 주제	놀 권리 인식 및 의견조사(설문조사) / 놀 권리의 필요성 알리기(캠페인)		
현황 및 실태	<p>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관계로 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있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른 아동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을 기록했다.</p> <p>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p>		
활동 내용	<p>설문조사 질문은 저번에 정했던 '놀 권리가 원주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지'에 추가로 '놀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동에게 놀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를 더해서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질문은 캠페인은 객관식 질문으로 하였습니다.</p> <p>캠페인은 9월달 캠페인 자료를 사용하여 퀴즈를 만들고 sns에 뿌린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p>		
계획 이행 상황 및 활동 결과	 <p>The screenshot shows a survey form with the following content:</p> <p><b>LENS 2021 강원1지역 (원주) 2조_ 놀 권리 인식 및 의견조사</b></p> <p>안녕하세요.</p> <p>저희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LENS아동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의 원주 지역 아동유니버시티입니다.</p> <p>본 조사는 저희조가 모티빙을 진행하고 있는 원주지역 아동의 놀 권리 인식 및 의견조사에서 아동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원주 지역 아동들의 놀 권리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항목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p> <p>Google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저장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p> <p>* 필수항목</p> <p>귀하의 소속은? (학교명) *</p> <p>내 답변</p> <p>놀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p> <p><input type="radio"/>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p> <p><input type="radio"/>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p> <p>아동에게 놀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p> <p><input type="radio"/> 필요하다.</p> <p><input type="radio"/> 필요하지 않다.</p> <p>놀 권리가 원주에서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 <p><input type="radio"/> 잘 실천되고 있지 않다.</p> <p><input type="radio"/> 잘 실천되고 있다.</p>		



광명1팀/2조/김지현 활동교사 박영현 교사

### 놀 권리의 필요성 알리기

이상적인 놀이 환경의 필수 요소로 총 13가지를 꼽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스트레스가 없으며, 소리와 안전, 위험, 어른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연환경과 동물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우선, 놀이와 여가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학력이 높은 환경일수록 어른들은 놀이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아동이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 주변환경이 위험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1위 한국	50%
2위 스페인	46%
3위 슬로바키아	46%
4위 프랑스	45%
5위 인도	45%
6위 미국	45%
7위 아일랜드	45%
8위 베트남	38%
9위 미국	38%
10위 미국	38%

초등학교도 지정한 환경 속에 하루에 채 한두 시간조차 뛰 어 놀지 못하는 게 요즘 현실이요.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되 찾기 위해 학교는 아동친화, 그리고 아인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17% 정도는 하루에 개인이 시간을 할 수 있는 정도 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졸업 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으 로 만들어야 된다는 '세이브 더칠드런' 권리사업팀장의 말 에 어린이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학교 구석구석의 놀이 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학교에서 일주일당 한 시간 씩 노는 시간을 더 늘려나 학습 태도, 또래 관계, 주의력이 좋 아졌습니다. 불안감과 공격성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렇게 바뀐 학교에서 일주일당 한 시간씩 노는 시간을 더 주지 않았다면 반대로 학습 태도, 또래 관계, 주의력이 나빠지고, 불안감과 공격성이 늘 것입니다.

14세 대 중학생 10명을 여론조사를 해보니 요즘 초등학교와 중학생 모두 지정한 환경 속에 하루에 채 한두 시간조차 놀지 못해 각종 학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공부하면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등의 의견으로 모두 놀 권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2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설문조사는 구곡초등학교 14명, 남원주중학교1명, 버들초등학교 1명, 섬강중학교 2명, 섬강초등학교 2명, 세교중학교 1명, 원주삼육초등학교 1명, 원주여자중학교 11명, 육민관 중학교 10명 총 43명 참여하였습니다.

‘놀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43명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아동에게 놀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43명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놀 권리가 원주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는 19명 (44.2%)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답하였고 24명 (55.8%)이 잘 실천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캠페인은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아 3명 밖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은 달리지 않았습니 다.

활동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김○○)  
 캠페인은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만 올리고 다른 곳에는 뿌리지 안하 생긴 일인 것 같다. 또 캠페인 자료가 약간 흐릿하고 확대가 되지 않아 보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쉬웠다. 개선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 캠페인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p>(원○○)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동 놀 권리가 실천되고 있는지 등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p> <p>(허○)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놀 권리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p>
--	--



## 사례10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강원(원주)2	성명	최○○																																	
제출일	2021년 10월 8일																																			
활동 주제	청소년 음주 실태와 청소년 음주가 미치는 영향																																			
현황 및 실태	<p>설문조사결과 청소년 음주를 본 청소년들이 50%넘고, 본장소는 (SNS에올림,골목,슈퍼,)등에서 보았고 청소년중 총25명중 2명의 음주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를 한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등이 있었다.</p>																																			
활동 내용	<p>흡연 및 음주</p> <hr/> <p>2020년 중·고등학생 중 4.4%는 30일 내 흡연,10.7%는 음주 경험이 있음</p> <hr/> <p>□ '20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4.4%)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적이 있음</p> <p>○ 전년 대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2.3%p 감소함</p> <p>□ '20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11명(10.7%)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흡연율 및 음주율 추이 〉</p> <table border="1"> <caption>〈 흡연율 및 음주율 추이 〉</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흡연율 (%)</th> <th>음주율 (%)</th> </tr> </thead> <tbody> <tr><td>2011</td><td>12.1</td><td>20.6</td></tr> <tr><td>2012</td><td>11.4</td><td>19.4</td></tr> <tr><td>2013</td><td>9.7</td><td>16.3</td></tr> <tr><td>2014</td><td>9.2</td><td>16.7</td></tr> <tr><td>2015</td><td>7.8</td><td>16.7</td></tr> <tr><td>2016</td><td>6.3</td><td>15.0</td></tr> <tr><td>2017</td><td>6.4</td><td>16.1</td></tr> <tr><td>2018</td><td>6.7</td><td>16.9</td></tr> <tr><td>2019</td><td>6.7</td><td>15.0</td></tr> <tr><td>2020</td><td>4.4</td><td>10.7</td></tr> </tbody> </table>			연도	흡연율 (%)	음주율 (%)	2011	12.1	20.6	2012	11.4	19.4	2013	9.7	16.3	2014	9.2	16.7	2015	7.8	16.7	2016	6.3	15.0	2017	6.4	16.1	2018	6.7	16.9	2019	6.7	15.0	2020	4.4	10.7
연도	흡연율 (%)	음주율 (%)																																		
2011	12.1	20.6																																		
2012	11.4	19.4																																		
2013	9.7	16.3																																		
2014	9.2	16.7																																		
2015	7.8	16.7																																		
2016	6.3	15.0																																		
2017	6.4	16.1																																		
2018	6.7	16.9																																		
2019	6.7	15.0																																		
2020	4.4	10.7																																		

○ 전년 대비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이 4.3%p 감소함

자료: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흡연율 및 음주율 〉

(단위: %)

	현재 흡연율1)			현재 음주율2)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1	12.1	8.1	16.1	20.6	12.0	29.0
2012	11.4	7.2	15.4	19.4	10.3	28.2
2013	9.7	5.5	13.8	16.3	8.3	23.8
2014	9.2	4.7	13.5	16.7	8.3	24.6
2015	7.8	3.3	11.7	16.7	7.4	24.9
2016	6.3	2.5	9.5	15.0	6.5	21.9
2017	6.4	3.0	9.2	16.1	7.6	23.0
2018	6.7	3.0	9.8	16.9	8.5	24.2
2019	6.7	3.2	9.9	15.0	7.6	21.8
2020	4.4	1.7	7.1	10.7	5.4	15.9
· 남자	6.0	1.9	10.1	12.1	5.8	18.3
· 여자	2.7	1.5	3.8	9.1	5.0	13.2

자료: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대상

주: 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

2)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술은 청소년에게 극히 성장에 안 좋다. 청소년기에 술을 많이 마시면  
은 뇌의 기억력 감퇴와 또한 취중에 언어나 행동 면에서 실수를 할 수  
있고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을 확률도 있다. 알코올중독에 될 확률도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몇몇 청소년들이 음주를 해보았다  
고 되어있어서 놀랐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좀 더 정확한 음주 자료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이다.

## 사례11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강원(원주)3	이름	김○○
제출일		2021년 10월 29일	
활동 주제	학교규칙의 현왕과 개선방안		
현황 및 실태	현황 및 실태 : 전체 응답 74개		
활동 내용	<p>〈학교 교칙관련 학생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지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 : 74</li> <li>- 교복 관련 규칙이 부당하다고 느낀적이 있습니까? (71개)</li> <li>-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만 작성) (31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이 당연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li> <li>2. 알 맞은 규칙인거같아서 (규정이 올바르다)</li> <li>3. 예전에 비해 어느정도 허용범위가넓어져서 괜찮다고 생각함</li> <li>4. 체육복을 착용해도되며, 생활복이 생겨서 편안하기때문에</li> <li>5. 학년별로 교복관련 교칙은 동일하기 때문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는 교복 관련 규칙에 얼마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71개)</li> </ul> <p>선호도 순으로 나열 : (보통, 적음, 많음, 매우 적음, 매우 많음, 매우매우매우 적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세사리 관련 규칙에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습니까? (72개)</li> </ul> <p>선호도 순으로 나열 (보통, 적음, 많다,매우적다,매우많다,매우매우매우적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교복 관련 규칙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적어주세요. (62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복허용 12</li> <li>2. 자율화 14</li> </ol>		

	<p>3. 사복등교/체육복등교 허용 4  4. 악세사리허용 3  5. 지금의 교복규칙 만족 7  6. 교복위 겹옷 허용 7  7. 교복 체육복 혼용 가능 2  8. 학생들의 의견 반영 확대 5</p> <p>(기타)  체육복을 계속 입게해주면 좋겠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후 규칙사용하며 좋겠다  교복이 폐지되면 좋겠다</p> <p>- 앞으로 악세사리 관련 규칙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적어주세요  (54개)</p> <p>안 바뀌어도 상관없다 15  전면허용 18  일부허용(반지, 팔찌, 네일, 렌즈 허용) 17  악세사리 관련 기준과 금지 사유를 확실하게 정하면 좋겠다. 3  선생님들께서 정확히 교칙숙지 후 지도하셨으면 좋겠다. 1</p> <p>(기타)  사복을 입게 해주면 좋겠다  겹옷은 어느정도 입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악세사리규칙도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등 설문 내용정리</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다같이 파트를 원하는것을 투표하여하니까 일처리가  훨씬 빨랐던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 큰 뿌듯함을 느껴서 기분 좋았습니다.</p>

## 사례12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충북	이름	김○○
제출일		2021년 11월 06일	
활동 주제	선별적 아동복지(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하여		
현황 및 실태	<p>아동복지 중 하나인 소년소녀가장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혹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이고 지원절차는 시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추천한다.</p>		
활동 내용	일정 기한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종결시켰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p>소년소녀가장들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들 역시 가장임과 동시에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이기 때문이다.</p>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 사례13

### 월별 활동보고서(충남권역 - 활동소감문)

2021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 충남권역 LENS 활동소감문 -

활동일시 : 2021.10.20.(수) 16:30-18:30  
이름 : 김

1. 오늘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저녁간담회 참여 안함

2. 오늘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시간  $\frac{1}{2}$   $\frac{1}{2}$

3.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도량견해도  
많이 #해됨다.

4. 활동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개미이 #다.

## 사례14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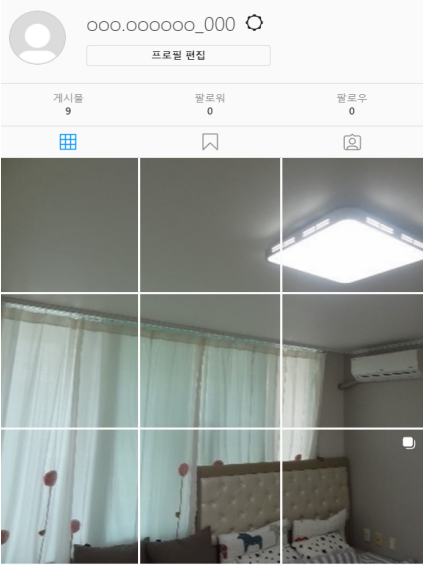
권역	대전	이름	신○○
제출일		2021년 10월 7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결식아동 급식비		
현황 및 실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33명중 22명이 알고 있었고 11명이 모르고 있었다.</li> <li>2.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알게된 경로는 책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된 경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을 통한 것이 4명, 자신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것이 2명이었다.</li> <li>3.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22명 중 아는 사람이 6명, 모르는 사람이 11명이었다.</li> <li>4.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을 본 적이 있는 아동은 8명, 못 본 아동은 25명이었다.</li> <li>5.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28명, 반대하는 사람은 5명이었다.</li> <li>6. 한끼당 가장 적절한 지원금액을 설문한 결과 7000원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00원대 9명, 9000원 이상 5명, 6000원대 6명, 5000원 이하 3명 순이었다.</li> <li>7. 결식아동 급식 카드의 한정된 사용 장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용가능 음식적 확대 21명, 지원금액 인상 8명, 급식카드에 대한 인식 바꾸기 4명이었다.</li> <li>8. 결식아동 지원 방안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 지급 21명, 도시락 배달 11명, 단체급식 1명이었다.</li> </ol>		
활동 내용	<p>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대효과 예상했다. 우선 급식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결식아동을 위한 식당의 인지도가 적은 것은 식당 수의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어 식당들이 결식아동을 지원한다면 보</p>		

	<p>조금이나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 식당들의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원 급식비를 인상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급식비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 급식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싶다. 결식아동을 위한 식당이 늘어났으면 좋겠다.</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국민 생각함에 결식아동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p>



## 사례15

###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권역	부산	이름	권○○
제출일		2021년 10월 31일	
활동 주제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아동학대를 주제로 방탈출 형식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활동 내용	<p>설문조사, 인터뷰의 내용을 이용하여 카드뉴스를 만들고, 방탈출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 함께 업로드하였다. 개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나씩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방탈출 형식으로 정하였고, 회의와 단독 대화로 업로드할 내용과 사진을 정하였다.</p> 		
계획 이행 상황 및 활동 결과	각각의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나는 여러 방 중에 안방을 올렸고, 신고 후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업로드하며 참여하였다.		

<p>활동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이번 활동을 하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구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카드뉴스(방탈출)을 업로드해 보면서 내가 보던 카드뉴스 컨텐츠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하기도 했다.</p>
----------------------------------	---

## 사례16


###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권역	경남	이름	구OO
제출일		2021년 10월 29일	
활동 주제	캠페인 하기		
현황 및 실태	<p>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홍보와 직접적인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포스터를 홍보하며 수칙을 문자로 전달하였는데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과 포스터에 대해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p>		
활동 내용	<p>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카카오톡 프로필로 포스터를 홍보하고, 문자로 아이들에게 포스터를 전달하며 지켜야 할 수칙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공모전도 있었는데 공모전 행사에 비슷한 내용을 응모한 친구들도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반응이 생각 외로 좋았습니다.</p>		
계획 이행 상황 및 활동 결과	<p>친구들이 아동보호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했고, 많은 아이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아동보호구역에 관련한 퀴즈를 만들어 보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지정 속도(30KM) 미 준수 차량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았습니다.</p>		

<p>활동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캠페인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지정 속도(30KM) 미 준수 차량의 심각성을 아이들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부듯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위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캠페인을 도와주어 기쁘고 고맙습니다.</p>
--------------------------	--

## 사례17

### 월별 활동보고서(캠페인)

권역	경남	이름	양○○
제출일		2021년 11월 4일	
활동 주제	스쿨존 속도준수에 관한 캠페인		
현황 및 실태	<p>어린이 보호 구역 내 (스쿨존) 30k 규정 속도를 지키자는 캠페인으로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이들이 다칠 수 있다고, 운전자들이 조심해 줄 것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p>		
활동 내용	 <p>1. 학교 앞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포스터를 들고 도로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p> <p>2. 제작한 포스터를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 주위 운전하는 어른들에게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포스터를 전해주며, 안전속도를 지켜줄 것을 알렸다.</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p>도로에서 포스터를 들고 캠페인을 하니 친구들이 신기해 하기도 하고, 운전하는 어른들, 지나가는 어른들도 유심히 보며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p> <p>우리 어린이들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도 꼭 한번 더 주위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야겠다고 느꼈다.</p> <p>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 한 차량들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꼈다.</p>		

## 사례18

###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제주	이름	고○○
제출일		10월 29일	
활동 주제	상 벌점 제도에 관한 학생, 교직원 인식조사		
현황 및 실태	신성여자중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에게 설문지 형식의 인식조사를 하여 통계를 내었다.		
활동 내용	<p>연구 결과: (다음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배부한 설문지 전문과 그 결과이다.)</p> <p><b>1. 학생용 설문</b></p> <p>가설 (1) 학생의 경우 상벌점제의 실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p> <p>설문 결과 학생의 경우 상벌점제의 실행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따라서 이 가설은 잘못되었다.</p> <p>가설 (2) 학생의 경우 상벌점제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p> <p>설문 결과 학생의 경우 상벌점제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교직원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전체적인 비율은 낮았기에 이 가설은 잘못되었다.</p> <p>가설 (3) 학생의 경우 상벌점제로 인한 행동의 개선여부가 미비할 것이다.(상벌점제에 대한 학생의 의식수준이 미비할 것이다.)</p> <p>설문 결과 학생의 경우 상벌점제로 인한 행동의 개선 여부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벌점보다 주로 상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p>		

설문 결과와 연결해본 결과 별점을 실제로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벌점제'라는 제도가 주는 상징성과 인식상의 강제성이 강한것으로 판단되어 이 가설은 잘못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여상보다 상벌점제의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더욱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미비했다. 상벌점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으나 이를 인권침해로 보는 비율 또한 저조하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부정적인 실태를 알 수 있었다.

## 2. 교직원용 설문

가설 (4) 교직원의 경우 상벌점제의 실행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설문 결과 교직원의 경우 상벌점제의 실행에 대한 입장이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보통인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해 이 가설은 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5) 교직원의 경우 상벌점제의 주관성과 일관적이지 않은 점수 지급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것이다.

설문 결과 교직원의 경우 상벌점제의 주관성, 일관적이지 않은 점수 지급 방식을 인정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이 가설은 잘못되었다.

가설 (6) 교직원의 경우 상벌점제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일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 교직원의 경우 교권보호, 학생 통제 측면 등 상벌점제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었기에 이 가설은 결과와 일치한다.

설문 결과 교사 또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통제가능한 요소로 상벌점제를 말하였으나 상벌점제의 주관성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교사와의 친분 정도가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존재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상점을 많이 받는 학생을 학기 말에 그린마일리지 시상을 하거나 별점을 많이 받는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p>회부하는 등 학생의 성적과 생활 상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이 적용된다는 것' 같은 결과 초래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저조했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설문조사를 시작할 때에 세웠던 결과에 대한 가설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벌점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상벌점제에 대한 관점을 들여다 봄으로서 더욱 객관적으로 이 제도를 평가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또한, 학생들의 행동을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상벌점제의 장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바, 앞으로 학교에 상벌점제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 제도의 단점이던 점수 부여의 주관성과 인권침해적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점을 느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동안 교육 현장의 학생인권 침해적인 부분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왔던것이 단순한 나의 자기만족이 아닌 학교현장을 바꾸는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쁘다.</p>



## 권역별 기타자료: 인터뷰지

### 서울1권역 - 권역별주제 인터뷰

#### [김광란의원 인터뷰지]

- 김광란 의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등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이고, 의회 의원들은 광주광역시 시민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특별히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 그 중에서도 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인권평화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이런 쪽을 관할하는 위원회이다. 마을, 자치공동체, 민주인권평화 영역, 소방영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특히 또 이번에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 주제 1)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

- 현재 교육에서 아동의 주체성이 얼마나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배움의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런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 아동이 진짜 궁금한 것,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동들에게) 제대로 물어보거나 관심을 두는 게 부족하다. 그러나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에 의해 끊임없이 확인되는 게 있고, 아동들도 학생회 등을 통해 제안하고 주장하는 게 있지만, 교육과정 설계 자체를 어른들이 다 짜지 않냐. (웃음) '너희들은 배워야 해, 이만큼은 배워!'

그래서 실제 교육의 전체 커리큘럼, 설계과정에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학교 밖 아이들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이 아이들한테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이 배우고 싶은지 물어봐서, 관심 있는 걸로 설계를 하면, 최소한 5명 이상의 아이들만 모이면 개설되는 그런 수업은, 들을 때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재밌게 배우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이 뭐 재봉틀을 배우거나 영어회화를 배우는 등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그 배움의 과정이 스스로 선택한거니까 너무 즐겁고, 마무리할 때도 너무 (좋더라).

그래서 현재 교육에서 아동의 주체성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을 교육의 주체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실제 교육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들 때 '교육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논의되고 있나요? 어떤 논의들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의회차원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하고, 학교의 특별한 교육과정도 심의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학생 대표들을 거기에 참관시키기는 하나, 실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자로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안 되어있다. 교육부의 지침? 관련 법률?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그것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학생이 대표로 참여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도 학생이 대표로 참여할 수가 없다. 다만 교육청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배려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거다. 나는 이게 일종의 가장 심각한,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고 본다. 어떤 일에 참여하게 하고, 학생 참여조례라든지 학생들이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통로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기는 한데, 핵심은 그러면 학교의 제반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단위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며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 권한은 없는거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과 관련해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 그럼 법률 개정 청원운동도 하고 하면 좋은데 하다가 멈춘 상태? 누구도 이걸 관심 갖지 않아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아동들을 교육의 주체로서 보장하기 위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했듯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거나, 학교 운영과정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거나, 아동 놀 권리 조례(놀이터를 조성하거나 놀 권리 환경을 만드는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는 하다. 그런 여건들이 조금씩 논의가 활발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 작년에 저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한 ‘청소년주도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주도적인 배움이 얼마나 색다른 것인지 배웠습니다. 김광란 의원님께서 이 청소년주도프로젝트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청소년 주도’에 초점을 맞추셨나요? 프로젝트 추진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셨나요?

청소년 주도에 처음부터 초점을 맞춘 게 맞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라고 본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움이 출발하면, 실제로 그 배움의 과정이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보통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다 짜준다.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그곳의 선생님들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와서 배우세요.’ 이런 거였다. 그리고 그 신청과정에도 수업 몇차시 몇차시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다 짜두었다. 그런 방식 말고,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기후 문제든 쓰레기 문제든 정치 의제든 시를 쓰는 거든 영상을 배우고 싶든, 주제는 정해놓되 이걸 통해서 이 배움의 과정을 무얼 어떻게 배울 건지 설계하는 건, 직접 그걸 참여한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길잡이 교사들과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수정해가도 충분하다. 그래야 진짜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다.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만 봐도 넘쳐난다. 그런데 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살아가는데, 공동체에 이롭게 활용할건지,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떤 기관의 도움과 협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잘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쳐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거다. 이것이 처음 출발이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 수업 말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딱히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1년 동안 방과후에 매일 2시간씩 시간을 줄게. 뭘 해야할지 모르겠는 아이들은 다 모여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같이 한 달 동안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길잡이 교사들과 함께 ‘내가 이런 걸 궁금해했구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했구나’를 찾고, 비슷한 주제끼리 조를 짜가지고 또 일년 간 배움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경기도의 몽실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과정을 좀 더 크게 생각한 것도 있었다. 재봉틀, 자전거, 요리, 영어 공부 등등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길잡이 교사가 붙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렇게 3월을 보내면 4월부터 11월까지 한 10달 동안은 그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광주에 있는 여러 가게, 기업, 대학, 교사들을 찾아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배움의 과정을 한 번 경험한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다를 거고 대학을 가지 않고 직장에 취직을 해도 다를 거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부모들이 사교육비, 학원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왠지 성적이 더 나올 것 같아서 학원으로 몰아넣지 않냐, 괜히. 그런데 학원을 진짜 가고 싶은 애들만 가게 하자. 학원이 아니어도 방과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광주 곳곳에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삶디분만 아니라 광주 곳곳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시설이 꽤 많으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과정으로 꾸려진다면 광주가 꽤 괜찮은 도시가 되겠다라는 생각. 다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다. 행정 담당, 청소년 담당 부서, 교육청 담당, 의회 의원들, 또 청소년 수련관의 활동가들, 이런 분들.. 그런데 다행히 저랑 문제의식이 같은 분이 여러분 계셨던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토론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

**+추가 질문. 그럼 목표로 했던 여러 효과들 중에, '청소년주도프로젝트를 통해 이것만큼은 청소년들이 진짜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청소년들 스스로가 배우는 게 즐겁구나, 이렇게도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과정이 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길잡이 교사가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꾸 질문하게 하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 정치인을 찾아가볼까?'라고 제안하는, 혹은 관련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는 역할. 그래서 청소년에게 정해진 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서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 그래야 그게 진짜 아동들이 교육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많아져야 학교 정규교육과정도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것을 현 70% 정도에서 30%로 줄이고, 그만큼 학교가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대학에 못매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았다.

● 주제 2) 코로나 시대에서 침해받는 아동의 놀 권리 (신체적·사회적 활동 중심)

-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공동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광역시 중 최초로 아동 놀 권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관련해 평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이 문제가 코로나 닥치면서 아주 절실했다. 옛그제 교육청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 과정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다고 싹 삭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께 물었다. “코로나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 하고 하는 걸 염려하는 건 당연했을 것 같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나오지 말라 하지, 학교를 가도 계속 마스크 쓰고, 교실에 가둬놓지. 초중고 청소년, 아동들에게 바깥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수영 예산을 깎았다면 바깥에서 활동하기 위한 예산은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전처럼 대규모로 수학여행은 못 가더라도, 학급별로 버스 한 대씩 빌려서 공원 같은 데 풀어놓을 수는 있지 않냐. 특히, 가정이 여유가 있는 집은 주말에 나들이라도 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것도 어렵다. 수영 대신 다른 야외활동이라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냐.”

아동 놀 권리 제정할 때도 그런 취지였다. 또 그때는 참고로 광주 청소년 의회 의원들 몇 명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반드시 어린이와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놀고 싶은 놀이터가 되게 하자, 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왔었다.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그 청소년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포괄적으로 놀 권리에 포함시켜서 함께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칼에 베여봐야 칼을 조심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나는 약간의 위험과 모험은 자꾸 연습하고 노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바깥놀이도 마찬가지다. 그 몸으로 노는 놀이과정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근육, 삶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도 맞설 수 있는 (근육).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또 싸움도 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이건 규칙 위반이야’ 이렇게. 그러다 타협점도 찾고 규칙도 만들어가고.

아까 언급한 청소년주도프로젝트도 그렇고, 아동 놀 권리도 그렇고 핵심은 교실 안에서 수학 공식 몇 개 외우고 지식을 암기하는 걸로는 마음의 근육, 삶의 근육을 기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동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여럿이서 함께 어울리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놀 권리에 교사들과 정치가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자꾸 움츠러들고 가둬두는 게 아니라, 방역수칙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그 아래에서 그룹별로 할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대규모로 다니던 예전보다는 예산이 더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다.

일단 지금은 시의원이다보니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올해 여러 사업 중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생존수영 문제 관련해서도 20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거 대안 가져와라, 학생들의 일종의 야외활동, 놀이 활동을 어떻게 더 보장할 건지 (계획해라).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 [삶디자인센터 인터뷰]

\* 아동 :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

\* 놀 권리 :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신체적, 사회적 발달까지 고려.

#### 1.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어떤 곳이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리바이 : 삶디는 시립 청소년 특화시설이다. 삶디자인, 즉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지역에 살고있는 다양한 어른들과 연결시켜주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을 확장시켜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꾸루 : 청소년주도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배움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젝트이다. 이걸 삶디만 하는 건 아니고, 광주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 중심으로 함께 하고 있다. 삶디는 본부와 같은 역할. 세부적으로는 '가지가지 프로젝트'(사전 선택형), '제멋대로 프로젝트'(자율 기획형)로 나뉘어 진다.

● 주제) 코로나 시대에서 침해받는 아동의 놀 권리 (신체적·사회적 활동 중심)

2. 코로나19 유행 이전, 삶디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나요? 아동들은 삶디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 리바이 : 광주에 많은 청소년 시설들이 있는데, 삶디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상이 고등학생(17~19세)이다.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물론 입시도 중요하지만,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7~19세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입시와 수능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성인과 중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

- 꾸루 : ‘청소년주도프로젝트’나,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와 같이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워크숍 같이 참여하는 활동도 있다. ‘이런 활동이 재미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단기적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는 ‘일들의 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와 연계해 약 한시간 반동안 다양한 직업 분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또 새롭게 도입한 게 ‘삶디 인턴’으로, 실제 일 경험을 배워볼 수 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일정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20~24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리바이 : 특히 삶디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것,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요리나 목공을 해보는 과정에서 각성과 함께 삶에 대한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동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여럿이서 함께 어울리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삶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3-1. 운영방식

- 리바이 : 아무래도 프로그램 진행에서 비대면 방식이 늘어났다. 이건 삶디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비대면에서도 청소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요리 관련 프로그램에서 식재료를 집에 배달해주고 비대면으로 함께 요리하는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다 보면 물리적인 제약을 피할 수 없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파쿠르 같이 신체적 활동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못하게 되는 등의 제약, 변화가 있었다.

- 꾸루 : 원래는 시립시설로서 자율 이용이 가능했었다. 출입 절차가 따로 없이, 화장실을 쓰거나 커뮤니티 공간인 2층을 빌려 쓰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리두기로 인해 이제는 프로그램 이용자나 관계자만 입장 가능해졌다.

### 3-2. 샵디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수

- 리바이, 꾸루 : 확연히 줄었다.

- 꾸루 :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 이전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했다. 특히 샵디 단골 같은 경우, 편하게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하나의 아지트나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다. 그나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출입이 가능한데, 작년에는 아예 프로그램 참가자만 입장할 수 있게 막아놨었다.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큰 건물에 사람이 너무 없다보니 힘이 안나고,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 3-3. 프로그램의 형태

- 꾸루 : 작년 청주프에서는 거의 절반을 비대면으로 운영했었다. 그래도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몇 차시 빼고는 대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청주프 프로그램 중에 '빠띠민주주의활동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12차시 전체를 비대면 형식으로 기획했는데, 이처럼 아예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또 작년에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 사례들을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래서 비대면 형식에서 운영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과 도구들이 있는지 공유하고 있다.

- 리바이 :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최근 한 대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들어보니 요즘 학생들도 대면수업보다 비대면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 작년에 비해서는 청소년들도 비대면에 조금 더 익숙해졌다는 생각을 한다.

- 꾸루 : 이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도 혼합형을 염두에 둔다. 대면을 고민하더라도, '비대면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진다. 청소년주도프로젝트만 해도, 프로그램을 위해 이런 식의 만남과 공부가 필요한데 비대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 아까 말한 '일들의 사전' 같은 경우에도 공간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직업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상담소처럼 진행되게 기획을 바꿨다. 그런 점들이 큰 변화인 것 같다.

청소년들도 등교를 하지 못하다 보니,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zoom 같은 것에도 더 익숙하다. 그래서 크게 어색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남아 있다고 느낀다.

### 3-4. 활동 참여도와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



- 꾸루 : 일단 만족도는 좋은 편이다. (웃음)
  - 리바이 : 센터가 시내에 위치해있다보니 근처에 학교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참여하기 어렵기도 하고, 설문조사지를 보면 어쨌든 학교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
  - 꾸루 :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ex) 매우 좋았다, 좋았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달라졌다. 이전에는 실제로 경험해봐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활동들을 해서 좋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장점도 있다며 차분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회고가 달라진 면이 있다.
- 한편으로는 계속 불편함도 있는 것 같다. 결국엔 만나고 싶어하는. 계속 학교도 못가고 하니 이런 활동에서라도 밖에 나가서 대면으로 할 수는 없는지 아쉬움이 남는 듯 하다.

#### 4. 코로나19로 인해 살디센터 운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리바이 :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갑자기 방역수칙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고, 학교 확진자 발생 기사가 뜰 때마다 예민해지고 긴장이 되는 부분은 있다. 사실 업무 자체, 그러니까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좀 힘들었다.
- 리바이 :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기사가 뜰 때마다 혹시 우리 프로그램 참여자 중 그 학교 학생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교육청/시청/학부모님들께 연락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긴장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 꾸루 : 저도 이번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순 없지만 (확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통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도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게 전달되는 게 다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비대면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방식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발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잘, 좋은 소통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남는다.
- 리바이 : 청소년이 원하는 걸 못 해줄 때가 (힘들다). 아무래도 청소년들과 친해지면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또 그런 활동들을 주관하는 게 저희 업무 역할 중 하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좀 있었고.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서로의 프로젝트 한 것들을 같이 발표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이런 활동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아

쉬움이 남는다. 해주고 싶은 것들을 못 해주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 꾸루 : 청주프 중에 창업 관련 프로젝트가 있다. 원래는 마지막 차시에 본인들의 기획안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초청해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다. 그때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슬퍼하는 이모티콘을 올리고 했던 게 기억난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을 못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실망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쨌든 직접 만났을 때 주는 에너지나 힘이 있으니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리바이 : 변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현재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공간을 마련하고, 삶의 미션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작년에는 우리도 코로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1년 동안 적응이 되고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 꾸루 :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삶디는 청소년이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실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팬데믹이 반복될거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삶디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떻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코로나19가 삶디에게, 그리고 삶디에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리바이 : 삶디 초창기부터 있었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4~5개월간 문을 닫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문을 열고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니까 평소에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더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아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일거라 생각한다. 평소에는 시간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걸 일깨워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꾸루 :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zoom을 비롯해 여러 방식을 시도했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코로나가 생겨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원래 있었지만 우리는 ‘대면으로 하면 되는 데 왜?’라며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연결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게 가속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언젠가는 올 텐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만나서 소통하고, 배움을 얻어가기 위해 찾다 보니 접근이 더 가속화된 것 같다. 아직 불편함이나 갈증은 남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터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7. 이외에 삶을 운영하며, 또 코로나19를 이겨내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하신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리바이 : 우스갯소리로, 놀아본 경험이 있어야 잘 논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만큼 청소년의 놀 권리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삶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삶디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피규어 연구소’라고, 피규어를 살펴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도된 건 아닌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중에 몇몇은 약간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피규어 연구소에 참여하면서 심지어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출근하듯이 센터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10시 출근인데 막 9시 4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웃음) 그렇게 센터에 와서 수업 때 완성하지 못했던 것도 마무리하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본인이 놀아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주는 게 삶의 미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꾸루 :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먼저 하나는 청소년에게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청소년들이 진짜 바쁘다. 안타깝지만 뭐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소년의 하루를 바쁘게 하는데, 그런 부담 없이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사실 삶디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교육청, 시 등에 연계해서 함께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하고 협업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청주프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도 교육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중 하나가 삶디 프로그램들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다. 질병, 기후위기, 가상현실의 가속화, 메타버스 등..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어떤 재미를 찾아주거나 직업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하는 고민을 하고, 또 그게 삶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리바이 : 특히 놀 권리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논다는 게 절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보통 논다고 하면 공부해야지, 혹은 일해야지 뭘 노냐고 말을 한다. 하지만 논다는 건 삶의 활력이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다.

- 꾸루 : 그 초반에 놀 권리에 대해 정의한 게 참 좋았다.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고려한다는 게... 다른 시설을 보면 노래방도 있고, 오락기도 있고 한데 삶디에는 사실 그런 게 없다. 논다는 게 단순히 게임하고 노는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즐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디에서도 그냥 소비적으로 돈 쓰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발달과 배움을 얻어감으로써의 놀이'의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방 같은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추가 질문. 작년에 실제로 삶디 센터에 확진자 동선이 겹쳤다고 알고 있다. 그때 직원들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 꾸루 :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다. 미리 대비도 하고 있었고 절차들도 있었지만, 사실 많이 당황했다. 실제로 확진자는 나왔고, 우리는 보건당국의 판단을 따랐다. 직원들 같은 경우엔 2주동안 자가격리를 했고, 센터를 방문했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에 따라 대처했다.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코로나19의 무서움을 느낌과 동시에 또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정말 노심초사했다.

- 리바이 :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돌리면서 원래는 민원이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동안 삶디가 쌓아온 신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나마 힘이 됐다. 당시 전 직원이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집 앞 편의점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있다 보니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문자들이 도움이 되었다.

## 2021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인쇄일 | 2021년 11월  
| 발행일 | 2021년 11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4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주)두루행복한세상 (070) 4659-0803

ISBN 978-89-6114-857-3 93330

비매품